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통일 대역사의 터를 닦고 국민 대화합을 실현하는 일이다. 하지만 반세기 동안 분단 상태가 지속되면서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지녀왔던 지역, 문화, 역사적 경험 등의 동질성이 점차 상실되어 가고 있다.

이렇듯 다른 환경에서 자라난 청소년들이 통일사회에서 함께 생활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여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 분단 후 새로운 세대인 남북한 청소년의 이질화 문제는 통일문제에서 정치·경제적 요소 못지 않은 중요한 변수이다.

현재 북한은 위기 상황에 몰리고 있다. 계속된 흉년과 경제난으로 인해 탈북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체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지도층에서의 탈북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체제가 곧 와해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통일된 한국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통일이 하나의 기회가 아닌 위기로 다가와 우리나라는 커다란 사회적 혼란과 충격을 겪을지도 모른다. 한 예로, 독일의 경우 통일에 대해 상당기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충격을 극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시간이 걸렸다. 통일이란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접촉과 교류를 통해 몇 단계의 질적 전환을 거쳐야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아주 길고도 먼 과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통일과 통일 후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청소년들이 현재 통일과 남북관계에 대해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청소년들이 통

일과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작업은 통일 대역사의 터를 닦고 국민 대화합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북한에 대한 남한 청소년의 의식구조가 어떠한가에 대해 설문조사하고 분석하고 고찰한 후 남북한 청소년의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을 항목별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들이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상, 북한주민 및 북한청소년에 대한 태도, 북한관련 언론에 대한 태도, 남북한 청소년 교류관, 통일에 대한 태도, 북한에 대한 지식의 실태를 파악
- (2) 남북한 청소년들이 상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3) 통일에 대비한 청소년 가치관 교육의 기초자료 제공
- (4) 청소년들을 통일세대로 육성하는 청소년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북한에 관한 청소년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주로 활용하였다.

1) 문헌연구

그 동안 행하여진 대표적인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및 북한에 관한 의식 연구를 살펴보았으며, 현재 북한의 실정과 관련된 국내외 언론보도들을 종합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얻은 자료들은 설문지 내용작성과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2) 설문조사

설문지는 본 연구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도구이다. 설문지는 조사할 의식구조의 영역을 정한 후에 그것에 맞추어서 선행연구물들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설문영역은 청소년들이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상, 북한주민 및 북한청소년에 대한 태도, 북한관련 언론에 대한 태도, 남북한 청소년 교류관, 통일에 대한 태도, 북한에 대한 지식의 실태로 정하였다. 선행 연구물들의 질문문항 중에서 연구목적에 가장 적합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항들을 추출하여 인용 혹은 재구성하고,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문항들을 첨가하여 연구 범위에 따라 각 영역별로 작성했다. 문항 내용은 되도록 간단히 하되 응답자들의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였고, 결과처리를 단순화하기 위해 자유사항은 최소화하였다. 설문내용에 있어서 학교 급별에 따른 차이는 없으며, 여기에 사용된 문항은 2개의 자유기술식 문항 이외에는 모두 선다지 선택형 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3. 선행연구 개관

그 동안 행하여진 대표적인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및 북한에 관한 의식 연구를 살펴보았으며, 현재 국내외 언론에 나타난 북한의 실태를 요약하였다.

1) 문헌연구

변진홍(1982), **북한 청소년과 인간 개조 실태** 북한 청소년의 정치사회화를 “인간 개조”라고 지칭하고 이와 관련하여 일탈 문제를 논하였다. 이것은 북한의 내용을 소개한 후, 북한 공산주의 정치사회화의 목표라는 이상과 달리, 현실적으로 청소년의 일탈 현상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특히 공산주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이 심각히 갈등을 가지게 됨으로써 체제 반항적 이탈로 나가게 된다는 유추다. 그리고 청소년의 일반적인 사회 범죄유형으로는 폭력, 연애, 성범죄 등, 경제 사범으로는 국가재산, 횡령, 부정 유출 등, 정치사범으로는 정치범, 사상범을 꼽았다. 직접적 자료는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

이영숙(1991), 북한 청소년에 대한 연구 동향 이 연구는 1991년까지의 남한에서 실시된 북한 청소년에 대한 기존 연구의 주제와 현황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미래의 연구를 위한 방향을 시사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북한 청소년에 대한 연구의 포괄적인 흐름을 고찰하기 위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논의를 진전시켰다. 시기의 구분은 1970년대와 1980년대로 나누어, 이 분야 연구의 시대적 추이를 구분하고 검토하였다.

박성희(1991), 북한 청소년 정책에 관한 연구 이 연구는 북한의 청소년 정책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시사점을 밝혀 통일을 위한 정책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정책적 측면에서 북한 청소년 정책의 실체를 밝히고, 가능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북한적 요소가 무엇인가를 밝히려고 시도하였다.

김영기(1991), 민족 문화의 동질성 회복 이 연구에서는 남북한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한국인의 기본 방향은 통일 지향이라는 것을 역사적 고찰을 통해 전제한 후 언어와 전통 문화에서의 이질성을 타파하기 위해서 문화 교류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현복(1991),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 현황과 전망 현재 이질화되어 있는 남북 언어에 대하여 언어의 본질과 기능을 살펴본 다음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 현상과 그 원인을 고찰하여 언어 이질화의 극복 방안과 대책을 제시하였다.

박성희 외(1992), 청소년의 통일 의식에 관한 연구 이 연구는 전국의 중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는 4,000명의 학생 청소년 집단

을 대상으로 한 통일 의식에 관한 설문 조사 연구이다. 설문 내용은 청소년들의 개인적 배경(6문항)외에 연구 문제에 따라 크게 통일관(21문항), 그리고 남북한 교류에 관한 견해(5문항) 등 3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동규(1992), 남북한 청소년의 이질성 및 동질성 요인 분석이 연구의 목적을, 남북통일을 앞두고 무엇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민족 공동체 의식의 회복을 위해서 제1차적(선결적) 과제로서 “현상 파악”(기초 이해)에 있으며 더 나아가 통일 후의 조속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 결정에 기본 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두고, 남북한 청소년간의 이질적(상반적) 가치관에 대하여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남북한 청소년들의 의식구조 또는 가치관 가운데 이질성과 동질성을 고찰 분석하되, 주로 상반적 이질 요인을 중심으로 대비시켜 그 이질화의 현상과 원인을 설명하였으며, 결론 부분에서는, 남북한간의 청소년 성격 요인(가치관) 중에서 긍정적 동질성은 살리고, 부정적 동질성은 지양하는 방법, 또는 긍정적 이질성과 부정적 이질성의 조화와 극복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그러나 북한에 관계되는 자료에서 가능한대로 제1차적 문헌에 의존하려고 하였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 제한성 때문에 관련 선행 연구와 2차자료에서도 참고하는데서 야기되는 연구 내용의 낮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박성희(1992),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방안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단절된 역사 속에서 북한 청소년간의 이질화, 적대화 현상을 극복하고 단일민족으로서의 동질성과 일체감을 회복시켜 나가면서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서 묶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남북한 청소년 교류 활동을 남북한 청소년들간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고 민족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제시하면서,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방향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청소년 교류의 가능성을 확실히

예측할 수 없는 현실 상황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한 선행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론적 접근에 그친 기초적인 연구의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연구의 제한점을 갖고 있다.

최현·김지영(1993), 청소년의 성격 형성 과정에 대한 남북한 비교연구-남북한 청소년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예비 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청소년들의 성격과 그러한 성격의 형성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남북한 청소년의 이질화 정도를 점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세우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남북한 청소년들의 성격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양 집단의 성격 특성을 동일한 성격 측정 척도상에서 비교 검토하였다.

송광성 외(1993), 북한 청소년 생활 이 연구는 북한 청소년에 대한 학술논문이라기 보다는 생활 상태를 조사한 것으로서, 결론이 없는 대신 북한 청소년 생활의 요약과 함께 북한 청소년에 대한 정책 수립과 후속 연구에 참고할 사항을 기록하였으며, 부록에는 북한에서 귀순한 사람들을 면접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실었다. 연구의 목적인 북한 사람의 입장에 서서 북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가정, 학교, 직장, 군대 등 생활의 지침이 되는 북한 청소년 정책을 조사하였고, 청소년들의 사회생활의 시작인 학교생활, 군대 생활, 조직 사회 생활, 가정과 여가 생활을 살펴보았다.

김성이(1994), 북한 관련 언론 보도 내용이 청소년통일관에 미친 영향 조사 이 연구는 남북 관계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이 통일을 위한 중요 요인이 되며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인식은 언론 매체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는 전제 아래 언론 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는 남북 관계 내용들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남녀 중·고등학생 73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개인적 상황 및 언론 매체 노출 상황이 청소년의 지식 및 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송광성(1994), 독일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청소년 문제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측하고자, 최근에 통일된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청소년 문제는 사회문제를 반영한다. 따라서 통일된 독일의 청소년 문제는 주로 동독에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제일 중요한 문제를 동독 청소년들의 교육 문제, 실업 문제, 그리고 전체 독일의 청소년 집단 폭력 문제를 들었다. 그러나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되어 있어서 문제들을 깊이 분석하지 못하고 문제의 개요만 소개하였다.

김기태(1994), 북한 청소년 관련 대중매체 내용 분석 연구 이 연구는 우리 나라 대중매체에 나타난 북한 청소년 관련 기사나 프로그램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 실태와 특성을 살펴보았다.

박갑수(1994), 남북한 청소년의 심리 및 의식구조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문헌과 귀순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남북한 청소년의 가치관과 의식구조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남북한의 청소년들이 우리 민족에게 이익과 발전을 줄 수 있는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의식구조를 갖추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도홍렬(1994), 남북한 청소년의 생활과 문화 남북한 청소년 문화의 이질적 격차는 물론 공통적 요소를 있는 그대로 파악해 봄으로써 남북한의 청소년 문화가 민족적 동질성을 축적하고 통일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창조하는 방도를 모색하였다.

이원봉(1995), 북한 청소년 생활의 심층 연구(북한 청소년 조직과 집단생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 하에 수행되었다. ① 남북한 청소년 동질성 회복을 위한 기초 자료 및 연구 결과 제공 ② 전체 인식을 토대로 한 북한 청소년 이해 ③ 북한 청소년 변화에 대한 동태적 인식 ④ 북한 청소년에 대한 심리적 차원의 인식 ⑤ 통일 정책 수립에 필요한 아이디어 모색. 연구 방법은 우선 현상학적인 바탕을 지닌 질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는 연구자는 일단 자신의 가치관, 선입관 등을 배제하고 상대방의 주관적인

세계 속에 스스로를 위치시키고 연구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정치적 선택성’의 원리를 들 수 있다. 이는 주요 사회 변동이 정치적 선택 즉 정치 엘리트의 결정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시각인데 북한의 특성이 전체주의적 성격을 띄고 있으므로 북한 사회를 연구하는데 이는 매우 설득력 있는 방법이 된다.

박성희(1995), 북한 청소년 단체 활동에 관한 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움으로써 남북한 청소년간의 이질화를 극소화하고 민족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는 통일 지향적인 청소년 정책의 방안뿐만 아니라 통일 후의 삶을 대비하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생활과 활동들이 조직화, 집단화되어 있고, 집단 활동의 결과가 장래의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 단체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청소년들이 단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청소년 단체의 조직적 형태와 특성에 관한 부문과 청소년 단체를 통하여 나타나는 청소년 활동의 성격과 유형에 관한 부문으로 나누어서 북한 청소년 단체의 활동 사업을 중점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통일연수원(1995), 통일 문제 이해 이 연구는 통일은 왜 이루어야 하며,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통일 환경은 지금 어떠하며, 현재의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를 고찰한 후 과연 우리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 언급하였다.

통일연수원(1995), 북한 이해 이 연구는 통일을 이루기 위해 북한을 이해하고자, 북한을 이해하는 관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며, 북한 체제의 특성은 무엇이며, 그리고 북한 체제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 전망한 후 정치, 행정과 사법 제도, 경제, 사회, 교육과 문화, 외교, 군사적인 측면을 고려하였다.

통일원(1995), 통일 백서 분단 50년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한의 안정과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대비하고, 통일을 앞당기고 이루기 위해 통일 정책, 남북 대화, 남북 교류 협력, 통일교육·홍보 등 통일 문제 전반에 걸쳐 다루었다.

2) 국내외 언론에 나타난 북한의 실태

다음은 현재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하여 보도되고 있는 국내외 언론내용들을 요약한 것이다.

북한은 현재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북한은 현재 너무나 큰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북한에 관한 연구들에서 기술된 사실들의 많은 부분들은 더 이상 북한의 실상을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현재 북한은 몇 년째 계속되는 흉수, 가뭄으로 인한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체제가 곧 붕괴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는 한편, 북한체제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말하는 국내외 전문가들도 많이 있다. 하여간 현재 북한이 위기의 국면을 맞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이러한 식량난은 북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첫째가 식량배급의 중단이다. 북한 체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식량배급이 중단됨으로써, 북한주민의 생활상은 급변하고 있다. 고위 당직자를 제외한 많은 주민들이 심한 기근이 시달리고 있다. 굶어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과 노인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한다.

식량 배급의 중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유랑하게 되어 많은 유민들이 생겼다. 여러 곳에 식량이 주로 거래되는 사적 시장이 많이 생겼다. 이는 이제까지 북한의 경제, 사회상에 변화를 의미한다. 미미하게나마 시장경제 사회의 모습을 보

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기아로 인하여 필사적으로 된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질서와 치안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산을 불태워 밭을 확보하려는 화전민들이 많아졌다. 가동이 중단된 북한 공장의 설비들이 직원들에 의해서 뜯겨져 중국으로 팔려나가고 있었다. 고철들을 실은 트럭이 끊이지 않았다. 북한정권은 이에 대해서 거의 속수무책이 된 상태에 있다. 화전을 위한 방화나 조그만 절도도 공개처형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치안과 질서를 잡으려 하고 있지만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상황은 쉽게 변할 것 같지 않다. 그 이유로는 첫째, 위에서 언급한 화전으로 인한 북한 산림자원의 황폐화는 북한 지역을 가뭄과 홍수에 아주 취약하게 만들었다. 당장 올해도 극심한 가뭄으로 이제 비가 온다고 해도 식량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하다는 외신이 들어오고 있다. 둘째, 작년 재작년의 홍수로 유실된 논과 밭이 복구되지 않은 상태로 마치 모래 자갈밭처럼 남아 있었다. 기아 상태에 있는 주민들이 산을 불태워 화전을 만드는 작업은 북한정권의 단속에도 계속될 것이다.

이런 위기에 대해서 북한정권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극복 노력을 하고 있다. 하나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백만 대군이라는 무력을 가지고 극복을 하려 하고 있다. 남한과 미국 탓에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이라는 선전과 더불어 전쟁준비를 통하여 북한주민을 긴장하게 하고 탈출구를 찾으려 하고 있다. 핵무기라는 카드를 내세워 경수로나 북한 원조를 이끌어내려는 노력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이제는 자존심을 버리고 다른 나라들에게 원조를 요청하는 것이다. 북한의 기아 실상을, 특히 어린이들의 굶주린 모습을 다른 나라에 공개함으로써 원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딜레마는 백만 대군이라는 막강한 군대를 가장 큰 원조를 해 주어야 할 남한과 미국을 향하여 배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원조한 식량이 그러한 군대를 유지하는 데 제일 먼저 사용될 것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놓고 원조를 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김정일·김일성 부자에 대한, 그리고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나 충성심이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자신이 굶어죽기 일보인 상태에서, 주위에 굶어죽는 사람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선전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정권자나 정부에 대한 신뢰와 충성심이 생기겠는가? 북한에서는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김일성 동상의 다리가 잘려 나간 사건이 일어났으며, 어떤 주민은 김일성 부자가 꼴 보기 싫다고 사진을 가려 놓고 있었다.

북한 청소년 마음의 황폐화. 이러한 북한의 상황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우선 학교에서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키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고 공부를 할 시간이 없으며, 그나마 학교에 나오는 학생도 반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먹을 것을 찾아 유랑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생겼다. ‘꽃제비’라는 이들에 대한 호칭까지 생겼다.

귀순자들이나 여러 경로를 통하여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북한 청소년들이 마음이 황폐화되고 정서가 고갈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항상 배고프고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가족간의 유대가 없어지고, 그로 인한 가정교육의 부재도 한 원인이라 한다.

통일비용. 많은 사람들은 통일 비용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는 제일 잘 살았다고 하는 동독과 서구에서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어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던 서독과의 통독도 서독에 막강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 주었고, 통독 후 독일은 많

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그러한 통일 비용 때문에 은근히 통일을 바라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다. 통일을 하더라도 즉시 합치지 말고, 남북이 나누어진 상태에서 서서히 남한과 북한과의 차이를 좁혀 가자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다.

경제적인 문제 뿐 아니라 사회 정치적인 문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통일 후 많은 폭력문제, 인종문제들이 터져 나왔으며, 독일의 대외적인 이미지도 많이 나빠졌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지역감정의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다. 남북이 통일되었을 때, 북한과 남한과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남한의 주민들과 북한의 주민들이 한민족으로서 어떻게 화합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도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미리 예상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Ⅱ. 설문조사결과의 분석 및 해석

제1절 조사개요

설문영역은 1) 북한에 대한 인상, 2) 북한주민 및 북한청소년에 대한 태도, 3) 북한관련 언론에 대한 태도, 4) 남북한 청소년 교류관, 5) 통일에 대한 태도, 6) 북한에 대한 지식 6개 영역으로 나누었다.

설문지는 조사할 영역을 정한 후에 그것에 맞추어서 선행연구물들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선행 연구물들의 질문문항 중에서 연구목적에 가장 적합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항들을 추출하여 인용 혹은 재구성하고,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문항들을 첨가하여 영역별로 작성했다. 문항 내용은 되도록 간단히 하되 응답자들의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였으며, 결과처리를 단순화하기 위해 자유사항은 최소화하였다. 설문내용에 있어서 학교 급별에 따른 차이는 없으며, 여기에 사용된 문항은 2개의 자유기술식 문항 이외에 모두 선다지 선택형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설문 조사대상 선정 및 실시

본 연구는 전국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는 학생청소년집단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표본의 선정은 우선 성별, 학교 급별, 지역별로 계층화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였고, 표본의 크기는 1,200명으로 결정하였다. 조사대상의 표집은 각 하위집단별 모집단의 실제인구(1995년 교육통계연보 기준) 비례로 할당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조사는 전국 18개의 중·고등학교 학교에서 학교 정규수업시간

중에 연구자가 직접 조사하거나 담당교사에게 조사방법을 충분히 숙지시킨 후 교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의 표집은 <표 1>와 같다.

< 표 1 > 응답자의 교급별 · 지역별 · 성별 분포

교 급	지 역	모 집 단		표 집	
		실 수	비 율	남학생수	여학생수
중 학 교	서 울	566,645	23.1 %	71	67
	경인권	481,006	19.6 %	61	57
	충부권	343,581	14.0 %	43	41
	호남권	322,905	13.2 %	41	38
	영남권	738,835	30.1 %	94	87
소 계			100 %	310	291
고 등 학 교	서 울	533,421	25.0 %	79	71
	경인권	352,890	16.6 %	53	47
	충부권	308,307	14.5 %	45	42
	호남권	295,625	13.8 %	43	40
	영남권	641,191	30.1 %	95	85
소 계			100 %	315	285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중학생이 49.7%, 고등학생이 49.5%이며, 남자가 50.7%, 여자는 48.3%로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74.1%이고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24.6%로서 대부분 대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 중 고향이 이북인 분이 한 분이라도 있는 경우가 5.9%, 조부모 중 고향이 이북인 분이 한 분이라도 있는 경우가 14.5%, 친척 중에

북한에 살거나 고향이 북한인 분이 한 분이라도 있는 경우가 9.8%로 나타나, 부모나 조부모, 친척들 중에 북한에 살거나 고향이 북한인 분이 있는 경우가 30.2%로 집계되었다.

< 표 2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인	교 급		고향이 이북인 부모의 유무	
구 분	중	고	유	무
빈도(%)	594(49.7)	592(49.5)	71(5.9)	1,113(93.1)
합 계	1,186		1,184	
변 인	성 별		고향이 이북인 조부모의 유무	
구 분	남	여	유	무
빈도(%)	606(50.7)	577(48.3)	173(14.5)	1,008(84.4)
합 계	1,183		1,181	
변 인	거주도시		고향이 이북인 친척의 유무	
구 분	대도시	중소도시	유	무
빈도(%)	886(74.1)	293(24.6)	117(9.8)	1,059(88.6)
합 계	1,179		1,176	

제2절 북한에 대한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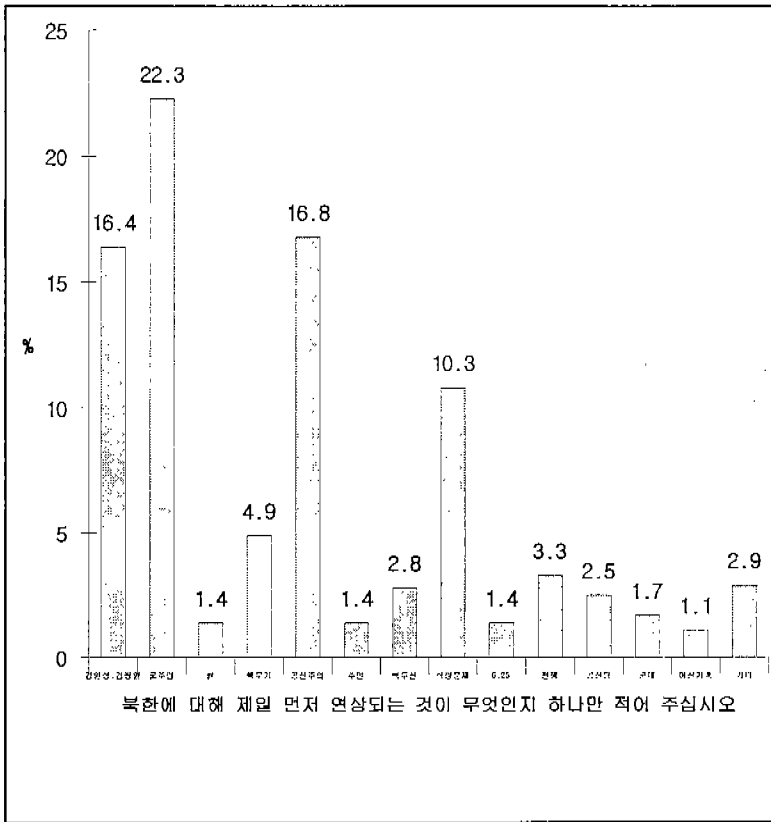
1. 북한에 대해 제일 먼저 연상되는 것은 (1)
2. 신문이나 방송에서 북한소식을 접하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9)
3. 북한 청소년들과 남한 청소년의 사고방식은 (4)
4.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까봐 불안하다(39)
5.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21)
6. 앞으로의 군비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2)

이 절에서는 주로 청소년들에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상, 즉 청소년이 북한에 대해서 가지는 즉각적인 생각, 느낌 등을 알아보려 하였다. 북한에 대해 제일 먼저 연상되는 것, 북한 소식을 접했을 때의 느낌, 북한 청소년들의 사고 방식이 남한 청소년들의 사고 방식과 얼마나 틀릴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북한에 대한 인상

남한 청소년의 북한에 대한 인상을 조사하기 위해 북한에 대해 제일 먼저 연상되는 것이 무엇인지 기재하여 달라고 한 결과, 가난·굶주림(22.3%), 공산주의(독재)(16.8%), 김일성·김정일(16.4%), 식량문제(10.3%), 핵미사일 무기(4.9%), 전쟁(3.3%), 백두산·금강산(2.8%), 공산당(2.5%), 군대(1.7%), 쌀, 주민(아이들), 6·25, 통일, 간첩, 기쁨조, 옥수수죽, 아오지탄광, 인육, 흑백, 자아비판, 휴전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 북한에 대한 인상



이중에 굶주림, 식량문제, 쌀, 옥수수죽, 인육은 모두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식량난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모두 34.8%이다. 또한 김일성·김정일, 공산주의독재, 공산당, 아오지탄광 등은 독재에 관한 것으로 모두 합하면 36.1%이다. 핵무기, 전쟁, 6.25, 군대, 휴전선, 간첩 등은 전쟁에 관한 것으로 모두 합하여 12.2%이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북한에 대한 인상은 아주 어두운 편이었다. 기아와 독재, 전쟁에 관한 것이 주조를 이루었다. 어두워 보이지 않는 대답으로는 백두산·금강산이 2.8% 나온 것 뿐이

었다.

1992년 청소년연구원(박성희·박정선) 연구에서 같은 질문을 하였을 때 제일 많이 나온 답변이 김일성·김정일(27.1%), 정치체제(17.5%), 주민의 생활(16.6%), 군사문제(10.0%)의 순서로 답변이 나왔었다. 1997년 현재의 남한청소년들은 북한의 절박한 식량문제에 대해서 강한 인상을 받고 있었다.

교급간에는 통계적으로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으며, 남녀간에는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으며, 거주지역별로는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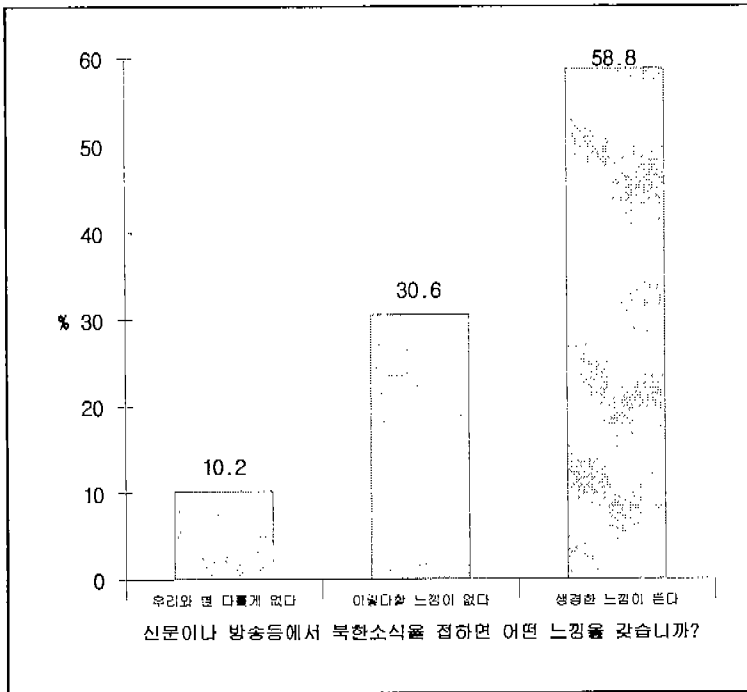
2. 북한소식에 대한 느낌

남한청소년들이 북한에 관련된 언론을 접했을 때 어떠한 느낌을 갖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 북한소식을 접하면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북한관련 언론을 접한 느낌에 대해 설문조사 한 결과, 생경한 느낌이 든다(58.8%), 이렇다 할 느낌이 없다(30.6%), 우리와 별 다를 게 없다고 느낀다(10.2%)의 순으로 나타나 북한에 대해 이질감을 느끼거나 관심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교급별로 살펴보면, 중고생 모두 생경한 느낌이 든다(54.7%, 63.6%), 이렇다 할 느낌이 없다(33.1%, 28.3%), 우리와 별 다를 게 없다고 느낀다(12.2%, 8.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북한관련 언론을 접했을 때 이질감을 더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교급간에는 통계적으로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북한소식에 대한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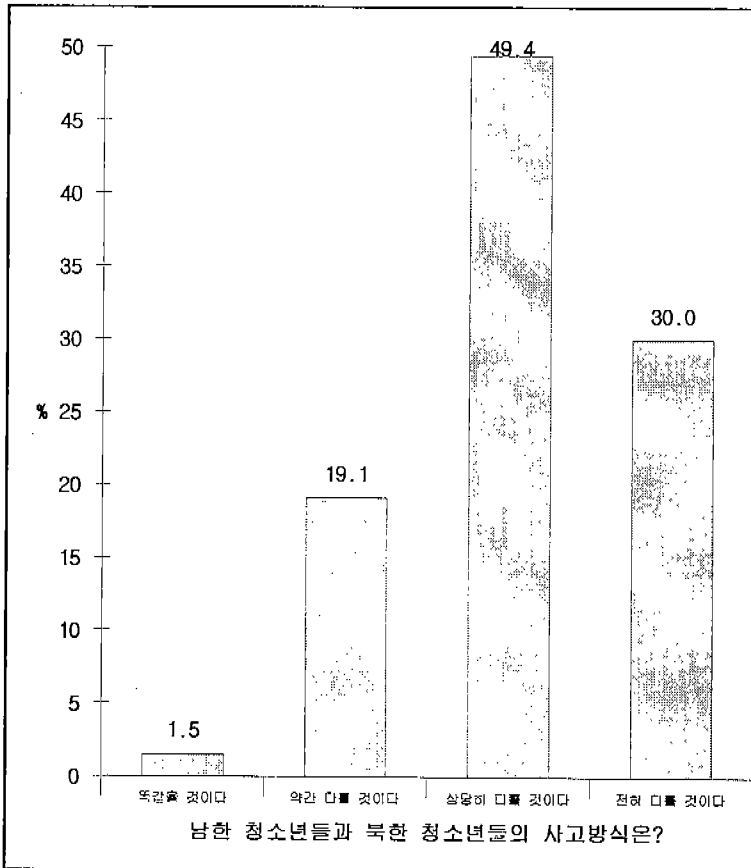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생경한 느낌이 든다(57.2%, 60.6%), 이렇다 할 느낌이 없다(31.5%, 30.2%), 우리과 별 다를 게 없다고 느낀다(11.2%, 9.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북한관련 언론을 접했을 때 더 이질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모두 생경한 느낌이 든다(57.8%, 62.5%), 이렇다 할 느낌이 없다(32.8%, 24.6%), 우리과 별 다를 게 없다고 느낀다(9.4%, 13.0%)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남북한 청소년의 사고방식 차이

남북한 청소년의 사고방식의 차이에 대해 설문조사 한 결과, 상당히 다를 것이다(49.4%), 전혀 다를 것이다(30.0%), 약간 다를 것이다(19.1%), 똑 같을 것이다(1.5%)의 순으로 나타나 79.4%의 청소년들이 남북한 청소년의 사고방식이 아주 다를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3) 남북한 청소년의 사고방식의 차이



교급별로 살펴보면, 중고등학생 모두 상당히 다를 것이다(44.2%, 54.4%), 전혀 다를 것이다(29.7%, 30.6%), 약간 다를 것이다(24.8%, 13.5%), 똑 같을 것이다(1.3%, 1.5%)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남북한 청소년의 사고가 서로 불일치할 것이라고 더 많이 응답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상당히 다를 것이다(48.3%, 50.8%), 전혀 다를 것이다(31.2%, 28.8%), 약간 다를 것이다(18.3%, 19.8%), 똑 같을 것이다(2.1%, 0.7%)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불일치도가 클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모두 상당히 다를 것이다(49.5%, 48.5%), 전혀 다를 것이다(31.6%, 25.6%), 약간 다를 것이다(17.2%, 24.9%), 똑 같을 것이다(1.7%, 0.7%)의 순으로 나타났고, 중소도시에 사는 청소년이 대도시에 사는 청소년보다 사고방식의 불일치도가 적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거주지역간에는 통계적으로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4. 북한의 전쟁도발에 대한 불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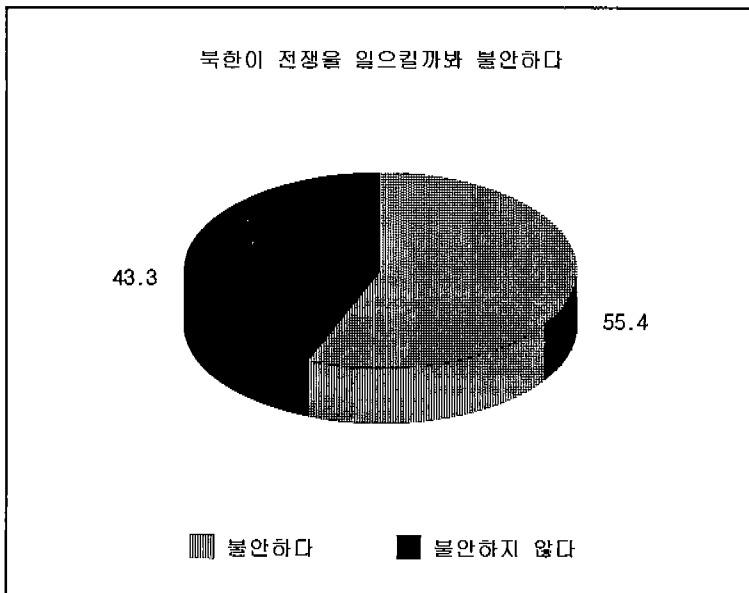
북한이 전쟁도발에 대해 남한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을 조사하기 위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까봐 불안하다’라는 문항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불안감을 느끼는 청소년은 55.4%, 느끼지 않는 청소년은 43.3%로 나타났다.

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의 경우 59.4%의 청소년이 불안하다고 답변하였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53.2%의 청소년은 불안하다고 답변하여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불안감을 더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급간에는 통계적으로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다고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50.8%의 청소년이 불안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여자의 경우 61.9%의 청소년이 불안하다고 답변하여 여자가 남자보다 더 불안감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녀간에는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그림 5) 북한의 전쟁도발에 대한 불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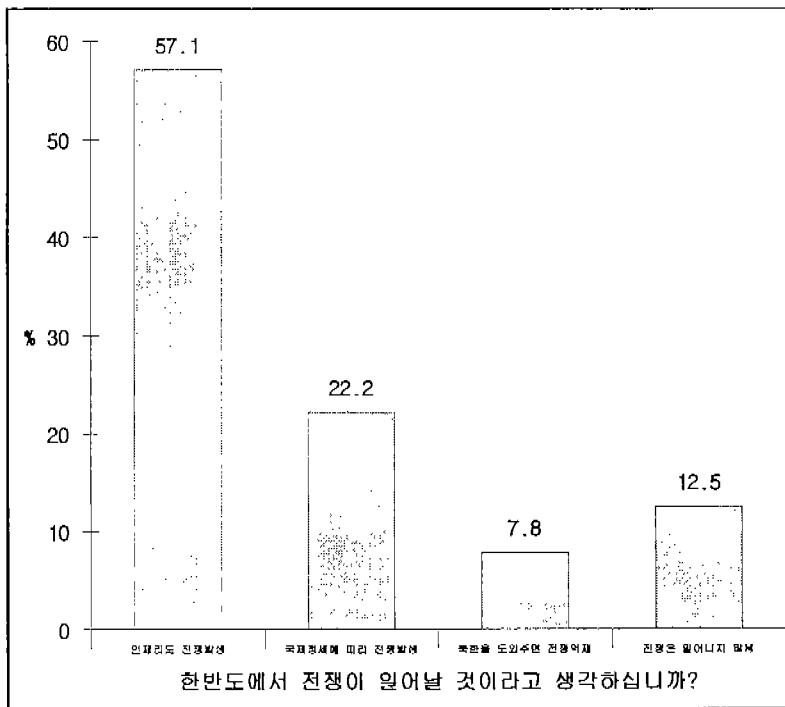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55.7%의 청소년이 불안하다고 답변하였고,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57.2%는 불안하다고 답변하여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불안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5.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설문조사 한 결과 57.1%의 청소년이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답하였고, 22.2%는 국제정세에 따라 우리의 뜻과는 상관 없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2.5%, 남한이 북한을 도와주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7.8%로 나타났다.

(그림 5)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



교급별로 살펴보면, 중고등학생이 모두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

제라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58.9%, 56.1%), 국제정세에 따라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17.6%, 27.15%),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12.9%, 12.0%), 남한이 북한을 도와주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10.7%, 4.7%)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전쟁발발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교급간에는 통계적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58.6%, 56.3%), 국제정세에 따라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19.3%, 25.3%),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13.0%, 12.2%), 남한이 북한을 도와주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9.1%, 6.3%)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가 남자보다 전쟁발발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남녀간에는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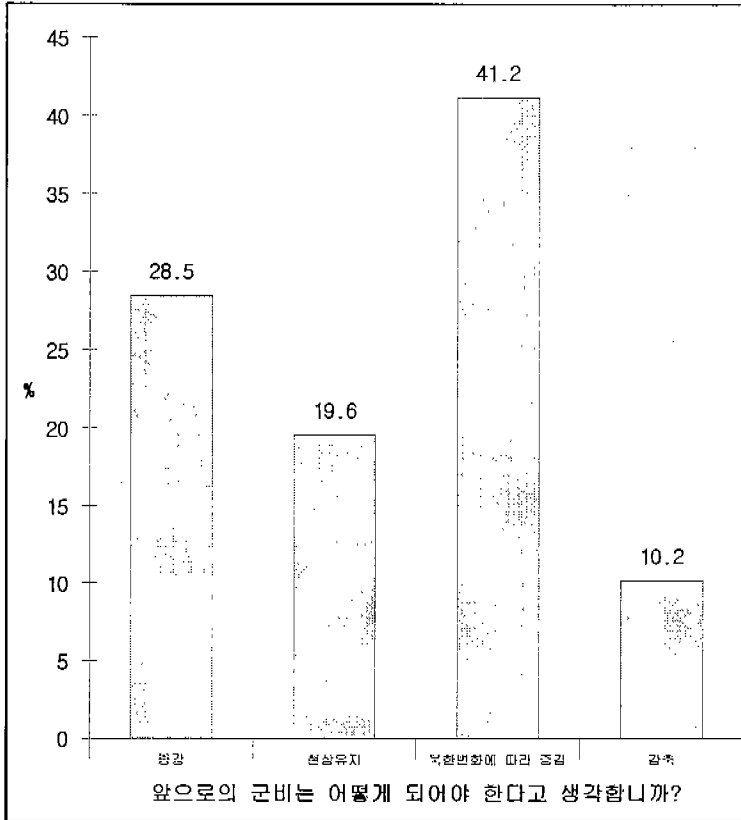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모두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56.8%, 62.7%), 국제정세에 따라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23.7%, 18.5%),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23.7%, 18.5%), 남한이 북한을 도와주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6.9%, 10.3%)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간에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6. 한국군의 군비증감정책에 대한 태도

청소년들이 한국군의 군비증감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군비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북한의 변화에 따라 증감되어야 한다(41.2%), 증강되어야 한다(28.5%), 현상대로 유지되어야 한다(19.6%), 감축되어야 한다(10.2%)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정세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응답이 제일 많았고, 군

비를 감축하기보다는 증강하는 쪽으로 더 많이 답변하였다.

(그림 6) 한국군의 군비증감정책에 대한 태도



교급별로 살펴보면, 중고생 모두 북한 변화에 따라 증감되어야 한다(38.7%, 44.1%), 증강되어야 한다(32.0%, 25.5%), 현상대로 유지되어야 한다(21.2%, 18.2%), 감축되어야 한다(8.1%, 12.2%)의 순으로 나타나, 남한의 탄력적 대응을 중시하였고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군비증강을 찬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교급간에는 통계적으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북한 변화에 따라 증감되어야 한다(39.0%, 44.0%), 증강되어야 한다(30.1%, 27.1%), 현상대로 유지되어야 한다(18.3%, 20.9%), 감축되어야 한다(12.6%, 8.0%)의 순으로 나타나 교급별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남녀간에는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살펴보면 북한 변화에 따라 증감되어야 한다(42.3%, 37.5%), 증강되어야 한다(30.0%, 24.9%), 현상대로 유지되어야 한다(17.5%, 26.6%), 감축되어야 한다(10.2%, 10.9%)로 나타났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군비 증강에 더 찬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이다.

제2절 요약

북한에 대한 인상

1. 북한에 대해 제일 먼저 연상되는 것은?
2. 신문이나 방송에서 북한소식을 접하면 어떤 느낌?
3. 북한 청소년들과 남한 청소년의 사고방식은
4.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까봐 불안하다.
5.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앞으로의 군비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에 대해서 제일 먼저 연상되는 것으로는 현재 북한의 기아문제(34%), 공산주의·독재(16.8%), 김일성·김정일(16.4%) 순으로 답변하였다. 북한관련 언론을 접한 느낌은 89.4%의 청소년들이 북한 소식을 접했을 때 이질감을 느끼거나 관심이 없다고 답변했다. 남북한 청소년의 사고방식의 차이에 대해서는 79.4%의 청소년들이 남북한 청소년의 사고방식이 아주 다를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55.4%의 청소년들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까봐 불안하다고 답변했으며, 79.3%의 청소년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군의 군비증감에 대해 국내 정세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응답이 제일 많았고(41.2%), 군비를 감축하기보다는(10.2%) 증강하는 쪽으로(28.0%) 더 많은 답변이 나왔다.

현재 청소년들은 북한에 대해서 이질감을 느끼거나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불안감을 느끼는 청소년이 많았으며, 군사적 방어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절 북한 주민 및 북한청소년에 대한 태도

1. 나는 북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34)
2. 북한 주민이나 청소년들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집니까?(3)
3. 북한 주민이나 청소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6)
4. 최근 귀순자들에 대한 당신의 감정은?(7)
5. 귀순자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15)
6. 현재 북한 주민의 어려움에 대해서 남한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13)
7. 현재 북한의 식량 어려움에 대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옥수수 죽먹기, 반찬 줄이기’ 등의 운동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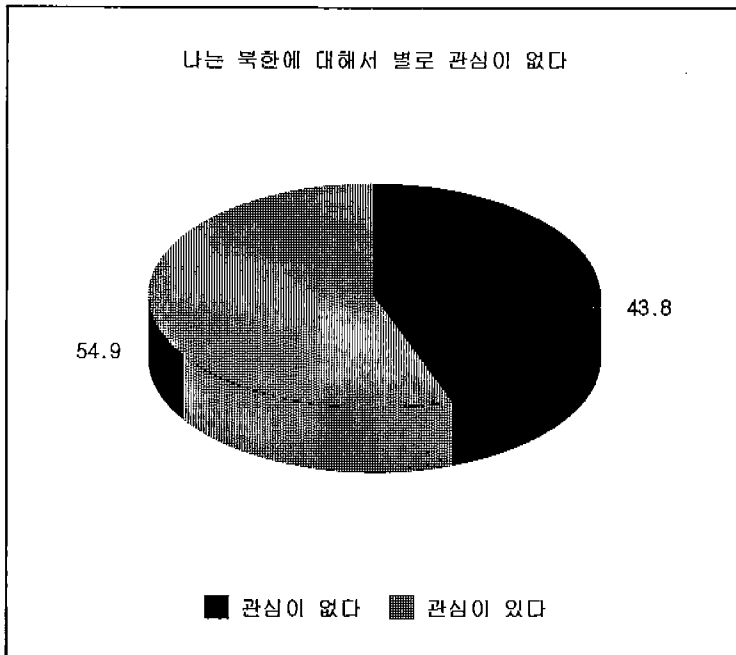
이 절은 북한주민과 북한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북한에 대한 관심을 물었고, 청소년들이 북한주민이나 청소년에 대해 어떠한 감정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북한 주민이나 청소년들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는지, 또 북한 주민이나 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었다.

남한청소년들의 북한귀순자들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귀순자들에 대한 감정, 귀순자들에 대해 어떤 대우를 해 주어야 하는가를 물었다. 청소년들이 지금 현재의 시사적인 문제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의 굶주림에 대한 남한의 대처방안,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남한의 고통분담 태도를 조사하였다.

1. 북한에 대한 관심

‘나는 북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문항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별로 관심이 없다고 답한 남한청소년은 43.8%라고 나타나, 북한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청소년이 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북한에 대한 관심



교급별로 살펴보면, 중·고생 모두 관심이 있다(59.0%, 52.2%)가 관심이 없다(41.0%, 47.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교급이 높아지면서 관심도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교급간에는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관심이 있다(60.0%, 50.9%)가 관심이 없다(40.0%, 49.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남자가 여자보다는 북

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간에는 통계적으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모두 관심이 있다(56.5%, 52.6%)가 관심이 없다(43.5%, 47.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북한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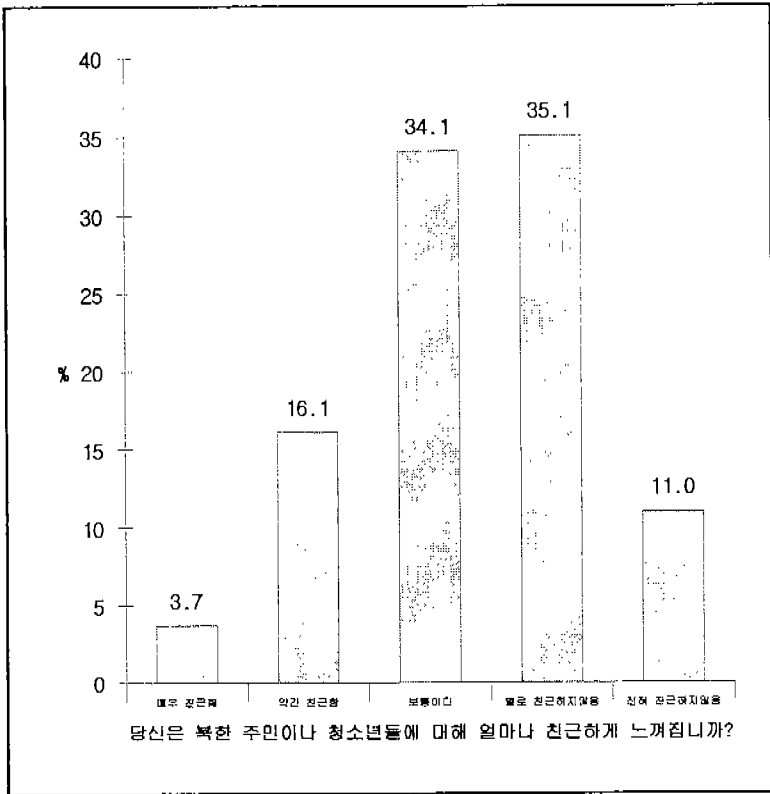
2. 북한 주민과 북한 청소년에 대한 친근감

청소년들이 북한 주민이나 청소년들에게 느끼는 친근감의 정도를 설문조사 한 결과,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35.1%), 보통이다(34.1%), 약간 친근하게 느껴진다(16.1%),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11.0%),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3.7%)의 순으로, 청소년들이 북한의 주민이나 청소년들을 친근하게 느끼기(19.8%) 보다는 거리감(46.1%)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보통이다(37.1%, 30.7%),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30.9%, 39.7%), 약간 친근하게 느껴진다(18.0%, 14.2%),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10.3%, 11.8%),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3.7%, 3.5)로 나타나,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는 북한 주민이나 청소년들에 대해 친근감을 더 느끼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였다.

남녀의 경우 보통이다(35.4%, 32.9%),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33.6%, 36.7%), 약간 친근하게 느껴진다(16.9%, 15.3%),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10.2%, 11.8%),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4.0%, 3.3%)로 남자가 여자보다는 북한주민이나 청소년들에 대해 더 친근감을 더 느끼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그림 8) 북한주민과 북한청소년에 대한 친근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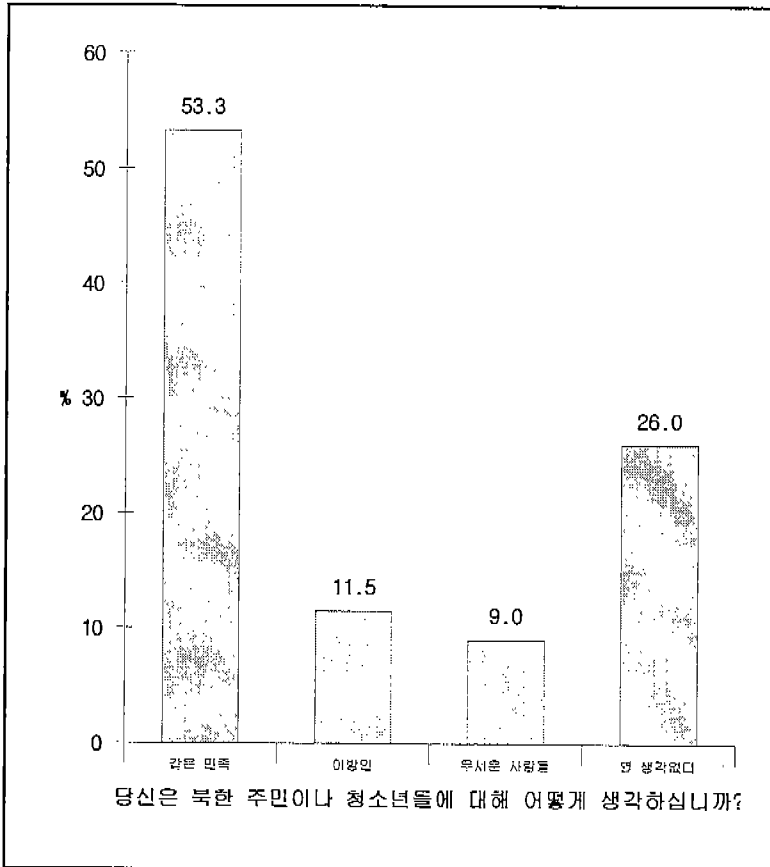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35.8%, 34.1%), 보통이다(32.1%, 39.3%), 약간 친근하게 느껴진다 (16.9%, 13.7%),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11.9%, 8.5%),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3.3%, 4.4%)로 나타났다. 거주지역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

‘북한 주민이나 청소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

항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같은 민족(53.3%), 별 생각없다(26.0%), 이방인(11.5%), 무서운 사람들(9.0%)의 순으로 나타나, 북한 주민이나 청소년에 대해 대체적으로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이 조사는 위에서 언급한 북한주민에 대한 친근감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청소년들이 북한 주민이나 청소년을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지만 친근하게 느끼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9)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



박성희·박정선(1992)의 결과를 보면, 같은 민족(49.4%), 불쌍한 사람들(39.9%), 무서운 사람(5.5%), 관심 밖의 사람들(2.6%), 외국인(1.0%), 무응답(1.9%) 순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북한주민을 이방인이나 무서운 사람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교급별로 살펴보면, 중고등학생 모두 같은 민족(52.5%, 54.3%), 별 생각없다(25.6%, 26.8%), 이방인(11.8%, 11.2%), 무서운 사람들(10.1%, 7.6%)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북한주민에 대해서 덜 거부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같은 민족(57.4%, 49.0%), 별 생각없다(24.8%, 27.7%), 이방인(9.6%, 13.6%), 무서운 사람들(8.3%, 9.7%)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가 여자보다 북한 주민에 대해서 덜 거부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였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모두 같은 민족(52.9%, 54.5%), 별 생각없다(25.6%, 28.1%), 이방인(12.3%, 9.3%), 무서운 사람들(9.2%, 8.2%)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북한주민이나 청소년에 대해서 덜 거부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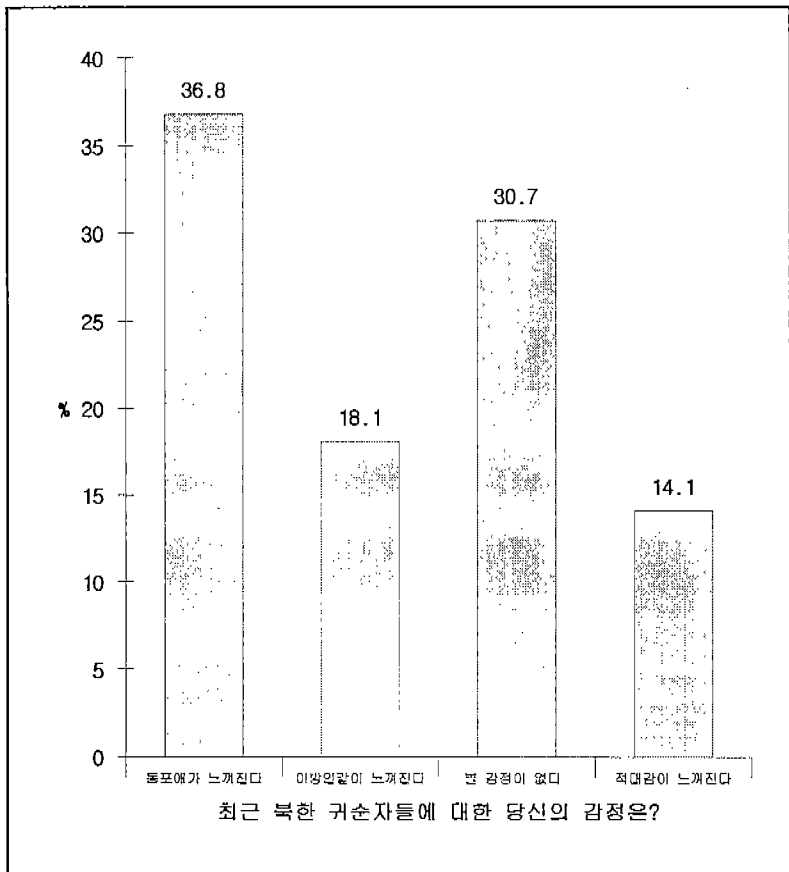
4. 최근 북한 귀순자들에 대한 감정

남한청소년들이 최근 귀순한 북한사람들에 대해 어떠한 감정을 갖고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최근 귀순자들에 대한 당신의 감정은?’의 문항을 제시하였다.

최근 북한에서 남한으로 귀순한 사람들에 대한 남한 청소년들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동포애가 느껴진다(36.8%),

웬지 이방인같이 느껴진다(18.1%), 별 감정이 없다(30.7%), 웬지 적대감이 느껴진다(14.1%)의 순으로 나타났다. 귀순자들에 대해 동포애를 느끼는 청소년과 이방인같이 또는 적대감을 느끼는 청소년, 그리고 별 감정을 느끼지 않는 청소년으로 각각 1/3씩 나누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 최근 북한귀순자들에 대한 감정



교급별로 살펴보면, 중고등학생 모두 동포애가 느껴진다(39.0%,

34.7%), 별 감정이 없다(31.5%, 30.1%), 이방인같이 느껴진다(16.7%, 19.6%), 적대감이 느껴진다(12.8%, 15.6%)의 순으로 나타나, 중고등 학생 모두 민족애를 느끼고 있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대체적으로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북한 귀순자들에게 이질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남녀의 경우 동포애가 느껴진다(38.0%, 35.8%), 별 감정이 없다(31.8%, 29.7%), 이방인같이 느껴진다(18.6%, 17.7%), 적대감이 느껴진다(11.6%, 16.7%)로 나타나 여자가 남자보다 귀순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동포애가 느껴진다(36.2%, 38.9%), 별 감정이 없다(31.7%, 28.3%), 이방인같이 느껴진다(17.8%, 15.9%), 적대감이 느껴진다(14.4%, 13.3%)로 나타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북한귀순자들에 대해서 더 친화적인 경향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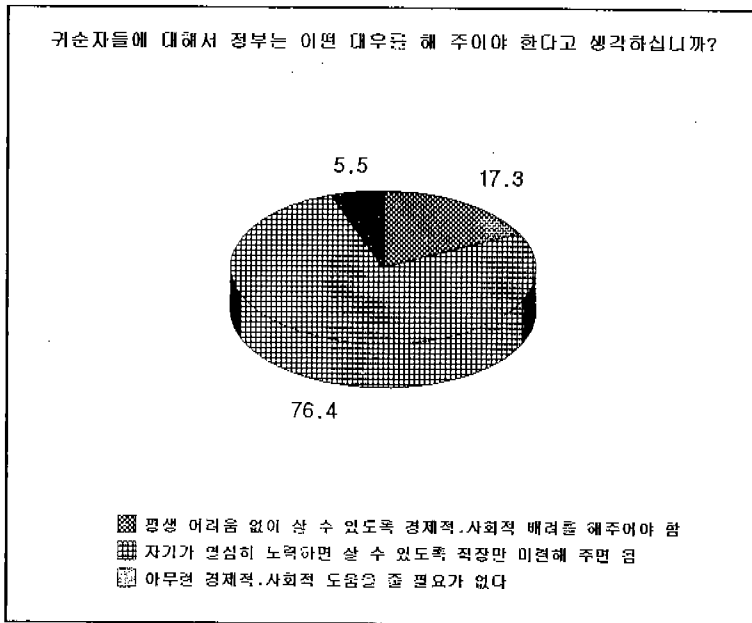
5. 귀순자 처우에 대한 태도

최근 북한에서 남한으로 귀순한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정도에 대해 남한 청소년들의 태도를 설문조사 한 결과,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살 수 있도록 직장만 마련해주면 된다(76.2%), 평생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 배려를 해 주어야 한다(17.3%), 아무런 경제적·사회적 도움을 줄 필요가 없다(5.5%)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 살펴보면, 중고등학생 모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살 수 있도록 직장만 마련해 주면 된다(72.8%, 81.3%), 평생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 배려를 해 주어야 한다(20.9%, 13.8%), 아무런 경제적·사회적 도움을 줄 필요가 없다(6.3%, 4.9%)

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급간에는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귀순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우에 대한 태도



성별로 살펴보면, 교급에서 보인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남녀 모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살 수 있도록 직장만 마련해 주면 된다(75.3%, 79.4%), 평생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 배려를 해 주어야 한다(18.5%, 15.9%), 아무런 경제적·사회적 도움을 줄 필요가 없다(6.2%, 4.7%)의 순으로 나타나 남녀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모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살 수 있도록 직장만 마련해 주면 된다(77.7%, 76.1%), 평생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

배려를 해 주어야 한다(16.4%, 19.1%), 아무런 경제적·사회적 도움을 줄 필요가 없다(5.9%, 4.8%)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다고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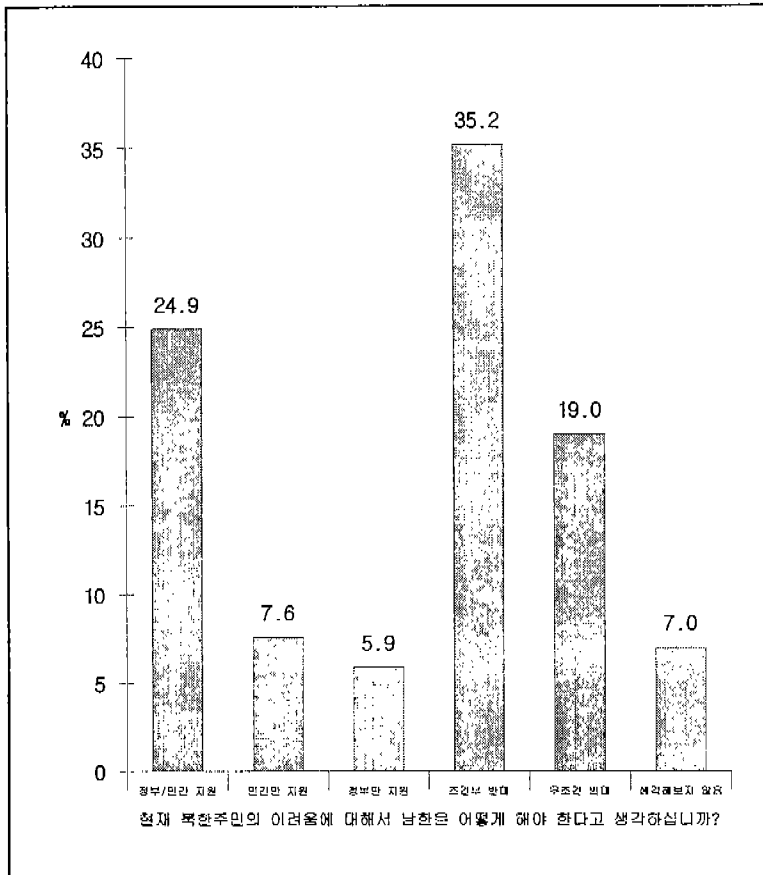
6. 현재 북한의 어려움에 대한 남한의 대처방안

현재 북한의 어려움에 대해 남한이 취하고 있는 대처방안에 대해 남한청소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현재 북한주민의 어려움에 대해서 남한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라는 문항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식량원조를 해야 한다는 청소년이 38.4%, 원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청소년이 54.2%로, 원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청소년이 더 많았다.

식량원조를 해주어보았자 군량미로 사용할 것이므로 원조를 하지 말아야 한다(35.2%), 정부 및 민간단체 모두가 적극적으로 식량원조를 하여야 한다(24.9%), 무조건 도와주면 안된다(19.0%), 민간차원에서만 식량원조를 하여야 한다(7.6%), 생각해보지 않았다(7.0%), 정부차원에서만 식량원조를 하여야 한다(5.9%)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식량원조를 해주어보았자 군량미로 사용할 것이므로 원조를 하지 말아야 한다(36.1%, 34.9%), 정부 및 민간단체 모두 적극적으로 식량원조를 하여야 한다(26.1%, 23.4%), 무조건 도와주면 안된다(17.9%, 20.2%), 생각해보지 않았다(8.6%, 5.4%), 민간차원에서만 식량원조를 하여야 한다(6.1%, 9.3%), 정부차원에서만 식량원조를 하여야 한다(5.2%, 6.8%)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식량원조에 대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간에는 통계적으로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그림 12) 현재 북한의 어려움에 대한 남한의 대처방안



남녀의 경우 식량원조를 해주어보았자 군량미로 사용할 것이므로 원조를 하지 말아야 한다(37.5%, 33.6%), 정부 및 민간단체 모두가 적극적으로 식량원조를 하여야 한다(24.4%, 25.1%), 무조건 도와주면 안된다(19.0%, 19.2%), 민간차원에서만 식량원조를 하여야 한다(8.7%, 6.4%), 생각해보지 않았다(5.9%, 8.0%), 정부차원에서만 식량원조를 하여야 한다(4.5%, 7.7%)로 여자가 남자보다 식량지원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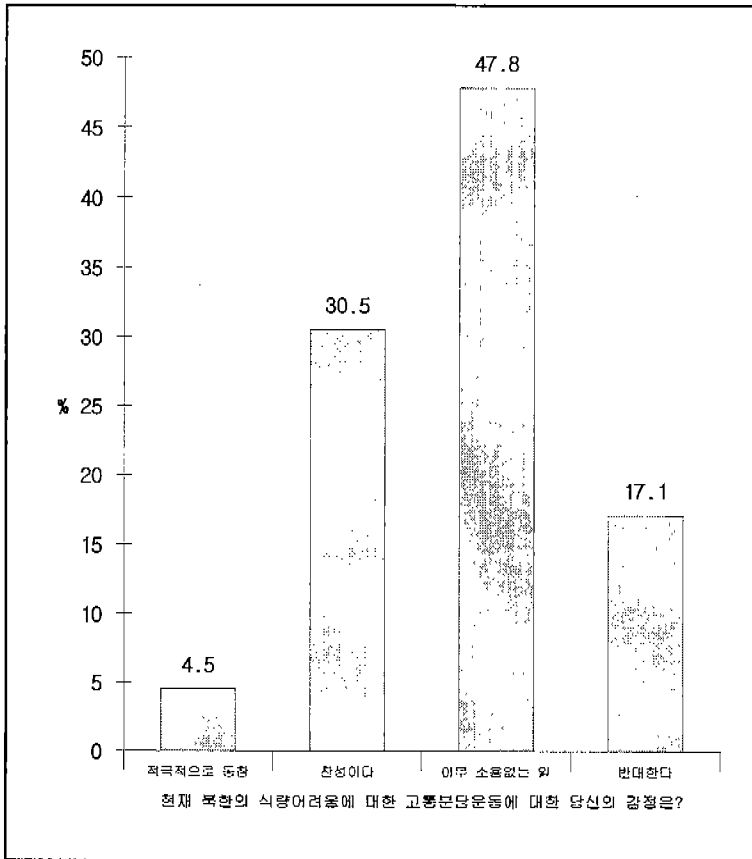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식량원조를 해주어보았자 군량미로 사용할 것이므로 원조를 하지 말아야 한다(36.5%, 32.9%), 정부 및 민간단체 모두가 적극적으로 식량원조를 하여야 한다(23.1%, 28.8%), 무조건 도와주면 안된다(20.1%, 15.8%), 민간차원에서만 식량원조를 하여야 한다(7.5%, 8.6%), 생각해보지 않았다(7.4%, 6.2%), 정부차원에서만 식량원조를 하여야 한다(5.3%, 7.9%)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식량원조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7. 현재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남한의 고통분담 운동에 대한 태도

현재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남한의 고통분담(옥수수죽 먹기, 반찬 줄이기 등)에 대해 남한 청소년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현재 북한의 식량 어려움에 대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옥수수죽 먹기, 반찬 줄이기’ 등의 운동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의 문항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47.8%), 찬성이다(30.5%), 반대한다(17.1%), 적극적으로 동참한다(4.5%)의 순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태도(35%)보다는 부정적인 태도(64.9%)가 우세함을 알 수 있다

교급별로 살펴보면, 중고등학생 모두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43.3%, 52.3%), 찬성이다(33.3%, 27.7%), 반대한다(18.5%, 16.3%), 적극적으로 동참한다(4.5%, 4.5%)의 순으로 나타나, 부정적인 태도가 강함을 알 수 있고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급간에는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그림 13) 현재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남한의 고통분담운동에 대한 태도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46.4%, 49.6%), 찬성이다(30.9%, 29.6%), 반대한다(18.2%, 16.3%), 적극적으로 동참한다(4.5%, 4.5%)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모두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48.2%, 47.1%), 찬성이다(29.2%, 33.5%), 반대한다(18.8%, 13.0%), 적극적으로 동참한다(3.8%, 6.5%)의 순으로

로 나타났으며,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북한 식량난 고통분담운동에 대해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제3절 요약

북한주민 및 북한청소년에 대한 태도

1. 나는 북한에 대한 관심
2. 북한 주민이나 청소년들에 대해 친근하게 느끼는지?
3. 북한 주민이나 청소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최근 귀순자들에 대한 당신의 감정은?
5. 귀순자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우를?
6. 현재 북한 주민의 어려움에 대해서 남한은 어떻게?
7. 현재 북한의 식량 어려움에 대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운동들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43.8%의 청소년이 북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46.1%의 청소년들이 북한 주민이나 청소년들에게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혹은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답변했으며, 19.8%의 청소년이 약간 친근하게 느껴진다 혹은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대답해 청소년들이 북한의 주민이나 청소년들에 대해 친근하게 느끼기보다는 거리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3.3%의 청소년들이 북한주민이나 청소년에 대해 같은 민족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하였으며, 20.5%의 청소년들은 이방인 혹은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답변하였으며, 26.0%의 청소년들이 별 생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귀순한 사람들에 대해 36.8%의 청소년들이 동포애가 느껴진다고 답변하였고, 32.2%의 이방인같이 또는 적대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30.7%의 청소년이 별 감정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최근 북한에서 남한으로 귀순한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대우정도에 대해서 남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설문조사한 결과,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살 수 있도록 직장만 마련해주면 된다가 76.2%로 가장 많았다.

북한의 식량문제에 대한 식량원조에 대해서는 38.4%의 청소년이 원조를 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54.2%의 청소년이 원조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현재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남한의 고통분담운동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35%)보다는 부정적인 태도(64.9%)를 더 많이 보였다.

제4절 북한관련 언론에 대한 태도

1. 금년에 들어서 북한 관련 TV를 본적이 있다(8)
2. 금년들어 주요 일간지에 실린 북한관련 신문내용을 주의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까?(38)
3. 당신은 자신이 접하고 있는 북한 관련 정보나 자료가 실제의 북한과 어느 정도 같다고 생각하십니까?(10)
4. 언론의 북한 보도자세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11)
5. 대만의 핵폐기물 북한 반입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29)

청소년들이 북한관련 언론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금년 방영된 북한관련 TV프로그램의 시청 여부, 금년 발표된 북한관련 신문기사를 읽은 여부, 북한관련 언론을 접한 느낌, 언론의 북한보도 자세, 대만의 핵폐기물 북한 반입에 대한 문제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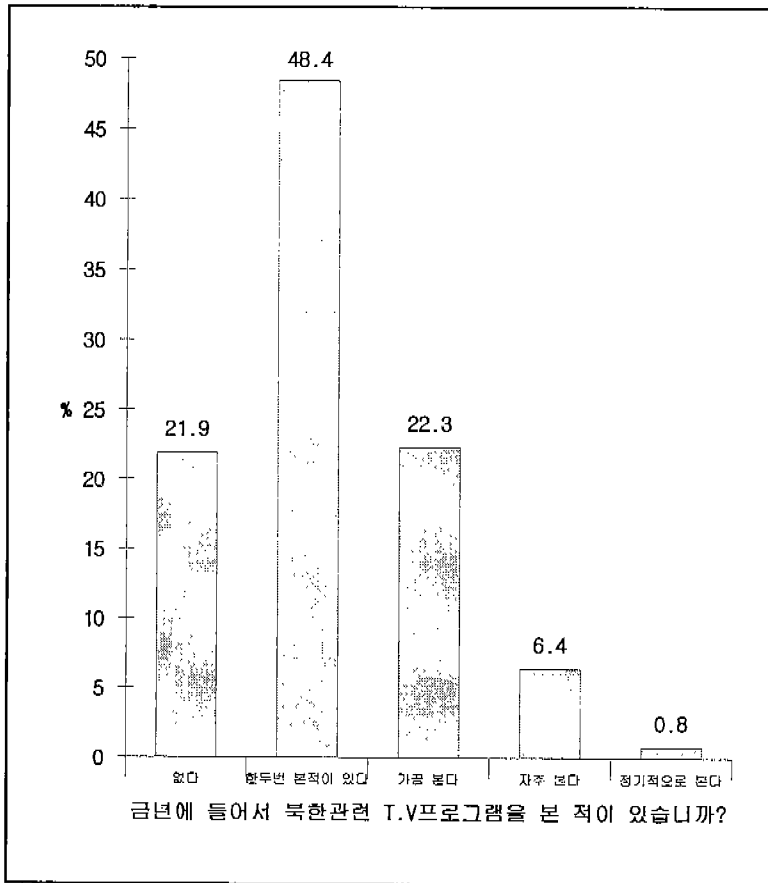
1. 금년 방영된 북한관련 TV프로그램의 시청여부

청소년들이 TV로 방영되는 북한관련 프로그램을 얼마나 시청하고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금년에 들어서 북한관련 TV프로그램(남북의 창, 통일전망대, 통일의 길 등)을 본 적이 있습니까?’의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 한두번 본적이 있다(48.4%), 가끔 본다(22.3%), 없다(21.9%), 자주 본다(6.4%), 정기적으로 본다(0.8%)의 순으로 나타나 시청률이 매우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한두번 본적이 있다(49.7%, 47.5%), 가끔 본다(21.4%, 22.8%), 없다(20.4%, 23.5%), 자주 본다(7.9%, 5.1%), 정기적으로 본다(0.7%, 1.0%)로 나타났으며, 교급간에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림 14) 금년 방영된 북한관련 TV프로그램의 시청여부



남녀의 경우 한두번 본 적이 있다(47.9%, 49.4%), 없다(21.8%, 21.8%), 가끔 본다(21.8%, 22.7%), 자주 본다(7.1%, 5.7%), 정기적으로 본다(1.3%, 0.3%)로 나타났다. 남녀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한두번 본적이 있다(47.8%, 52.2%), 없다(22.6%, 20.5%), 가끔 본다(22.6%, 20.1%), 자주 본다(6.1%, 7.5%), 정기적으로 본다(0.9%, 0.7%)로 나타났다. 거주지역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금년 주요일간지에 발표된 북한관련 기사를 읽었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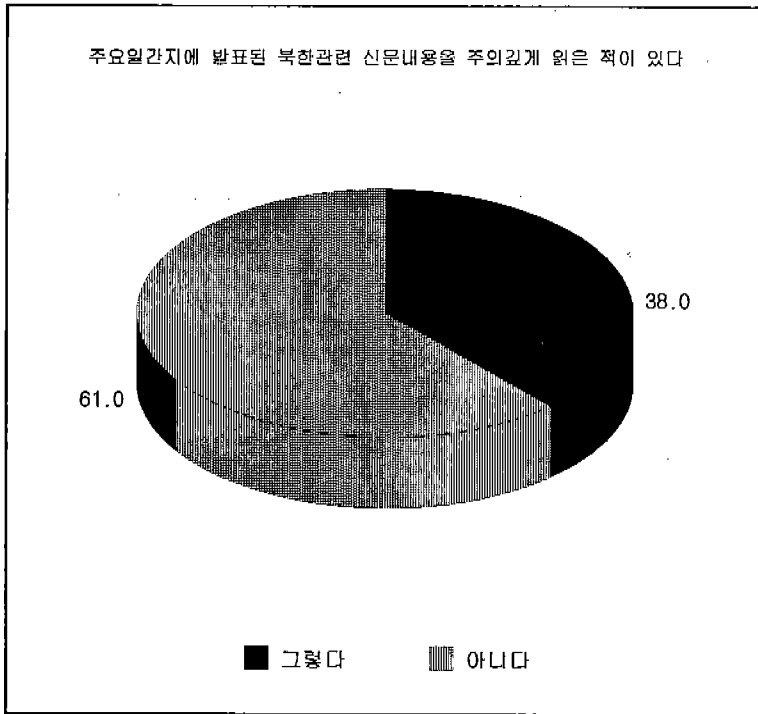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주요일간지에 발표된 북한기사를 읽어 보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금년 들어 주요 일간지에 실린 북한관련 신문내용을 주의 깊게 읽은 적이 있다’라는 문항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읽었다는 청소년이 38.0%에 비해 읽지 않았다는 청소년은 61.0%에 달해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북한관련기사를 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교급별로 살펴보면, 중고등학생 모두 읽었다는 청소년(36.2%, 40.4%)보다 읽지 않았다는 청소년(63.8%, 59.6%)이 많았으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북한관련기사를 더 많이 읽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읽었다는 청소년(38.3%, 38.4%)보다 읽지 않았다는 청소년(61.7%, 61.6%)이 많았다. 남녀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다고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모두 읽는다는 청소년(39.9%, 34.6%)보다 읽지 않는다는 청소년(60.1%, 65.4%)이 많았으며,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더 많이 읽는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그림 15) 금년 주요일간지에 발표된 북한관련기사를 읽었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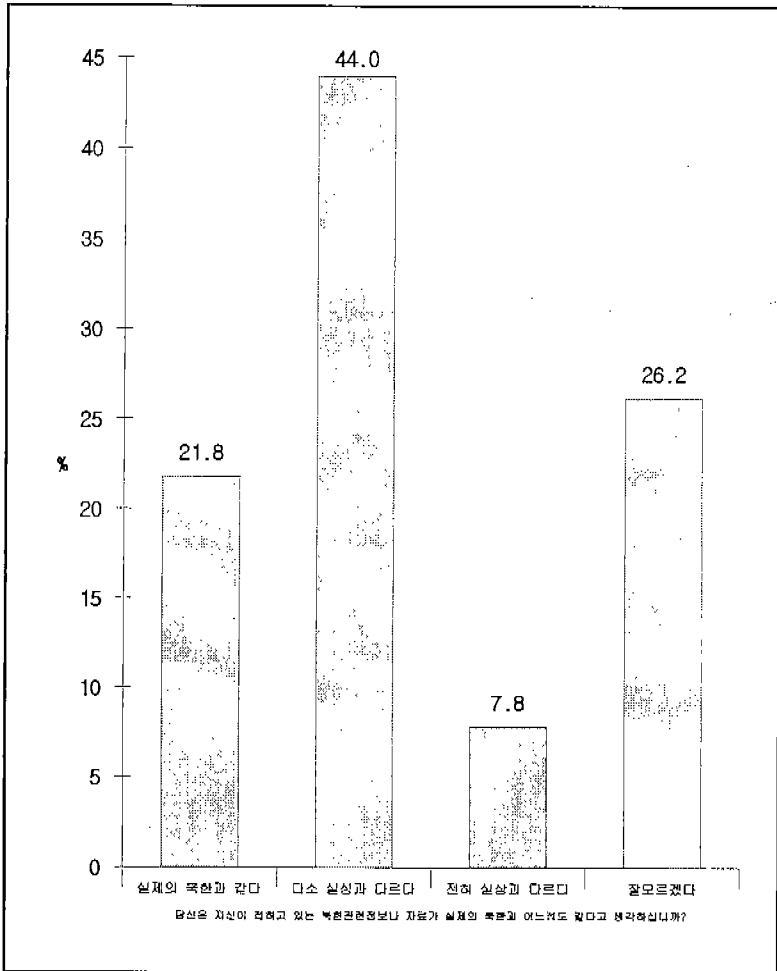
3. 북한관련 지식의 신뢰도

청소년들에게 ‘당신이 접하고 있는 북한 관련 정보나 자료가 실제의 북한과 어느 정도 같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다소 실상과 다르다(44.0%), 잘 모르겠다(26.2%), 실제의 북한과 같다(21.8%), 전혀 실상과 다르다(7.8%)의 순으로 나타났다. 51.8%의 청소년들이 실제의 북한의 모습과 자신이 접하고 있는 북한관련 정보간에는 차이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다소 실상과 다르다(36.9%, 51.4%), 잘 모르겠다(32.0%, 20.4%), 실제의 북한과 같다(23.4%, 20.4%), 전혀 실상과 다르다(7.7%, 7.8%)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북한관련 지식에

대한 신뢰성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이다.

(그림 16) 북한관련 지식의 신뢰도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다소 실상과 다르다(43.1%, 45.4%), 잘 모르겠다(27.8%, 24.3%), 실제의 북한과 같다(19.7%, 24.0%), 전

혀 실상과 다르다(9.4%, 6.3%)의 순으로 나타나, 여자가 남자보다는 북한관련 지식에 대한 신뢰성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이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다소 실상과 다르다(45.3%, 40.6%), 잘 모르겠다(26.4%, 24.6%), 실제의 북한과 같다(20.6%, 26.6%), 전혀 실상과 다르다(7.7%, 8.2%)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북한관련지식에 대한 신뢰성이 더 높은 경향이 있었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4. 언론의 북한보도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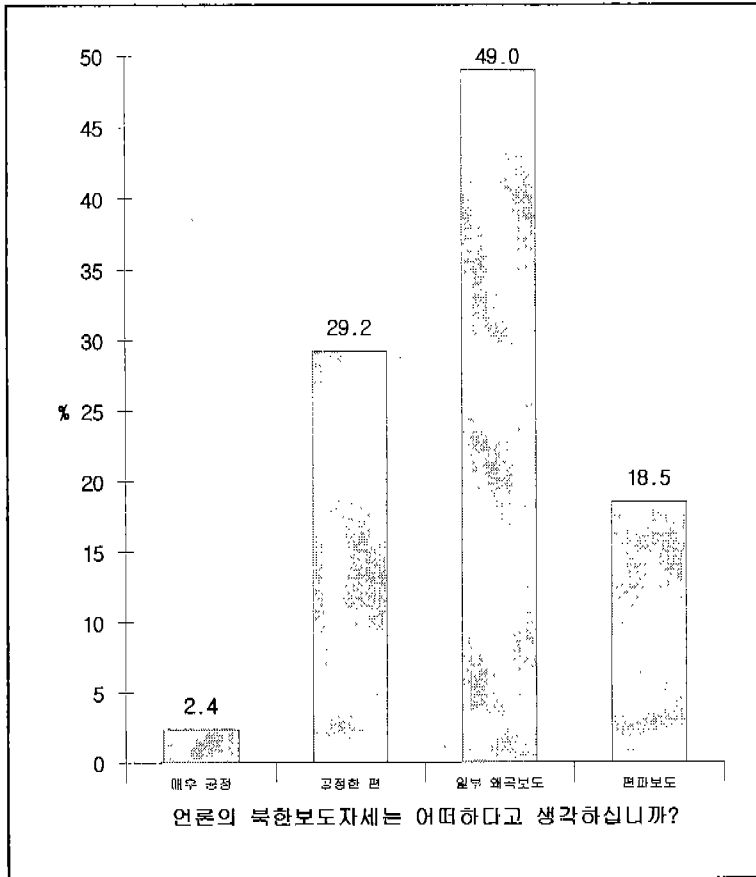
청소년들이 남한언론이 북한을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언론의 북한보도자세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일부 왜곡 보도하는 것 같다(49.0%), 공정한 편인 것 같다(29.2%), 편파보도를 하는 것 같다(18.5%), 매우 공정한 것 같다(2.4%)의 순으로 나타나 북한에 대한 보도를 공정하게 한다(31.6%)고 느끼기보다는 왜곡·편파 보도를 하는 것 같다(67.5%)고 느끼는 청소년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 살펴보면, 중고등학생 모두 일부 왜곡 보도하는 것 같다(44.9%, 54.1%), 공정한 편인 것 같다(31.3%, 27.6%), 편파보도를 하는 것 같다(20.4%, 16.8%), 매우 공정한 것 같다(3.4%, 1.5%)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급간에는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일부 왜곡 보도하는 것 같다(50.3%, 48.9%), 공정한 편인 것 같다(28.1%, 30.4%), 편파보도를 하는 것 같다(18.7%, 18.6%), 매우 공정한 것 같다(2.8%, 2.1%)의 순으로 나타

났다. 남녀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림 17) 언론의 북한보도 자세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거주하는 청소년 모두 일부 왜곡 보도하는 것 같다(50.1%, 46.7%), 공정한 편인 것 같다(29.0%, 30.9%), 편파보도를 하는 것 같다(18.6%, 19.3%), 매우 공정한 것 같다(2.3%, 3.1%)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5. 대만의 핵폐기물 북한 반입에 대한 태도

대만의 핵폐기물 북한 반입에 대한 남한청소년의 태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대만의 핵폐기물 북한 반입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실험행사를 통해서라도 막아야 한다(44.4%), 우리 국민 모두가 반대운동을 하여야 한다(31.5%), 생각해 본 일이 없다(15.4%), 북한과 대만이 알아서 할 일이다(7.9%)의 순으로 나타나, 75.9%의 청소년들이 핵폐기물의 북한반입을 적극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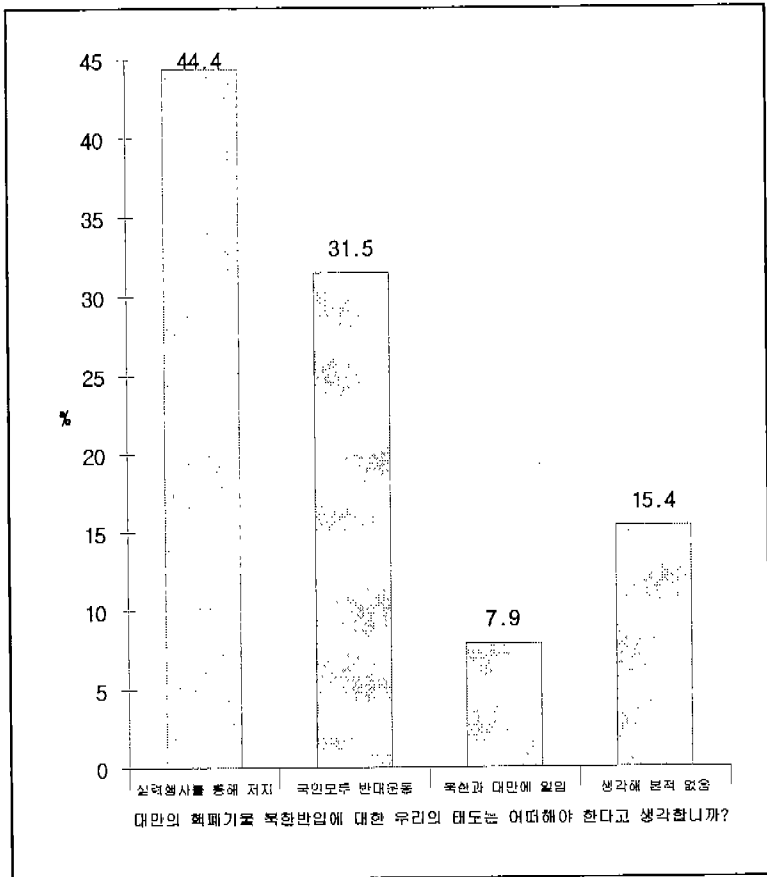
교급별로 살펴보면, 중고등학생 모두 실험행사를 통해서라도 막아야 한다(45.2%, 44.8%), 우리 국민 모두가 반대운동을 하여야 한다(28.1%, 35.4%), 생각해 본 일이 없다(17.9%, 12.8%), 북한과 대만이 알아서 할 일이다(8.8%, 7.0%)의 순으로 나타나, 핵폐기물의 북한반입에 부정적이었으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급간에는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실험행사를 통해서라도 막아야 한다(49.7%, 39.8%), 우리 국민 모두가 반대운동을 하여야 한다(30.4%, 33.3%), 생각해 본 일이 없다(11.0%, 19.9%), 북한과 대만이 알아서 할 일이다(9.0%, 7.0%)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였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모두 실험행사를 통해서라도 막아야 한다(46.5%, 39.6%), 우리 국민 모두가 반대운동을 하여야 한다(31.3%, 33.1%), 생각해 본 일이 없다(15.0%, 16.7%), 북한과 대만이 알아서 할 일이다(7.2%, 10.6%)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더 반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는 아니었다.

(그림 18) 대만의 핵폐기물 북한 반입에 대한 태도



제4절 요약

북한관련 언론에 대한 태도

1. 금년에 들어서 북한 관련 TV를 본적이 있다
2. 금년들어 주요 일간지에 실린 북한관련 신문내용을 주의 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까?
3. 당신은 자신이 접하고 있는 북한 관련 정보나 자료가 실제의 북한과 어느 정도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4. 언론의 북한 보도자세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 대만의 핵폐기물 북한 반입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70.3%의 청소년들이 금년들어 TV로 방영되는 북한관련 프로그램을 한두번 보거나 본적이 없다고 답변하여 북한 관련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1.0%의 청소년이 금년들어 북한관련 신문기사를 주의 깊게 읽은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51.8%의 청소년들이 실제의 북한의 모습과 자신이 접하고 있는 북한관련 정보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67.5%의 청소년들이 북한에 대해 왜곡·편파 보도를 하는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75.9%의 청소년들이 핵폐기물의 북한반입에 대해서 실행사를 통해서라도 막는다던가 국민 모두 반대 운동을 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제5절 남북한 청소년 교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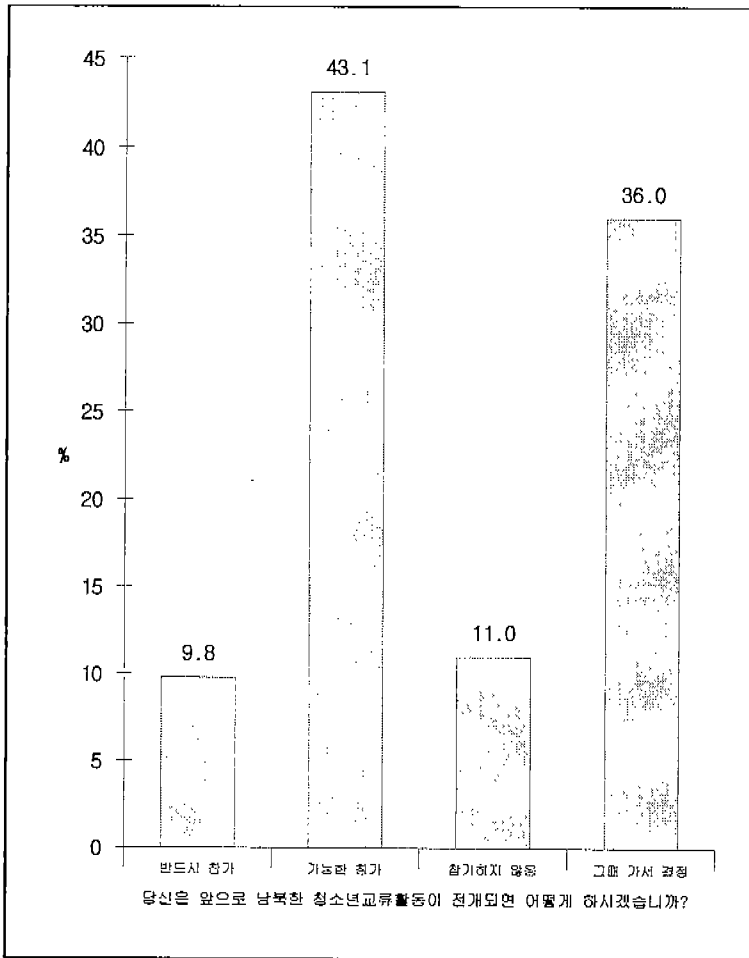
1. 교류활동 참여의사(19)
2. 참여하고 싶은 활동(20)
3. 북한을 방문하게 될 경우 가고 싶은 곳(18)
4. 북한 영화가 상영된다면(17)
5. 지금 당장 외국에서 이북 주민이나 청소년을 만난다면(5)
6. 북한청소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면(2)
7. 대학생의 허가없이 북한 방문하는 것(42)
8. 앞으로 남북한 교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16)

이 절에서는 남한 청소년의 남북한 청소년 교류관을 파악하기 위해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의 참가의사, 가장 참여하고 싶은 교류활동, 앞으로 교류에 대한 태도, 가장 참여하고 싶은 교류활동, 북한을 방문하게 될 경우 가장 가고 싶은 곳, 북한 영화의 관람 여부, 북한 주민이나 청소년을 만났을 경우 취할 행동, 북한 청소년과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에 어떤 상황이 될 것인지, 대학생이 허가없이 북한 방문하는 것에 대한 의견, 남북한 교류에 대해 남한의 청소년들이 가져야할 태도 등을 측정하였다.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청소년의 교류활동 참가의사

만약 남북한간에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청소년들이 이 활동에 얼마나 참가하고 싶은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당신은 앞으로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이 전개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문항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가능한 참가하겠다(43.1%),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36.0%), 참가하지 않겠다(11.0%), 반드시 참가하겠다(9.8%)의 순으로 나타나 교류활동 참가의사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9) 청소년의 교류활동 참가의사



중고등학생의 경우 가능한 참가하겠다(46.1%, 40.2%),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31.1%, 40.8%), 반드시 참가하겠다(11.6%, 8.1%), 참가하지 않겠다(11.1%, 10.8%)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남북한 교류활동 참가의사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교급간에는 통계적으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남녀의 경우 가능한 참가하겠다(41.7%, 44.4%), 그때 가서 결정

하겠다(36.5%, 35.4%), 참가하지 않겠다(13.6%, 8.5%), 반드시 참가 하겠다(8.3%, 11.6%)로, 여자가 남자보다 남북한 교류활동 참가에 더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였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가능한 참가하겠다(41.2%, 49.2%),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37.2%, 32.1%), 참가하지 않겠다(11.9%, 8.5%), 반드시 참가하겠다(9.7%, 10.2%)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남북한 교류활동에 더 적극적인 경향이 있었다.

2. 가장 참여하고 싶은 교류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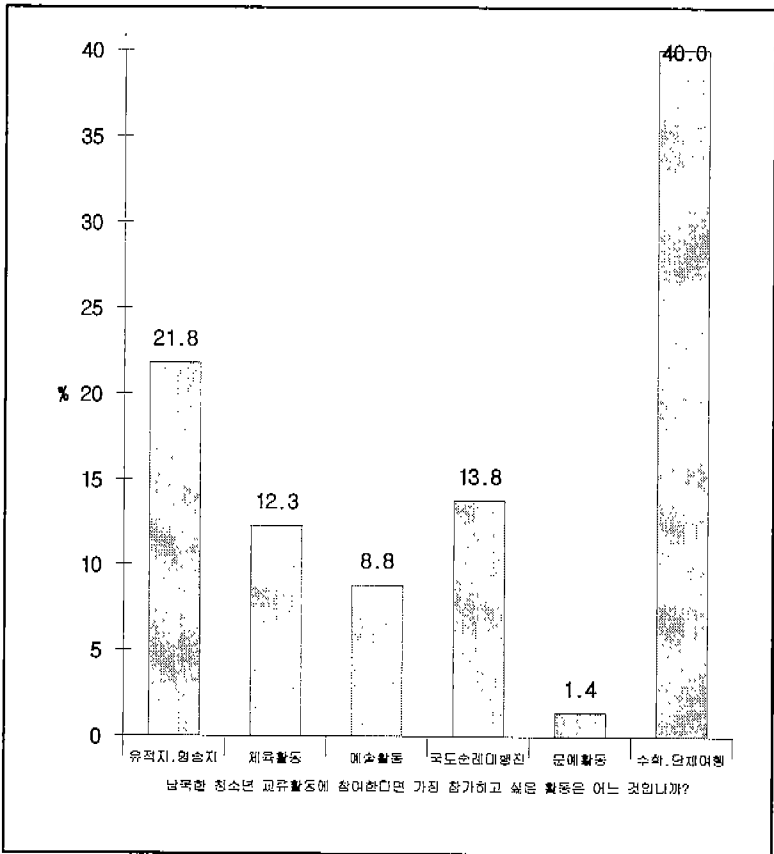
만약 남북한 교류활동에 남한 청소년이 참가할 경우 어떤 활동을 가장 하고 싶은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당신이 만약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에 참여한다면 가장 참여하고 싶은 활동은 어느 것입니까?’라는 문항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수학여행 및 단체여행(40.0%), 유적지 및 명승지 답사(21.8%), 국토순례대행진(13.8%), 체육활동(12.3%), 음악·미술 등 예능활동(8.8%), 문예활동(1.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2년 청소년연구원(박성희·박정선)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순서와 비슷하나, 체육활동(7.9%)과 예능활동(8.8%)의 순서가 바뀌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수학여행 및 단체여행(43.0%, 38.8%), 유적지 및 명승지 답사(22.3%, 22.1%), 체육활동(13.9%, 11.2%), 국토순례대행진(10.3%, 17.8%), 음악·미술 등 예능활동(8.9%, 9.0%), 문예활동(1.7%, 1.2%)으로 나타났다. 교급간에는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녀의 경우 수학여행 및 단체여행(33.1%, 48.8%), 유적지 및 명승지 답사(23.3%, 21.1%), 체육활동(21.1%, 3.4%), 국토순례대행진

(14.4%, 13.8%), 음악·미술 등 예능활동(6.7%, 11.3%), 문예활동(1.3%, 1.6%)으로, 남자의 경우 체육활동의 비율이 여자보다 아주 높으며, 여자의 경우는 수학여행 및 단체활동과 예능활동의 비율이 남자보다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남녀간에는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그림 20) 가장 참여하고 싶은 교류활동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수학여행 및 단체 활동(39.4%, 44.7%), 유적지 및 명승지 답사(22.5%, 21.7%), 국토순례

대행진(15.5%, 9.3%), 체육활동(12.6%, 12.7%), 음악·미술 등 예능활동(8.7%, 10.3%), 문예활동(1.4%, 1.7%)으로 나타났으며, 거주지역간에는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3. 북한 방문 희망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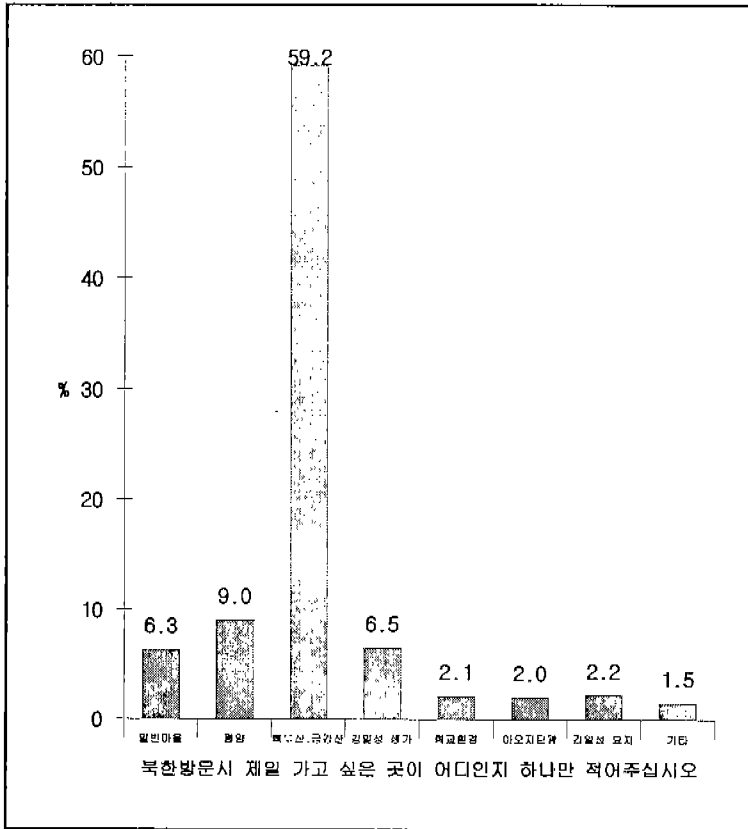
남한 청소년들에게 만약 북한을 방문하게 된다면 어디를 방문하고 싶은가를 설문 조사한 결과 총 25개의 응답이 나타났으며, 백두산·금강산(59.2%), 평양(9.0%), 김일성·김정일 집(6.5%), 일반마을(6.3%), 김일성묘지(2.2%), 학교환경(2.1%), 아오지탄광(2.0%), 기타(1.5%), 개성(0.7%), 군사기지(0.6%), 압록강·두만강(0.5%), 평양지하철, 정부기관(0.4%), 핵실험장소, 김일성대학, 개마고원, 아이들놀이동산, 함흥, 김일성동상(0.3%), 북한의 농촌, 묘향산, 선죽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992년 본원 연구(박성희, 박정선)의 결과를 보면, 백두산·금강산(51.6%), 평양(11.8%), 김일성·김정일의 생가(7.5%), 일반마을(6.9%), 일반가정집(5.3%), 교육기관(6.4%), 아오지 탄광(1.8%) 등의 순서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아주 비슷하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백두산·금강산(64.4%, 62.4%), 평양(9.2%, 10.1%), 김일성·김정일 집(7.4%, 6.7%), 일반마을(6.7%, 6.7%), 학교환경(2.5%, 2.0%) 등을 적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다고 나타났다. 남녀의 경우 백두산·금강산(66.0%, 60.0%), 평양(10.5%, 8.9%), 김일성·김정일 집(3.3%, 11.1%), 일반마을(4.5%, 9.2%), 학교환경(1.9%, 2.6%) 등을 적었다. 남녀간에는 통계적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백두산·금강산(61.4%, 69.2%), 평양(9.6%, 9.9%), 김일성·김정일 집(7.6%, 5.1%), 일반마을(6.4%, 7.3%), 학교환경(2.2%, 2.6%) 등을 적었다. 거주지역

통계적으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그림 21) 북한 방문 희망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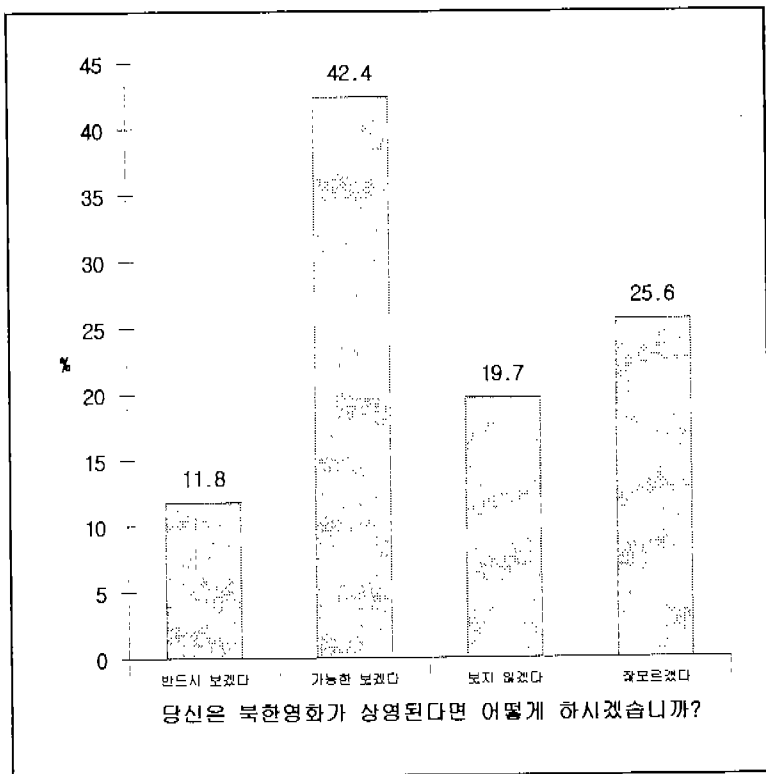


4. 북한영화 관람의사

남한에 북한영화를 상영할 경우 영화관람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능한 보겠다(42.4%), 잘 모르겠다(25.6%), 보지 않겠다(19.7%), 반드시 보겠다(11.8%)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영

화관람을 하겠다는 청소년이 54.2%로 나타나 영화관람을 하지 않겠다는 청소년보다는 높았으나, 박성희·박정선(1992)의 연구결과보다 낮게 나타나 북한영화에 대한 관심이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박성희·박정선(1992)의 결과를 살펴보면, 가능한 보겠다(52.6%),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23.1%), 반드시 보겠다(18.1%), 보지 않겠다(6.1%)로 북한영화를 관람하겠다는 청소년이 70.7%였다.

(그림 22) 북한영화 관람의사



교급별로 살펴보면, 중고생 모두 가능한 보겠다(43.5%, 39.9%), 잘 모르겠다(21.7%, 29.5%), 보지 않겠다(18.3%, 21.4%), 반드시 보

겠다(14.7%, 9.2)의 순으로 나타나 중학생(60.0%)이 고등학생(49.1%)보다 영화관람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급간에는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가능한 보겠다(41.1%, 44.3%), 잘 모르겠다(26.3%, 25.2%), 보지 않겠다(20.6%, 18.8%), 반드시 보겠다(12.0%, 11.8%)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비슷한 정도의 관람의사를 갖고 있다고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모두 가능한 보겠다(41.2%, 47.1%), 잘 모르겠다(25.1%, 6.5%), 보지 않겠다(21.5%, 14.8%), 반드시 보겠다(12.2%, 1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58.1%)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대도시(53.4%)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북한영화에 대한 관람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5. 북한주민에 대한 대면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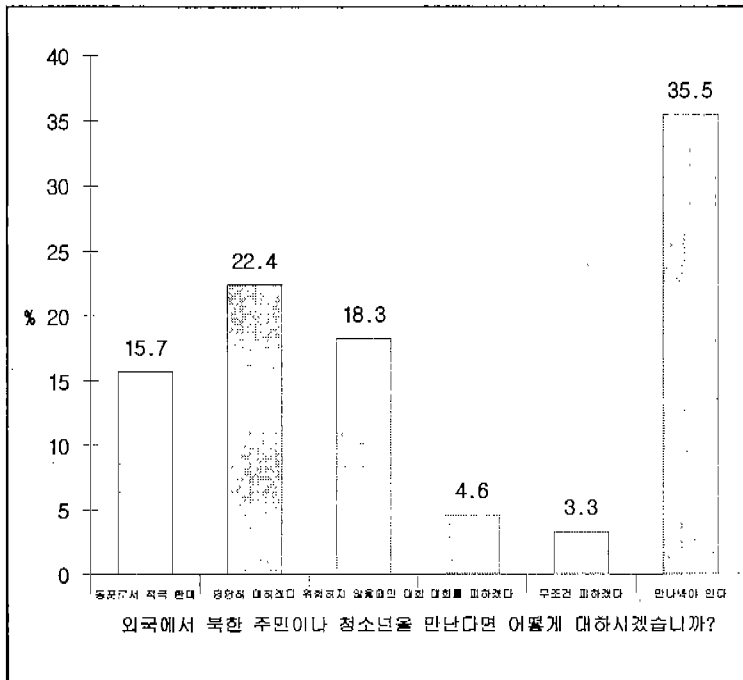
‘지금 당장 외국에서 북한 주민이나 청소년을 만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문항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만나봐야 안다(35.5%), 담담히 대하겠다(22.4%),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만 만나서 대화하겠다(18.3%), 동포로서 적극 환대하겠다(15.7%), 대화를 피하겠다(4.6%), 무조건 피하겠다(3.3%)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포로서 적극 환대하겠다는 15.7%이며, 무조건 피하겠다는 그 두 배가 넘는 35.5%로 나타나 남한청소년이 북한 주민이나 북한 청소년에 대해 심리적인 거리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성희·박정선(1992)의 결과를 보면, 동포로서 적극 환대하겠다(27.0%), 담담히 대하겠다(27%), 만나봐야 안다(26.7%),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만 대화하겠다(15.8%), 대화를 피하겠다(3.4%)로 나타났다. 현재의 연구결과보다는 북한 주민에 대해 심리적인 거리감

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5년 동안에 청소년의 북한주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더 생긴 것으로 보인다.

(그림 23) 북한주민에 대한 대면태도



교급별로 살펴보면, 중고등학생 모두 만나 봐야 한다(33.4%, 37.7%), 담담히 대화하겠다(21.8%, 23.2%),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만 만나서 대화하겠다(20.4%, 16.6%), 동포로서 적극 환대하겠다(15.5%, 15.7%), 대화를 피하겠다(4.7%, 4.4%), 무조건 피하겠다(4.2%, 2.4%)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급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만나 봐야 한다(33.4%, 38.0%), 담담히 대화하겠다(22.3%, 22.9%),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만 대화하겠

다(18.0%, 18.5%), 동포로서 적극 환대하겠다(16.7%, 14.7%), 대화를 피하겠다(5.0%, 4.2%), 무조건 피하겠다(4.6%, 1.7%)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무조건 피하겠다(35.8%, 34.1%), 대화를 피하겠다(32.1%, 39.3%), 담담히 대하겠다(16.9%, 13.7%), 만나봐야 안다(11.9%, 8.5%), 동포로서 적극 환대하겠다(3.3%, 4.4%)로 나타났다. 거주지역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6. 북한 청소년과 이야기를 나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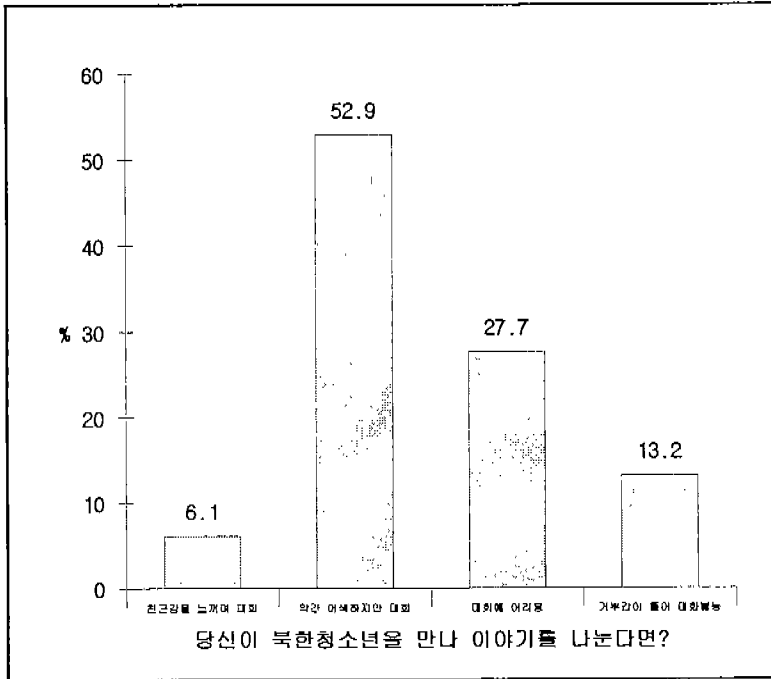
‘당신이 북한 청소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면?’라는 문항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약간 어색하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52.9%),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어려울 것이다(27.7%), 거부감을 느껴 이야기를 나눌 수 없을 것 같다(13.2%), 친근감을 느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6.1%)의 순으로 나타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59.0%)고 응답한 청소년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40.9%)고 응답한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로 살펴보면, 중고등학생 모두 약간 어색하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54.0%, 52.4%),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어려울 것이다(26.1%, 28.9%), 거부감을 느껴 이야기를 나눌 수 없을 것 같다(14.3%, 12.3%), 친근감을 느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5.6%, 6.4%)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급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약간 어색하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49.1%, 57.7%),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어려울 것이다(31.7%, 22.5%), 거부감을 느껴 이야기를 나눌 수 없을 것 같다(12.9%, 13.9%), 친근감을 느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6.3%,

5.9%)의 순으로 나타나 여자가 남자보다 북한 청소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답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였다.

(그림 24) 북한 청소년과 이야기를 나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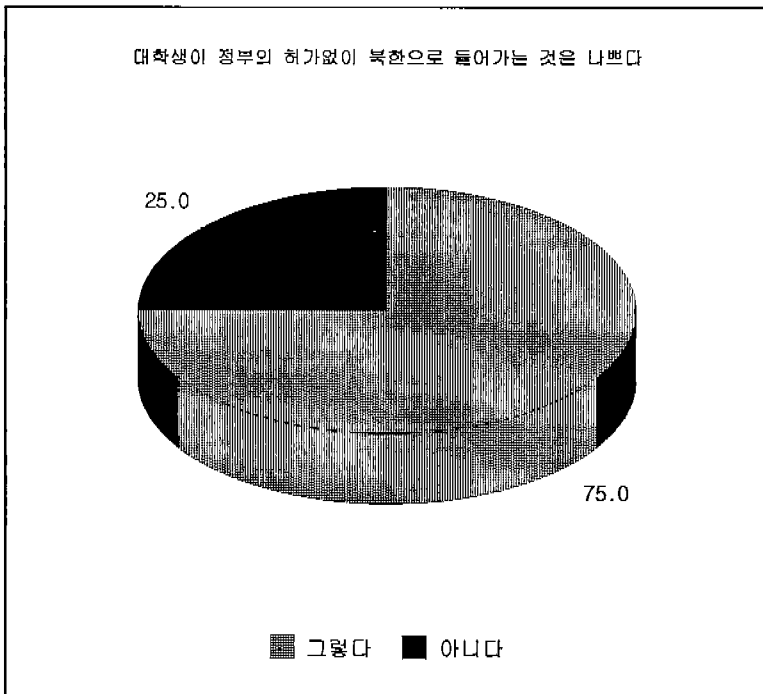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모두 약간 어색하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53.6%, 51.7%),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어려울 것이다(27.9%, 23.6%), 거부감을 느껴 이야기를 나눌 수 없을 것 같다(12.9%, 14.4%), 친근감을 느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5.6%, 7.2%)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7. 대학생들의 정부 무허가 방북에 대한 평가

대학생이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청소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대학생이 정부의 허가없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쁘다’라는 문항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5.0%의 청소년이 나쁘다고, 24.0%의 청소년은 나쁘지 않다고 응답하여,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대학생들의 정부 무허가 방북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5) 대학생들의 정부 무허가 방북에 대한 태도



교급별로 살펴보면, 중고등학생 모두 정부의 허락없이 방북하는 것이 나쁘다(76.9%, 74.4%)고 응답한 청소년이 나쁘지 않다고 응답

한 청소년(23.1%, 25.6%)보다 더 많았다. 교급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정부의 허락없이 방북하는 것이 나쁘다(77.5%, 73.6%)고 응답한 청소년이 나쁘지 않다고 응답한 청소년(22.5%, 26.4%)보다 더 많았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모두 부정적인 태도가 강하였으며,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79.0%)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65.6%)보다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거주지역간에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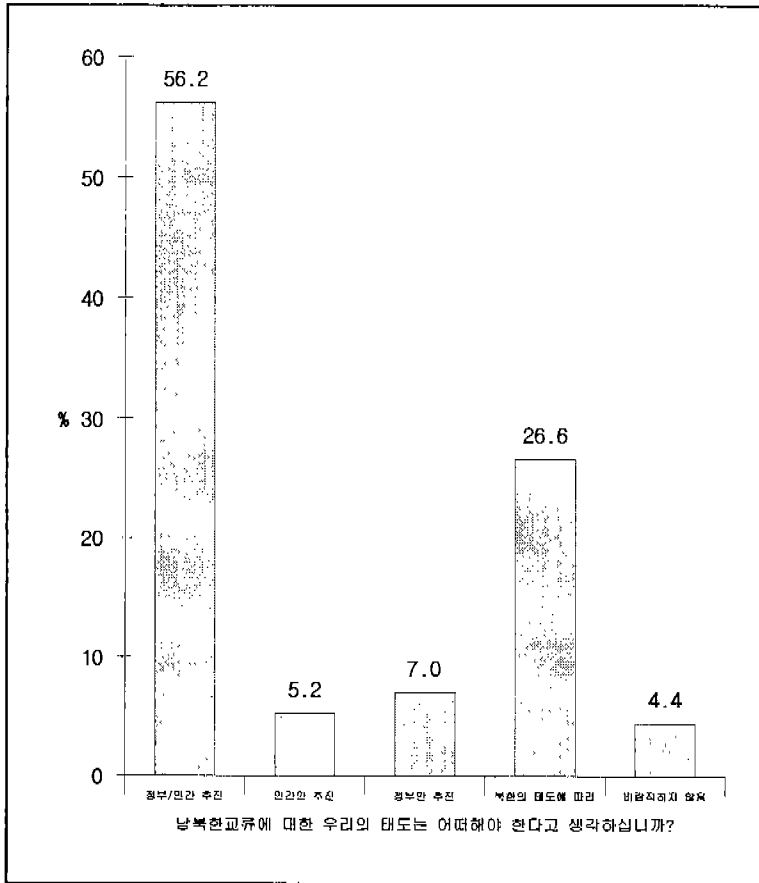
8. 남북한 교류에 대한 태도

‘앞으로 남북한 교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모두 활발하게 추진하여야 한다(56.2%),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올 때만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26.6%), 정부 차원에서만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7.0%), 민간 차원에서만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5.2%), 남북한이 교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4.4%)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95%의 청소년이 북한과의 교류에 대해서 찬성하였으나, 방법상의 문제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모두 활발하게 추진하여야 한다(55.2%, 57.8%),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올 때만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25.7%, 27.9%), 정부차원에서만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7.6%, 6.5%), 남북한이 교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6.3%, 2.6%), 민간차원에서만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5.2%, 5.3%)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남북한 교류를 더 지지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였다.

(그림 26) 남북한 교류에 대한 태도



남녀의 경우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모두 활발하게 추진하여야 한다(57.2%, 55.8%),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올 때만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26.5%, 27.0%), 민간차원에서만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6.2%, 4.3%), 정부차원에서만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6.2%, 8.0%), 남북한이 교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4.0%, 4.9%)로, 남자가 여

자보다 교류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모두 활발하게 추진하여야 한다(56.6%, 55.0%),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올 때만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27.7%, 24.7%), 정부차원에서만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6.7%, 8.3%), 남북한이 교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4.9%, 3.1%), 민간차원에서만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4.1%, 8.9%)로 나타났다. 거주지역간에는 통계적으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절 요약

남북한 청소년 교류관

1. 교류활동 참여의사
2. 참여하고 싶은 활동
3. 북한을 방문하게 될 경우 가고 싶은 곳
4. 북한 영화가 상영된다면
5. 지금 당장 외국에서 이북 주민이나 청소년을 만난다면
6. 북한청소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면
7. 대학생의 허가없이 북한 방문하는 것
8. 앞으로 남북한 교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52.9%의 청소년들이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이 전개되면 가능한 혹은 반드시 참가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가장 참여하고 싶은 교류활동으로는 수학여행 및 단체여행이 40%, 유적지 및 명승지 답사가 21.8%, 국토순례대행진 13.8%, 체육활동이 12.3%로 예능이나 문예활동보다는 여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9.2%의 청소년이 북한방문 희망처로는 백두산·금강산을 들었다. 54.2%의 청소년이 북한영화를 반드시 혹은 가능한 한 관람하겠다고 답변하였다. 59.0%의 청소년들이 북한 청소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응답했다.

75%의 청소년들이 대학생들의 정부 무허가 방북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북한과의 교류에 대해서 찬성하였으나, 방법상의 문제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었다.

제6절 통일에 대한 태도

1. 당신은 통일문제에 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24)
2. 통일에 대해서 누군가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40)
3. 당신은 통일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25)
4. 당신은 우리나라 통일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8)
5. 당신은 우리나라 통일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7)
6. 통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26)
7. 통일이라는 과업에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면 여러분은(30)
8. 통일을 위한 일이라면 나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할 것이다(41)
9. 정부의 통일정책은 국민의 여론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23)
10. 통일후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합니까?(31)
11. 통일교육은 언제부터 어느 정도의 내용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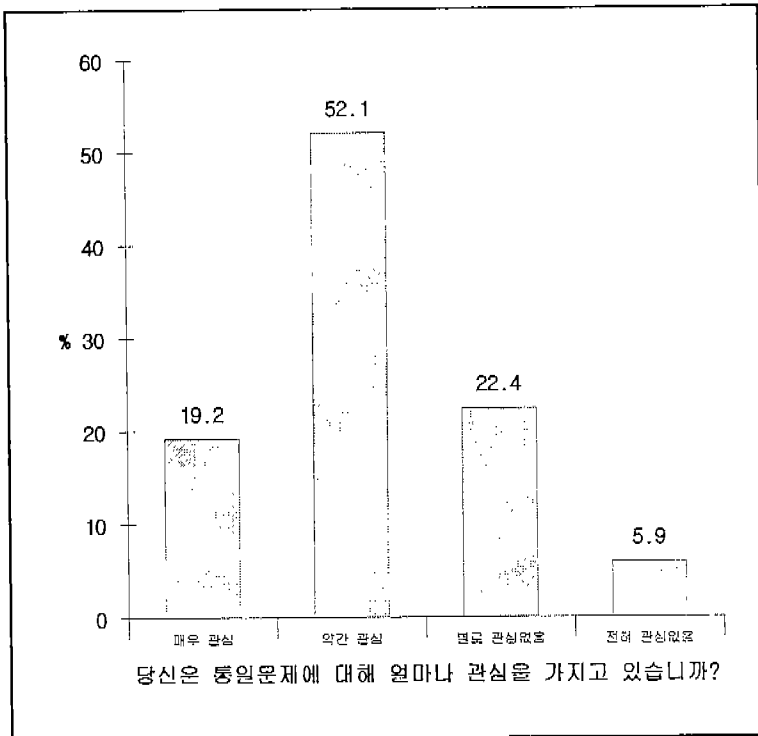
이 절에서는 남한청소년들이 남북통일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 통일에 대해서 누군가와 얘기를 나눈 경험의 유무, 통일의 이루어질 시기, 통일을 위한 희생감수 정도, 통일방법, 통일에 참여 의사, 통일에 대한 참여 열성도,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의견, 통일 후 민족공동체에 대한 생각, 통일교육에 대한 의견 등을 측정하였다.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통일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 약간 관심이 있다(52.1%), 별로 관심이 없다(22.4%), 매우 관심이 있다(19.2%), 전혀 관심이 없다(5.9%)의 순으로 나타나 71.3%의 청소년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성희·박정선(1992)의 결과를 보면, 보통이다(54.1%), 약간 관심있다(21.4%), 별로 관심없다(12.4%), 매우 관심있다(9.7%), 전혀 관심없다(2.4%)로 나타났다. 5년 동안 매우 관심있다는 답변과 전혀 관심없다는 답변 모두 증가하고, 미온적인 답변이 줄어들었다.

(그림 27)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교급별로 살펴보면, 중고생 모두 약간 관심이 있다(52.1%, 52.5%), 별로 관심이 없다(21.2%, 23.8%), 매우 관심이 있다(20.6%, 17.8%), 전혀 관심이 없다(6.1%, 5.9%)의 순으로 나타나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통일문제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남녀의 경우 약간 관심이 있다(53.9%, 50.9%), 매우 관심이 있다(22.9%, 15.1%), 별로 관심이 없다(16.3%, 29.0%), 전혀 관심이 없다(7.0%, 5.1%)로, 남자가 여자보다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였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거주하는 청소년 모두 약간 관심이 있다(51.4%, 55.0%), 별로 관심이 없다(22.8%, 21.8%), 매우 관심이 있다(18.9%, 19.8%), 전혀 관심이 없다(6.9%, 3.4%)의 순으로 나타나, 중소도시에서 거주하는 청소년이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을 알 수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2. 통일문제에 대한 대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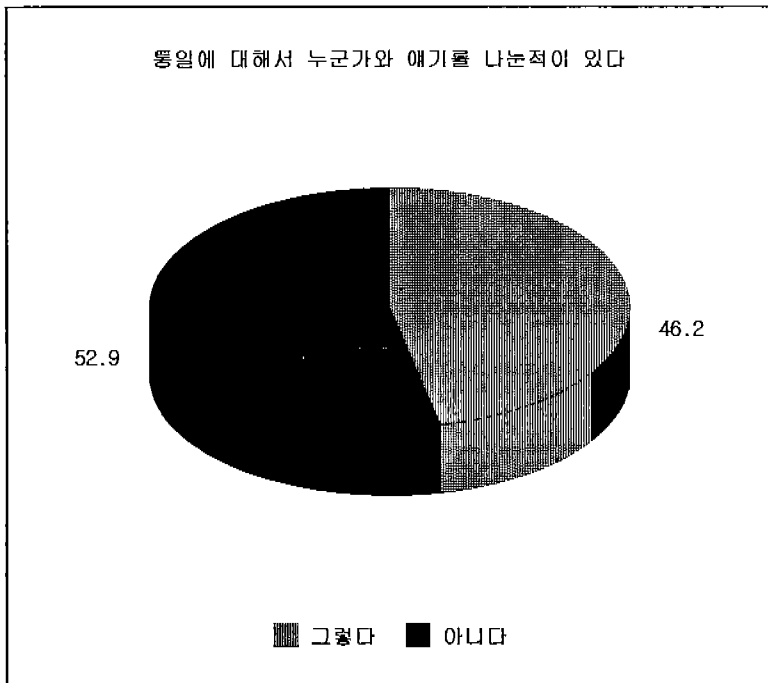
통일문제에 대한 대화정도를 알아본 결과, 52.9%의 청소년은 통일에 대한 대화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희·박정선(1992)의 결과를 보면, ‘자주 한다’가 1.2%, ‘가끔 한다’가 7.0%, ‘보통이다’가 30.3%, ‘별로 하지 않는다’가 50.9%, ‘전혀 하지 않는다’가 10.6%로 나타났다. 통일에 대한 대화는 5년 전이나 현재나 대단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48.6%의 청소년이 통일에 대한 대화를 하는 반면, 고등학생은 51.4%의 청소년이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대화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40.6%가 통일에 대한 대화를 하는 반면, 여자는 52.9%가 통일에 대한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자가 남자보다 대화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으며, 남녀간에는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그림 28) 통일문제에 대한 대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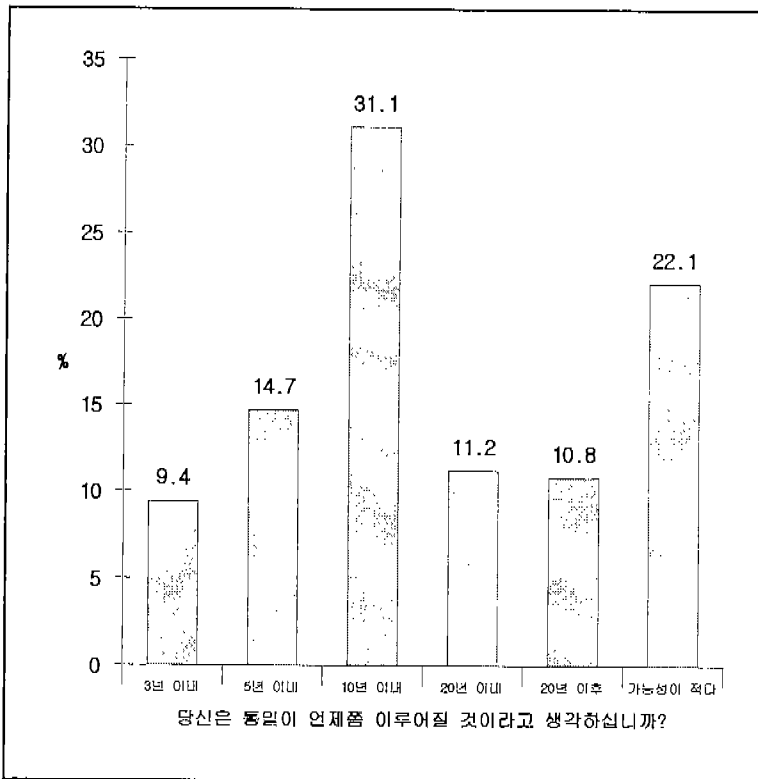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대화를 하는 경우(49.7%)보다 안하는 경우(50.3%)가 높았고,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62.3%)보다 대화를 하는 경우(37.7%)가 높게 나타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대화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으며, 거주지역 간에는 통계적으로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3. 통일 시기에 대한 견해

남한 청소년들에게 언제쯤 통일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설문조사 한 결과, 10년 이내(31.1%), 가능성이 적다(22.1%), 5년 이내(14.7%), 20년 이내(11.2%), 20년 이후(10.8%), 3년 이내(9.4%)의 순으로 나타났다. 3년 이내에, 5년 이내에 혹은 10년 이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한 청소년이 55.2%에 달해 반 수 이상의 청소년들이 통일을 요원하지 않은 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통일의 가능성이 적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22.1%나 차지하고 있다.

(그림 29) 통일 시기에 대한 견해



박성희·박정선(1992)의 연구결과를 보면, ‘빠른 시일내에 가능할 것이다’가 13.6%, ‘상당한 기간이 걸리더라도 가능할 것이다’가 58.5%, ‘가능성이 적다’가 17.7%, ‘영원히 불가능하다’가 1.9%, ‘잘 모르겠다’가 8.2%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청소년들이 5년 전보다는 더 많이 가까운 시일 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 현재 북한에서 고조되고 있는 경제 및 식량 위기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것 같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10년 이내(31.6%, 31.2%), 가능성이 적다(22.2%, 22.5%), 5년 이내(15.6%, 14.1%), 3년 이내(10.9%, 8.0%), 20년 이내(12.1%, 10.7%), 20년 이후(7.6%, 13.6%)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통일까지의 기간을 더 길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 간에는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남녀의 경우 10년 이내(32.3%, 30.5%), 가능성이 적다(19.4%, 25.5%), 5년 이내(17.9%, 11.5%), 20년 이내(10.8%, 11.9%), 3년 이내(10.3%, 8.4%), 20년 이후(9.3%, 12.2%)로 각각 응답해, 남자보다 여자가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으며 통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남녀간에는 통계적으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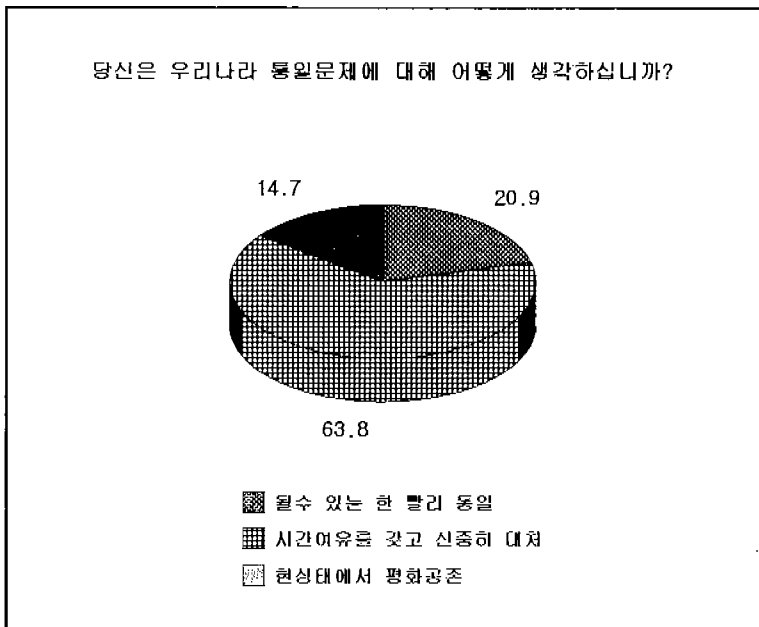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10년 이내(32.3%, 28.7%), 가능성이 적다(21.0%, 26.4%), 5년 이내(14.7%, 15.1%), 20년 이내(12.2%, 9.3%), 20년 이후(11.1%, 8.9%), 3년 이내(8.8%, 11.6%)로 각각 응답하였다. 거주지역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통일 문제에 대한 생각

‘당신은 우리나라 통일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시간여유를 갖고 신중히 대처해야 한

다(63.8%), 될 수 있는 한 빨리 통일되어야 한다(20.9%), 현 상태에서 꼭 통일을 해야할 필요가 없다(14.7%)의 순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될 수 있는 한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시간여유를 갖고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독일의 통일 후 받고 있는 경제적·사회적·정치적 갈등을 간접 경험한 영향인 것 같다. 즉, 막연히 통일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잘되겠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 후에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30) 통일 문제에 대한 생각



교급별로 살펴보면, 중고생 모두 시간여유를 갖고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59.1%, 69.0%), 될 수 있는 한 빨리 통일되어야 한다(26.9%, 15.3%), 현 상태에서 평화공존하는 것이 좋다(14.0%, 15.6%)의 순으

로 나타나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통일에 대한 의지가 높음을 알 수 있으며, 교급간에는 통계적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시간여유를 갖고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62.2%, 66.0%), 될 수 있는 한 빨리 통일되어야 한다(26.0%, 15.7%), 현 상태에서 평화공존하는 것이 좋다(11.8%, 18.3%)의 순으로 나타나 남자가 여자보다 통일에 대한 의지가 높음을 알 수 있으며, 남녀간에는 통계적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모두 시간여유를 갖고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64.5%, 62.1%), 될 수 있는 한 빨리 통일되어야 한다(19.5%, 25.9%), 현 상태에서 평화공존하는 것이 좋다(15.9%, 12.0%)로 나타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통일에 대한 의지가 높음을 알 수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5. 통일 방법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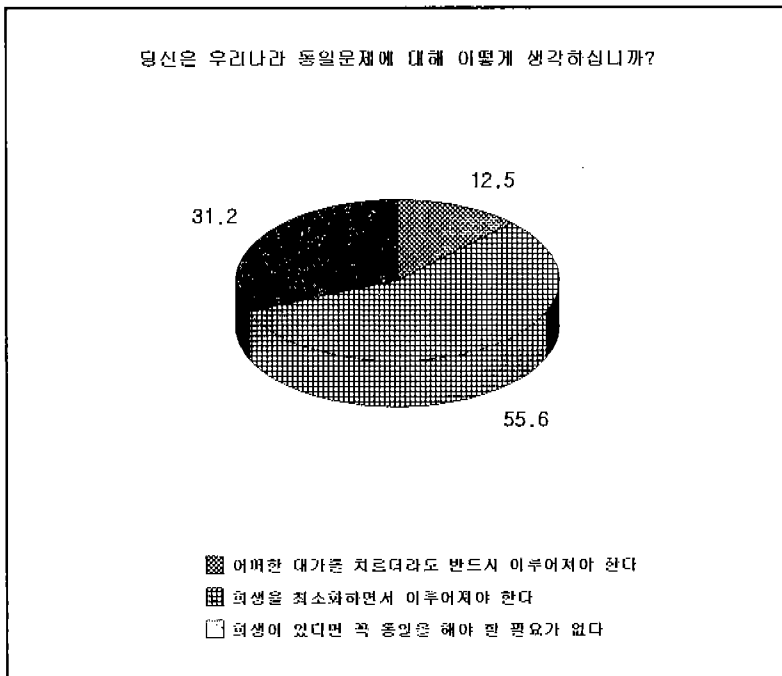
통일방법에 대한 청소년의 견해를 조사한 결과,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55.6%), 희생이 있다면 꼭 통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31.2%),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12.5%)의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희생이 있다면 반드시 통일할 필요가 없거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통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교급별로 살펴보면, 중고등학생 모두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48.9%, 62.7%), 희생이 있다면 꼭 통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34.5%, 28.6%),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16.6%, 8.7%)의 순으로 나타나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희생

을 더 최소화하면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교급간에는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60.6%, 50.8%), 희생이 있다면 꼭 통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25.7%, 37.7%),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13.6%, 11.5%)의 순으로 나타나 여자가 남자보다 희생을 더 최소화하면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남녀간에는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그림 31) 통일방법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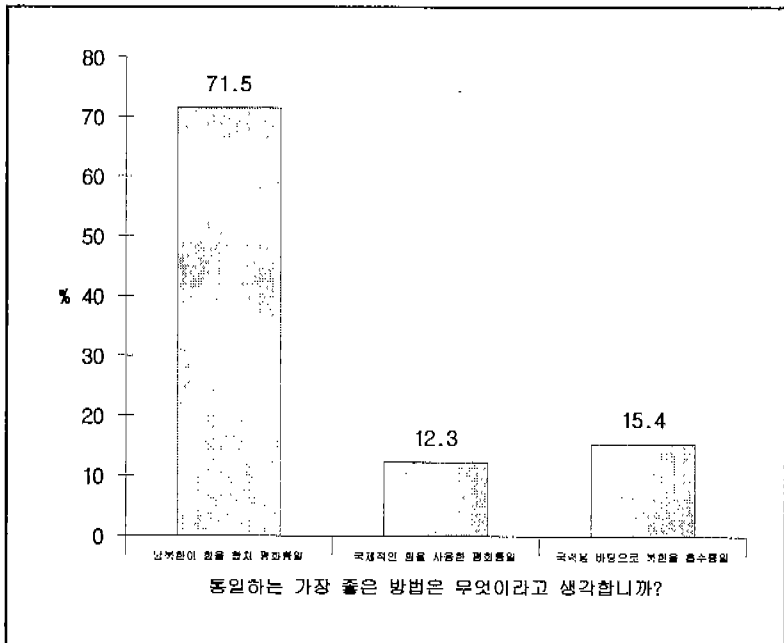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모두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55.7%, 55.3%), 희생이

있다면 꼭 통일을 해야할 필요가 없다(32.6%, 28.9%),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11.7%, 15.8%)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6. 통일의 방법2

청소년들에게 통일하는 가장 최적의 방법에 대해 설문조사 한 결과, 남북한이 힘을 합쳐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여야 한다(71.5%), 남한의 국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흡수통일하여야 한다(15.4%), 국제적인 힘을 활용하여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12.3%)의 순으로 나타나 외세의 조력을 구하지 않고 남북한이 힘을 합쳐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32) 통일방법2



중고등학생의 경우 남북한이 힘을 합쳐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여야 한다(74.1%, 70.1%), 국제적인 힘을 활용하여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14.2%, 10.6%), 남한의 국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흡수통일 하여야 한다(11.7%, 19.3%)로 각각 응답하였다. 중고등학생 모두 평화적인 통일을 원했으며, 외세의 힘을 통한 통일보다는 남북한이 주체가 된 통일을 더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급간에는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남녀 모두 남북한이 힘을 합쳐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여야 한다(68.5%, 75.9%), 남한의 국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흡수통일 하여야 한다(17.8%, 13.1%), 국제적인 힘을 활용하여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13.7%, 11.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녀간에는 통계적으로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남북한이 힘을 합쳐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여야 한다(69.7%, 78.5%), 남한의 국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흡수통일 하여야 한다(18.5%, 7.2%), 국제적인 힘을 활용하여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11.8%, 14.3%)로 각각 응답하였다. 거주지역간에는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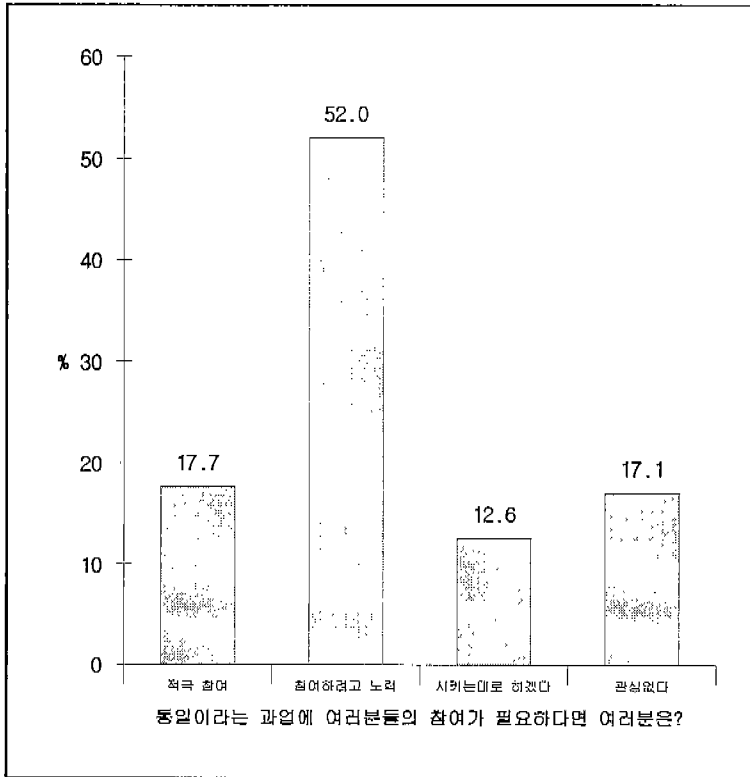
7. 통일과업에의 참여의사

남한청소년의 통일에 대한 참여의지에 대해 설문조사 한 결과, 참여하려고 노력하겠다(52.0%), 적극 참여하겠다(17.7%), 관심없다(17.1%), 시키는대로 하겠다(12.6%)의 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참여의지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교급별로 살펴보면, 중고생 모두 참여하려고 노력하겠다(52.1%, 52.3%), 적극 참여하겠다(17.8%, 18.0%), 관심없다(17.6%, 16.8%), 시키는대로 하겠다(12.5%, 12.9%)의 순으로 나타나 고등학생(70.3%)

이 중학생(69.9%)보다 통일에 대한 참여의지가 높음을 알 수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그림 33) 통일과업에의 참여의사



남녀의 경우 참여하려고 노력하겠다(51.5%, 53.0%), 적극 참여하겠다(19.6%, 16.0%), 관심없다(14.8%, 19.8%), 시키는대로 하겠다(14.1%, 11.1%)로 각각 응답하였다. 남자가 여자보다 통일에 대한 참여의지가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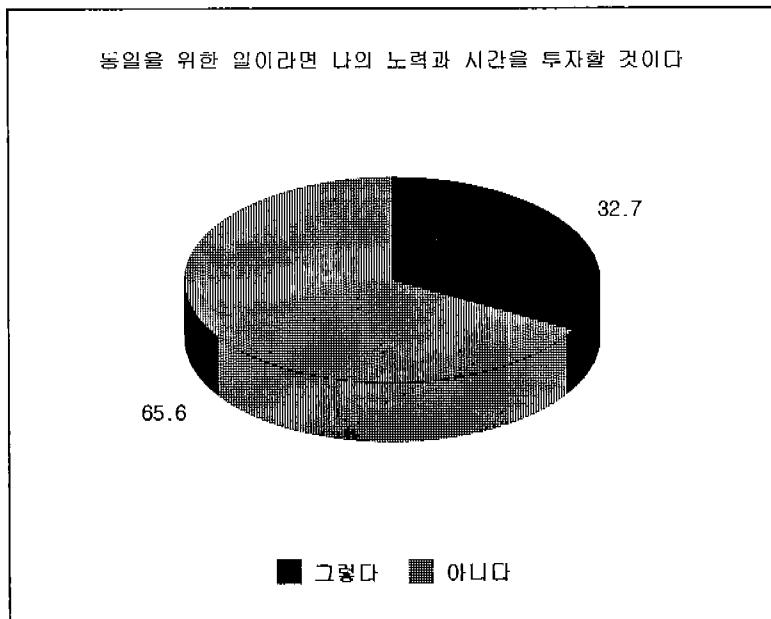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모두 참여하려고 노력하겠다(50.6%, 56.3%), 적극 참여하겠다(18.5%, 16.0%), 관심없다(17.7%, 15.7%), 시키는대로 하겠다(13.2%, 12.0%)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8. 통일을 위한 자신의 시간과 노력 투자 여부

통일을 위해 개인의 노력과 시간의 투자여부를 설문조사 한 결과,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겠다는 청소년(65.6%)이 투자하겠다는 청소년(32.7%)보다 많아 통일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겠다는 청소년들이 비교적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4) 통일을 위한 자신의 시간과 노력 투자 여부



교급별로 살펴보면, 중고등학생 모두 투자하지 않겠다는 청소년(62.5%, 71.0%)이 투자하겠다는 청소년(37.5%, 29.0%)보다 많았고,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많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겠다고 답하였다. 교급간에는 통계적으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투자하지 않겠다는 청소년(60.9%, 73.6%)이 투자하겠다는 청소년(39.1%, 26.4%)보다 많았고,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겠다고 답하였다. 남녀간에는 통계적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모두 투자하지 않겠다는 청소년(67.2%, 66.5%)이 투자하겠다는 청소년(32.8%, 33.5%)보다 많았고, 중소도시에 사는 청소년이 대도시에서 사는 청소년보다 더 많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겠다고 답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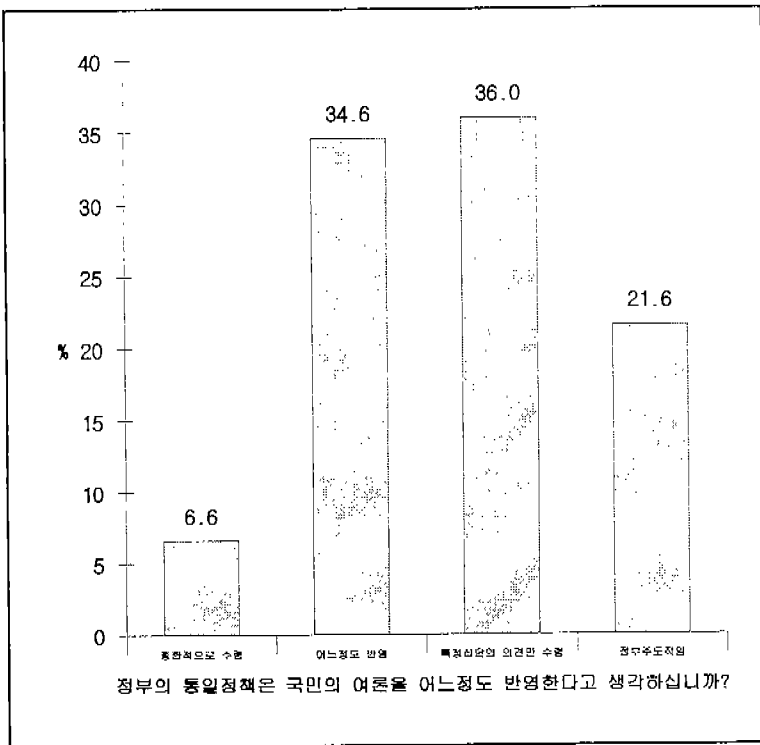
9. 국민의사의 통일정책 반영정도

정부의 통일정책에 국민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된다고 생각하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정부의 통일정책은 국민의 여론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까?’에 대해 설문조사 한 결과, 특정집단의 의견만을 수렴하고 있다(36.0%), 국민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34.6%), 정부주도적이다(21.6%), 국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있다(6.6%)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국민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41.8%, 28.6%), 특정집단의 의견만을 수렴하고 있다(32.6%, 40.0%), 정부주도적이다(16.0%, 27.6%), 국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있다(9.1%, 3.7%)로 각각 답변하였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정부의 통일정책에 국민의 의견이 더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간에는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그림 35) 국민의사의 통일정책 반영정도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특정집단의 의견만을 수렴하고 있다 (35.4%, 37.8%), 국민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33.2%, 36.3%), 정부주도적이다(22.4%, 21.5%), 국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있다(9.0%, 4.4%)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가 여자보다 정부의 통일정책에 국민의 종합적인 의견이 더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이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특정집단의 의견만을 수렴하고 있다(37.2%, 33.8%), 국민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32.3%, 43.1%), 정부주도적이다(24.6%, 13.8%), 국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있다(5.9%, 9.3%)로 각각 응답하였다.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정부의 통일정책에 국민의 의견이 더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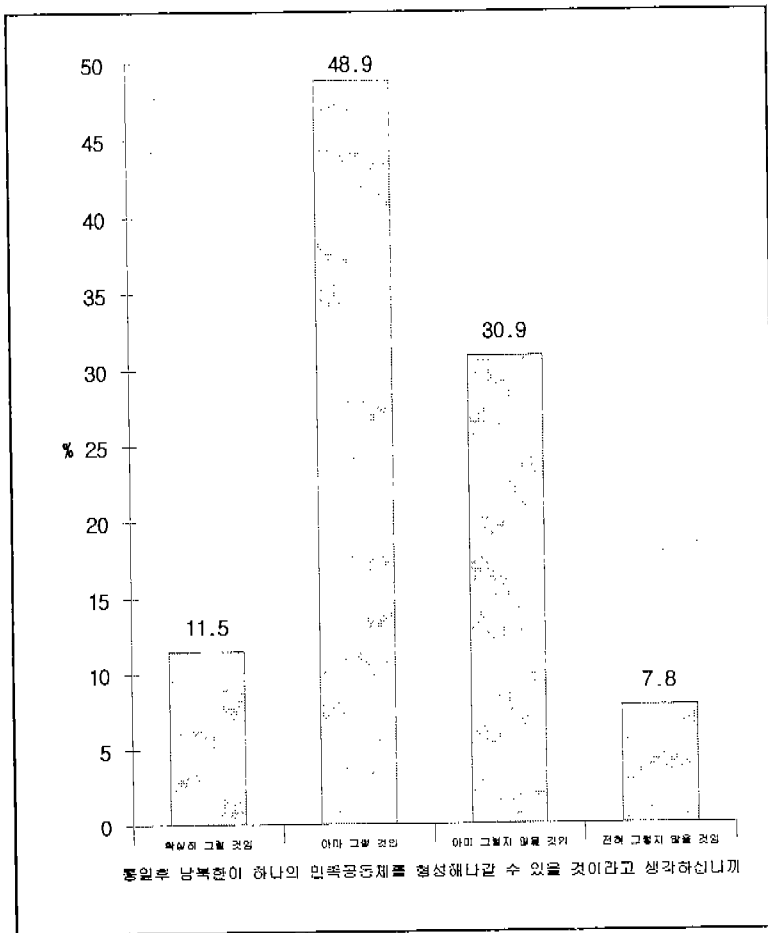
10. 통일후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공동체 형성 여부

통일후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아마 그럴 것이다(48.9%),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30.9%), 확실히 그럴 것이다(11.5%),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7.8%)의 순으로 나타나, 60.4%의 청소년이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상당히 많은 청소년들이(38.7%) 하나의 민족공동체의 형성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답변을 하였다.

교급별로 살펴보면, 중고등학생 모두 아마 그럴 것이다(50.8%, 47.4%),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28.5%, 34.1%), 확실히 그럴 것이다(11.9%, 11.4%),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8.8%, 7.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하나의 민족공동체 형성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아마 그럴 것이다(51.7%, 46.4%),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24.7%, 38.1%), 확실히 그럴 것이다(14.2%, 9.0%),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9.4%, 6.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하나의 민족공동체 형성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남녀간에는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그림 36) 통일후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공동체 형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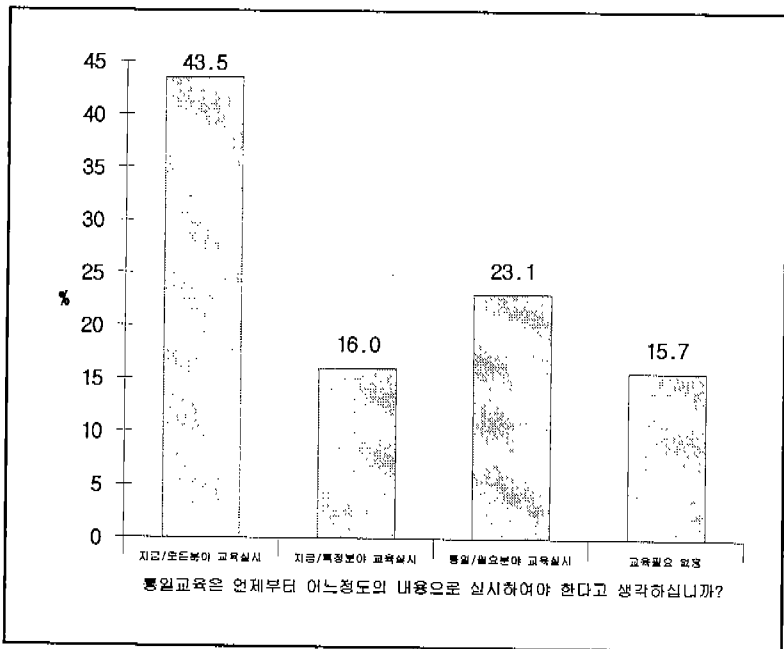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모두 아마 그럴 것이다(49.5%, 47.6%),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31.1%, 32.2%), 확실히 그럴 것이다(11.4%, 12.3%),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8.0%, 7.9%)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11. 통일교육 실시 시기 및 방법

통일교육 실시의 시기 및 방법에 대해 설문조사 한 결과, 지금부터 모든 분야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43.5%), 통일에 즈음하여 필요한 내용의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23.1%), 지금부터 특정분야만의 제한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16.0%), 따로 교육할 필요가 없다(15.7%)의 순으로 나타나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였으나 실시시기 및 실시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7) 통일교육 실시 시기 및 방법



중고등학생의 경우 지금부터 모든 분야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39.7%, 48.9%), 통일에 즈음하여 필요한 내용의 교

육이 실시되어야 한다(23.5%, 22.9%), 따로 교육할 필요가 없다(18.5%, 13.8%), 지금부터 특정분야만의 제한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18.3%, 14.4%)로 각각 응답하였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이다.

남녀의 경우 지금부터 모든 분야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46.1%, 42.6%), 통일에 즈음하여 필요한 내용의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22.1%, 24.7%), 지금부터 특정분야만의 제한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17.8%, 14.2%), 따로 교육할 필요가 없다(14.1%, 18.4%)로 각각 응답해 남자가 여자보다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지금부터 모든 분야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46.3%, 36.9%), 통일에 즈음하여 필요한 내용의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23.4%, 23.5%), 지금부터 특정분야만의 제한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15.4%, 19.7%), 따로 교육할 필요가 없다(14.9%, 20.0%)로 각각 응답하였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교육의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제6절 요약

통일에 대한 태도

1. 당신은 통일문제에 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2. 통일에 대해서 누군가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3. 당신은 통일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당신은 우리나라 통일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당신은 우리나라 통일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통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통일이라는 과업에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면 여러분은
8. 통일을 위한 일이라면 나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할 것이다
9. 정부의 통일정책은 국민의 여론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10. 통일후 남북한이 민족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11. 통일교육은 언제부터 어느 정도의 내용으로?

71.3%의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52.9%의 청소년이 통일에 대해서 누군가와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55.2%의 청소년들이 통일이 10년 이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통일문제에 대해 63.8%의 청소년들이 시간여유를 갖고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55.6%의 청소년들이 통일은 회생을 최소화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71.5%의 청소년이 통일하는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남북한이 힘을 합쳐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여야 한다고 답변했다. 69.7%의 청소년들이 통일과업에 적극 참여하거나 참여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32.7%의 청소년이 통일을 위해 개인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겠다고 답변했다. 6.6%의 청소년만이 통일정책이 국민의 여론이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60.4%의 청소년이 통일후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통일교육 실시의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59.5%의 청소년이 지금부터 모든 분야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혹은 특정분야의 제한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15.8%의 청소년이 따로 교육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

제7절 북한에 대한 지식

1. 당신은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북한에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조선소년단이란?
4. 북한의 인민학교(초등학교)과정은?
5. 꼬마계획이란?
6. 북한의 표준어는 무어라 부르나?
7. 북한의 용어와 그 뜻이 잘못 이어진 것은?
8. 북한에 지하철이 있는 지역은?
9. 북한에서는 쌀과 옷을 구입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10. 북한 공휴일이 아닌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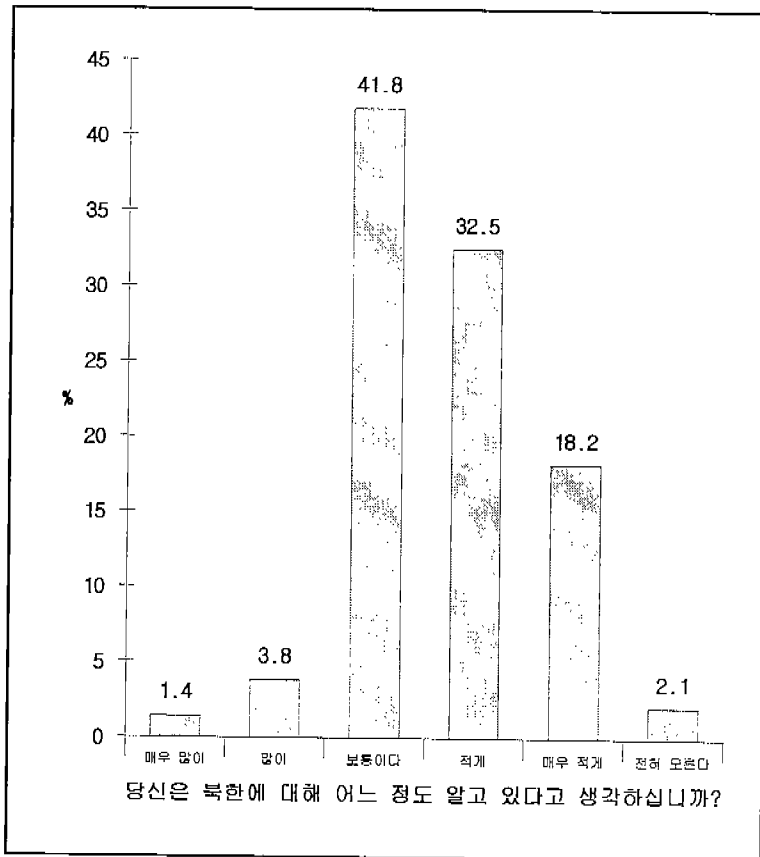
청소년이 북한에 대한 자신의 지식 평가와 북한관련 내용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당신은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북한에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2문항을 제시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북한에 대한 지식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그간 T.V 및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내용과 신문에 기사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지선다형 8문항을 선정하였다.

1. 북한에 관한 자신의 지식 평가

북한에 관한 남한 청소년들의 자기 지식 평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보통이다(41.8%), 적게 알고 있다(32.5%), 매우 적게 알고 있다(18.2%), 많이 알고 있다(3.8%), 전혀 모른다(2.1%), 매우 많이 알고 있다(1.4%)의 순으로 나타나 북한에 대한 지식이 적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8) 북한에 관한 자신의 지식 평가



중고등학생의 경우 보통이다(49.1%, 34.7%), 적게 알고 있다(28.8%, 36.0%), 매우 적게 알고 있다(14.3%, 22.2%), 많이 알고 있다(3.9%, 3.7%), 전혀 모른다(2.4%, 1.9%), 매우 많이 알고 있다(1.3%, 1.5%)로 각각 응답하였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자신의 북한에 대한 지식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이다.

남녀의 경우 보통이다(41.7%, 42.2%), 적게 알고 있다(31.2%, 33.5%), 매우 적게 알고 있다(17.4%, 19.6%), 많이 알고 있다(2.3%, 2.3%), 매우 많이 알고 있다(5.1%, 0.5%), 전혀 모른다(2.3%, 1.9%)로 각각 응답하였다. 남자가 여자보다 자신의 북한에 대한 지식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모두 보통이다(40.8%, 44.5%), 적게 알고 있다(32.1%, 33.9), 매우 적게 알고 있다(20.0%, 13.7%), 많이 알고 있다(3.8%, 5.1%), 전혀 모른다(2.0%, 2.6%), 매우 많이 알고 있다(1.2%, 1.7%)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자신의 북한에 대한 지식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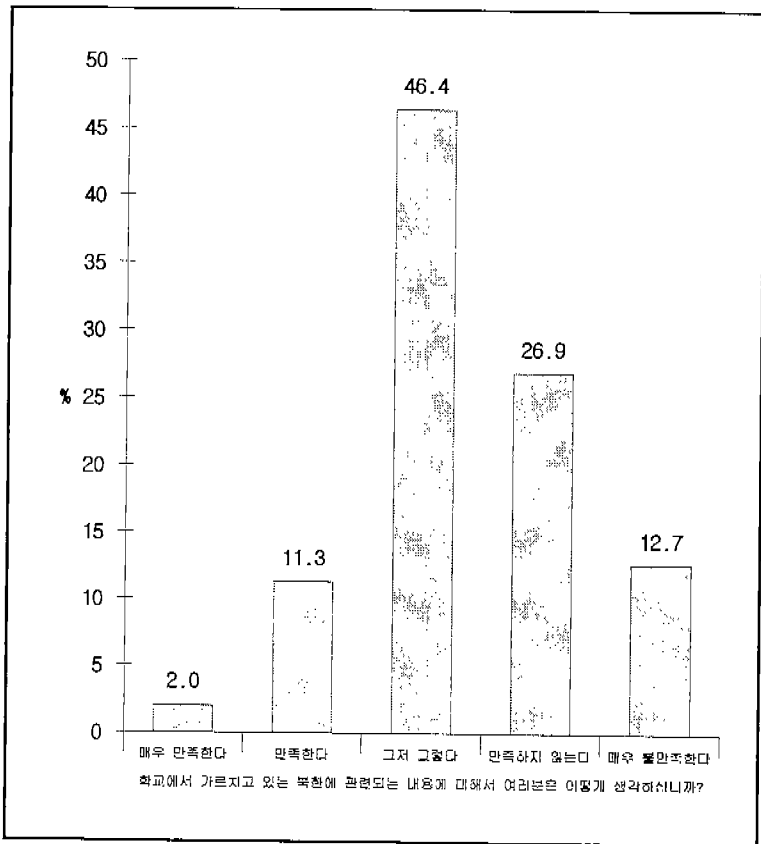
2. 학교에서 교육하는 북한관련 내용에 대한 만족도

학교에서 교육하는 통일관련 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조사 한 결과, 그저 그렇다(46.4%), 만족하지 않는다(26.9%), 매우 불만족스럽다(12.7%), 만족한다(11.3%), 매우 만족한다(2.0%)의 순으로 나타나 통일관련 교육내용에 대해 보통정도의 만족을 보였으며, 교과내용에 만족하기보다는 불만족하다는 편이 높게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그저 그렇다(44.7%, 49.0%), 만족하지 않는다

(22.5%, 31.6%), 만족한다(17.3%, 5.5%), 매우 불만족스럽다(12.9%, 12.6%)로 각각 응답하였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불만족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였다.

(그림 39) 학교에서 교육하는 북한관련 내용에 대한 만족도



남녀의 경우 그저 그렇다(43.7%, 50.5%), 만족하지 않는다(27.7%, 26.5%), 불만족스럽다(15.8%, 9.2%), 매우 불만족스럽다(15.8%, 9.2%), 만족한다(10.3%, 12.2%), 매우 만족한다(2.5%, 1.6%)로 각각 응답하였다. 남자가 여자보다 교육과정에 더 불만족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였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그저 그렇다(45.6%, 51.0%), 만족하지 않는다(29.5%, 19.2%), 매우 불만족스럽다(13.9%, 8.9%), 만족한다(9.0%, 18.8%), 매우 만족한다(2.1%, 2.1%)로 각각 응답하였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교육내용에 더 불만족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였다.

3. 북한에 대한 청소년의 지식

< 표 3 > 북한에 관한 지식 정도에 대한 빈도

번호	질 문	정 답	정답자의 분포	
			빈도	%
43	조선소년단이란?	모든 소년·소녀가 참여하는 정치조직	121	10.1
44	북한의 인민학교(국민학교)과정은?	4년	369	30.9
45	꼬마계획이란?	어린이들의 좋은 일하기 운동	448	37.5
46	북한의 표준어는 무엇라 부르나?	문화어	280	23.4
47	북한의 용어와 그 뜻이 잘못 이어진 것은?	무오다 : 무섭다	436	36.5
48	북한에 지하철이 있는 지역은?	평양	236	19.7
49	북한에서는 쌀과 옷을 구입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배급표와 돈이 있어야 한다	599	50.1
50	북한 공휴일이 아닌 것은?	3·1절	965	80.8
평균			431.8	36.1

< 표 3 >은 청소년들이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즉 북한에 대한 지식 정도를 조사한 것이다. 조사결과, 청소년들의 북한에 대한 지식정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36.1점으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본 것이 <표 4>로 8개의 문제중 정답을

다 맞춘 학생은 아무도 없었고, 3개를 맞춘 학생이 26.2%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한 개도 못 맞춘 학생이 30명이나 되었다.

< 표 4 > 개인별 정답수

개인별 정답수	0	1	2	3	4	5	6	7	8
명	30	152	309	313	252	101	34	4	0
%	2.5%	12.7%	25.9%	26.2%	21.1%	8.5%	2.8%	.3%	0%

제7절 요약 북한에 대한 지식

1. 당신은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북한에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조선소년단이란?
4. 북한의 인민학교(초등학교)과정은?
5. 꼬마계획이란?
6. 북한의 표준어는 무어라 부르나?
7. 북한의 용어와 그 뜻이 잘못 이어진 것은?
8. 북한에 지하철이 있는 지역은?
9. 북한에서는 쌀과 옷을 구입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10. 북한 공휴일이 아닌 것은?

북한에 관한 남한 청소년들의 자기 지식 평가에 대해 설문조사 한 결과, 보통이다(41.8%), 적게 알고 있다(32.5%), 매우 적게 알고 있다(18.2%), 많이 알고 있다(3.8%), 전혀 모른다(2.1%), 매우 많이 알고 있다(1.4%)의 순으로 나타나 북한에 대한 지식이 적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교육하는 북한관련 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조사 한 결과, 그저 그렇다(46.4%), 만족하지 않는다(26.9%), 매우 불만족스럽다(12.7%), 만족한다(11.3%), 매우 만족한다(2.0%)의 순으로 나타나 통일관련 교육내용에 대해 만족하기 보다는 불만족하다는 편이 높게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지식 정도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의 북한에 대한 지식정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36.1점으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8개의 문제중 정답을 다 맞춘 학생은 아무도 없었고, 3개를 맞춘 학생이 26.2%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한 개도 못 맞춘 학생이 30명(2.5%)이나 되었다.

Ⅲ. 요약 및 결론

청소년들이 남북한 관계와 통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는 작업은 통일의 대역사의 터를 닦고 국민 대화합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북한에 대한 남한 청소년의 의식구조가 어떠한가에 대해 설문조사하고 분석하고 고찰한 후 남북한 청소년의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하였다.

1. 조사결과 요약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1) 북한에 대한 인상

북한에 대해 제일 먼저 연상되는 것으로는 현재의 기아문제와 김일성·김정일·공산주의에 의한 독재라고 가장 많이 답변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89.4%)북한에 대해 이질감을 느끼거나 관심이 없으며, 남북한 청소년의 사고방식이 아주 다를 것(79.4%)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79.3%)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과반수가 넘는 청소년들이(55.4%)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북한에 대해서 이질감을 느끼거나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문제와 통일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국민과 청소년들이 통일과 남북한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질 때 민족 대화합과 통

일의 대역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2) 북한주민 및 북한청소년에 대한 태도

20.5%의 청소년들이 북한주민이나 북한청소년들을 이방인 혹은 무서운 사람이라고 답변했으며, 26%의 청소년들은 별 생각이 없다고 답변했다. 귀순한 사람들에 대해서 32.2%의 청소년들이 이방인 같이 또는 적대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30.7%의 청소년들은 별 감정이 없다고 답변했다. 북한의 식량문제에 대해서 54.2%의 청소년들이 원조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하였으며,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남한의 고통분담운동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35%)보다는 부정적인 태도(64.9%)가 더 많았다.

청소년들의 북한주민과 북한청소년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상태라면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남북지역간에 혹은 주민 및 청소년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통일후 남북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남북화합을 이룰 수 있는 기반과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북한관련 언론에 대한 태도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신문방송 등에 발표되는 북한관련 내용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또한 67.5%의 청소년들이 우리 언론이 북한에 대해 왜곡·편파보도를 하는 것 같다고 답변해 자신들이 접하고 있는 북한관련 정보들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기서도 신뢰회복이 필요한 것 같다. 청소년들이 북한관련 정보를 신뢰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청소년들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북한관련 정보를 접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남북한 문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질 것이며, 앞으로 전개될 남북한 문제 및 통일 문제에 대해 더 나은 준비를 갖추 수 있게 될 것이다.

4) 남북한 청소년 교류관

과반수가 넘는 청소년들이(52.9%) 남북청소년 교류에 참여하고 싶어하며, 주로 참여하고 싶어하는 교류 활동은 단체여행, 유적지답사, 국토순례 대행진과 같은 여행 및 답사활동으로,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은 금강산·백두산(59.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4.2%의 청소년들이 북한영화 개봉시 관람하겠다고 답변했다. 59.0%의 청소년들이 북한청소년을 만나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답변했다. 75%의 청소년들이 대학생들이 정부 허가없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많은 청소년들이 남북교류에 참여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청소년 간에 서로 이질성 및 불신을 극복하고 동질성 및 화합을 이룩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청된다.

5) 통일에 대한 태도

71.3%의 청소년들이 통일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과반수가 넘는 청소년들이(55.2%) 10년 이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69.7%의 청소년들이 통일과업에 적극 참여하거나 참여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32.7%의 청소년이 통일을 위해 개인적인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겠다고 답변했다. 통일에 접하는 하는 방식으로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중히 대처하여야 하며, 회생을 최소화하면서 이루어져야 하며,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여야 한다고 답변했다. 소수의 청소년들이(6.6%) 통일정책이 국민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통일정책이 국민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이끌어내고 수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통일과업에 참여의사가 있는 많은 청소년들의 열의와 시간을 조직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6) 북한에 대한 지식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자신이 북한에 대해서 적게 알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학교에서 교육하는 북한관련 내용에 대해서 만족도 (13.3%)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식 정도의 측정에서도 100점 만점에 평균 36.1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북한관련 교육내용의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며, 북한에 대한 지식 수준 및 이해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식 및 이해 수준의 제고가 남북한 청소년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말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2. 정책적 제언

남북한 관계는 앞으로 중요한 고비를 맞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선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들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현실적이고 정확한 상황 판단 아래 대북 관계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군사력 우위를 확보함과 동시에 북한의 오판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문제는 단 한 번의 착오로 나라가 폐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분명한 대북관을 바탕으로 한치의 실수가 없도록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을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남북한간의 신뢰를 쌓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설문결과에 나타나 있듯이, 우리 청소년들의 북한에 대한, 그리고 북한 주민 및 청소년에 대한 이질감과 불신감이 심화되어 있다. 이러한 불신감과 이질감 속에서는 통일이 되더라도 남북 지역간의 심한 갈등과 사회 혼란으로 민족 대화합의 실현이 난조를 겪을 수도 있다.

남북한 관계에 관한 문제는 민감한 문제이고 또 안보를 포함한 많은 요인들이 내포되어 있지만, 모든 관계가 그러하듯이 기본적으로 남북한간의 신뢰가 쌓여야 다른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다음은 남북한간의 신뢰를 쌓고, 대화 및 교류의 기반을 쌓기 위한 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다.

1) 우선 우리사회 안에서 신뢰가 쌓여야 한다.

원칙에 지켜지는 사회가 될 때 신뢰는 자연스럽게 쌓이게 될 것이다. 우리사회 자체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신뢰가 쌓여 있지 않을 때, 북한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2) 우리의 주체성을 확립

우리 나라의 주체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한 국가로서 문화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그러한 주체성을 바탕으로 북한 및 다른 나라와의 교류 및 관계가 안정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

3) 서로에 대한 존중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남북한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4) 상호호혜성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교류 및 관계의 기본 정신은 교류 및 관계를 통하여 서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 상호호혜성의 원칙을 지켜나간다면 북한주민이나 북한청소년의 남한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킬 수 있다.

5) 북한의 실정 및 북한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정보획득과 정보전달

북한의 실정 및 북한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정보획득과 정보전달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북한의 실정과 북한청소년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그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아야 남북관계에 있어서 경쟁과 협동을 효과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

6) 남북관계 및 통일에 관한 비전제시

이러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북 정책 및 북한청소년 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 비전을 바탕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실현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명확히 보여질 때 통일 및 남북한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 및 공감대를 증진시킬 수 있다.

7) 대북 정책 및 북한청소년정책에 있어서 우리의 분명한 자세를 확립

대북 정책 및 북한청소년정책에 있어서 우리의 분명한 자세를 확립하여야 한다. 그 동안 안보의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정책은 비밀리에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제는 북한청소년정책에 있어서도 투명성이 중요하다. 민족화합이라는 틀 안에서 선명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가 나갈 길과 해나갈 일들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8) 남북청소년교류에 있어서 경직성을 탈피하고, 융통성 있는 대처 및 교류방안 필요

교류에의 가능한 여러 가지 접근방법을 실험해 보아야 한다. 절대로 한 가지 방법에만 만족해서는 안된다. 늘 무언가 더 좋은 방법,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모색하여야 한다.

9) 쌓여진 신뢰를 바탕으로 체육경기, 상호방문 등 비정치적 청소년교류

남북 쌍방 청소년 담당자간의 교류를 위한 단계적 접촉 시도, 쌍방이 개최하는 청소년 행사에 상호 초청, 청소년 단체활동 공동참여 및 단체간 자매결연, 남북 공동주관으로 청소년 어울놀이 개최, 통일 청소년대행진, 청소년 학습 여행단 등 행사추진, 공동 탐사사업 전개, 남북 청소년 만남의 광장 설치 등 문화체육부가 추진하려는 사업들도 남북간의 신뢰가 형성되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10) 통일대비 프로그램 착수

이제부터 이질화된 북한주민들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남한에는 북한에 대한 시민교육이 전무한 실정으로, 통일을 대비한 시민교육 및 청소년교육이 시급하다. 북한의 체제불안으로 갑자기 다가올 수도 있는 통일에서 그 충격과 혼란을 극소화할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체제 붕괴후 북한청소년의 적응교육 대책의 수립이 시급하다.

참 고 문 헌

- 고영복(1977), 문화와 성격구조의 이질화, 평화통일연구소, 통일정책 3(4) pp.168-176.
- _____ (1977), 북한청소년들의 사회적 성격, 북한사회론, 북한연구소.
- _____ (1978), 북한청소년의 사회화추세, 평화통일연구소, 통일정책 4(4), pp.168-195.
- 구본태(1976), 남북접촉을 위한 이론의 정립, 국토통일원 정책기획실.
- 국토통일원(1977), 남북한의 이질화: 그 현황과 극복(1977년 10월 학술회의 기록).
- _____ (1978), 북한청소년의 사회화과정 연구, 국토통일원.
- _____ (1978), 남북교류 협력 유도 방안.
- _____ (1980), 남북한 청소년의 문제와 전망.
- _____ (1988), 남북한 비교 총서.
- _____ (1989), 남북한 사회문화현황비교.
- _____ 사회문화연구실(1983), 남북한 사회·문화현상비교.
- _____ 조사연구실(1977), 남북한 이질화 현황, 평화통일연구소, 통일정책 3(4) pp.188-200.
- 길성철(1984), 북한 주민의 생활실태 : 분단이후 생활상 철저 분석, 민족통일중앙협의회, 통일문고 11.
- 김달술(1985), 남북 대화의 발전전망과 그 한계성, 북한연구소 북한학회, 북한학보 9 pp.191-210.
- 김두명(1986), 북한청소년의 정치교육에 관한 일연구,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 김비섭(1977), 작품을 통해 본 청소년의 통일세계, 평화통일연구소, 통일정책 3(3), pp.70-79.
- 김성수(1990), 한민족 공동체 형성에 따른 법적 문제와 방안, 국토통일

- 원, 대학생 통일 논문집 pp.209-239.
- 김성일(1990), 북한의 청소년의 교육실태, 북한 221호.
- 김영숙(1984), 북한의 청소년에 대한 정치사상교육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일균(1994), 통일대비 남북청소년교류정책방향, 문체부 청소년육성위원회.
- 김중립(1990), 민족공동체의 이론구조, 국토통일원, 한민족 공동체 형성의 모색, pp.5-29.
- 김중수(1994), 북한청소년의 인간형성에 관한 연구 : 정치 사회화 과정을 중심으로,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 김충남(1980), 남북한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비교, 국토통일원, 남북한 청소년의 문제와 전망, pp.61-112.
- 김택수(1990), 민족공동체 형성과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고찰, 국토통일원, 대학생통일논문집, pp.281-309.
- 도중수·김미숙(1990), 남북한 청소년의 사회화과정 비교, 통일원, 남북한 사회문화 역량종합평가, pp.193-280.
- 도홍렬(1974.11), 북한의 젊은 세대, 북한, 북한연구소.
- 도홍렬(1977), 남북한 청소년의 의식구조 형성과정 비교,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 도홍렬(1978), 남북한 청소년의 의식구조 형성과정 비교, 북한학보 9, pp.137-165.
- 도홍렬(1978.8), 북한 해방세대의 의식구조, 북한, pp.124-133.
- 도홍렬(1983.5), 북한의 전후세대론, 북한, pp.167-175.
- 도홍렬(1985.4), 남북한 후계세대의 의식성향 비교, 서울 : 국토통일원.
- 도홍렬(1985), 세대문제로 본 남북한 관계, 북한학보 9, pp.137-165.
- 도홍렬(1991), 북한의 사회통제, 사회문제 그리고 사회변동, 민족통일연구원, 제1회 국제학술회의, 북한사회의 실상과 변화 전망.
- 마병식(1990), 남북한 체제 접근을 통한 신뢰조성방안의 모색 : 남북한

- 체제 극복을 위한 이념 정당, 국토통일원, 대학생 통일 논문집, pp.3-28.
- 박명수(1981), 남북한 민족이질화의 원인고찰, 부산대 통일문제연구소, 통일논총.
- 박명윤·이명숙 편, 제2차 국제학술대회 민족정체성과 남북한 청소년, 한국청소년연구원 연구보고 '92.
- 박문갑 외(1986), 남북한 비교론, 서울 : 문우사.
- 박산식(1990), 한민족 공동체 형성의 기반조성, 국토통일원, 한민족공동체 형성의 모색, pp5-29.
- 박성희 외(1992), 청소년의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 박성희·박정선(1992), 청소년의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 '92.
- 박용구(1981), 북한의 남북대화 방식에 관한 연구 : 북한측의 대화 전술에 관련하여, 동국대 석사학위 논문.
- 박웅희(1981.4), 남·북한 사회문화 비교, 북한 pp.110-121.
- 박재후(1987.4), 북한의 청소년범죄와 의식구조의 변화상, 북한, pp.194-197.
- _____(1989.5), 북한 청소년의 생활환경, 민족지성, pp.84-91.
- 변진홍(1982.6), 북한 청소년과 인간개조실태, 북한, pp.120-129.
- 서동익(1988.8), 북한 청소년들의 경노관, 북한, pp.135-141.
- 서성우(1990), 남북한 사회통제 역량 평가, 국토통일원, 남북한 사회문화역량종합평가 pp.3-29.
- 서창배(1990), 사회·문화교류를 통한 한민족 공동체 형성방안 모색: 대학인의 통일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국토통일원, 대학생 통일 논문집, pp.241-279.
- 손제석(1977), 민족 동질성과 이질화 문제, 평화통일연구소, 통일정책 3(4) pp.163-167.
- 송광성 외(1993), 북한 청소년 생활,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 93-04.
- 신정현(1990), 한민족 공동체의 실현방안, 국토통일원, 한민족공동체형

- 성의 모색, pp.97-124.
- 신청균(1990), 북한의 정당·사회단체 현황, 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
- 안병영(1980), 통일후계세대로서의 남북한 청소년의 제 문제와 전망, 국토통일원, 남북한 청소년의 문제와 전망, pp.246-299
- 엄종식(1988), 청소년문제, 통일한국52.
- 유두영(1983), 북한청소년의 사상교육 실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유명덕(1984), 북한청소년 성격형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학위 논문.
- 이문웅(1989), 귀순자의 증언을 통해 본 북한 체제 변화실태 연구, 국토통일원.
- 이상두(1985), 남북한 이질화 현상과 동질성 회복을 위한 대응방향, 북한연구소 북한학회, 북한학보 9, pp.167-189.
- 이영숙·박성희(1991), 북한청소년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 이온죽(1990), 남북한 사회체제 강약점 분석, 국토통일원, 남북한 사회문화역량종합평가 pp.31-132.
- 이원봉(1995), 북한청소년생활의 심층연구-북한청소년조직과 집단생활-,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95-07.
- 이우영·한점주(1977), 통일안보 문제에 대한 대학생의 의식구조, 평화통일연구소, 통일정책 3(3), pp.19-43.
- 이항구(1978.6), 북한 학생의 일과표, 북한, pp.248-255.
- 이항진(1990), 남북통일문화공동체 형성에 관한 연구 : 남북한 예술교류와 관련지어.
- 이현좌(1984), 북한 문화와 이질적 변형에 관한 연구,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자유평론사(1986), 87 남북한 비교연구.
- 장일조(1980), 남북한 청소년의 통일관 비교, 국토통일원, 남북한 청소년의 문제와 전망, pp.5-60.
- 정대규(1980), 남북교류에 관한 이론적 고찰, 평화통일연구소, 통일정책 6(2), pp.112-127.

- 조봉래(1977), 통일안보 문제에 관한 청소년 지도의 문제점, 평화통일연구소, 통일정책 3(3), pp.44-57.
- 조영빈(1973), 남북한 사회문화비교 척도 모델에 관한 연구, 국토통일원.
- 조영채(1977), 남북한 사회문화 비교 척도 모델에 관한 연구, 평화통일연구소, 통일정책3(2) pp.149-179.
- 조은(1990), 남북한 주민의 의식구조비교: 결혼 및 가족과 관련된 의식을 중심으로, 국토통일원, 남북한 사회문화역량종합평가, pp.135-191.
- 조희환(1978), 남북한 청소년의 의식구조 비교, 국토통일원.
- 진덕규(1985), 정치체제의 갈등과 통합에 관한 이념적 인식 : 한반도에 서의 통일론의 모색, 동아연구 16, pp.161-216.
- 차경수(1994), 남북한 청소년정책 비교,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 차기벽 (1977), 전통과 정치체제 : 이질화의 정치적 측면, 평화통일연구소, 통일정책 3(4) pp.155-162.
- 채중목(1973), 북한 청소년의가치관 형성과 통일에 미치는 영향, 국토통일원.
- 최성은, 북한정치사, 서울: 풀빛.
- 최운식(1990), 북한 청소년의 과외활동과 사회교육, 북한.
-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평화문제연구소 공저, 통일·북한 핸드북.
- 한국청소년학회, 남·북한 청소년의 삶과 미래, 한국청소년학회 1994년 학술 심포지움 자료.
- 홍승원(1989.5), 북한 청소년의 의식구조, 민족지성, pp.92-97.
- 황성모(1977), 이질화의 극복과 민족주의, 평화통일연구소, 통일정책 3(4), pp.177-187.
- _____(1980), 사회심리학적 시각에서 본 북한 청소년의 의식구조, 북한학보 4, pp.139-149.

< 부 록 >

1. 교차집계표
2. 설문지
3. “해광이의 일기”

부록 1. 교차집계표

< 표 5 > 북한에 대한 인식

1. 북한에 대해 제일 먼저 연상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만 적어 주십시오.

구분	학년		χ^2 (df)	성별		χ^2 (df)	거주지역			χ^2 (df)	전체 빈도(%)
	중학교 빈도(%)	고등학교 빈도(%)		남 빈도(%)	여 빈도(%)		대도시 빈도(%)	중소도시 빈도(%)	빈도(%)		
김일성·김정일	71(12.7)	124(22.6)	50.49** (24)	100(9.1)	94(17.6)	54.32*** (24)	163(19.8)	29(10.5)	118.67*** (72)		196(16.4)
가난·굶주림	146(26.2)	118(21.5)		138(24.2)	125(23.5)		192(23.3)	69(25.0)			266(22.3)
쌀	11(2.0)	6(1.1)		11(1.9)	6(1.1)		13(1.6)	4(1.5)			17(1.4)
핵미사일무기	32(5.7)	27(4.9)		46(8.1)	13(2.4)		46(5.6)	14(4.4)			59(4.9)
공산주의(독재)	100(18.0)	99(18.0)		78(13.7)	122(22.9)		131(15.9)	67(24.3)			201(16.8)
주권(아이돌)	6(1.1)	11(2.0)		7(1.2)	10(1.9)		15(1.8)	2(0.7)			17(1.4)
삼양사	0(0.0)	1(0.1)		0(0.0)	1(0.2)		1(0.1)	0(0.0)			1(0.1)
백두산·금강산	19(3.4)	14(2.6)		17(1.5)	17(3.2)		28(3.4)	6(2.2)			34(2.8)
식량문제	59(10.6)	64(11.7)		68(11.9)	52(9.8)		84(10.2)	39(14.1)			123(10.3)
축역	20(4)	1(0.2)		2(0.4)	1(0.2)		2(0.2)	1(0.4)			3(0.3)
6.25	11(2.0)	6(1.1)		9(1.6)	8(1.5)		2(1.5)	4(1.5)			17(1.4)
통일	5(0.9)	4(0.4)		6(1.1)	3(0.6)		6(0.7)	3(1.1)			9(0.8)
전쟁	22(3.9)	17(3.1)		19(3.3)	20(3.8)		26(3.2)	13(4.7)			39(3.3)
이오지탄광	0(0.0)	5(0.9)		3(0.5)	2(0.4)		3(0.4)	2(0.7)			5(0.4)
간첩	6(1.1)	2(0.4)		8(1.4)	0(0.0)		7(0.9)	1(0.4)			8(0.7)
공산당	18(3.2)	11(2.0)		14(2.5)	15(2.8)		25(3.0)	4(1.5)			30(2.5)
개별조	0(0.0)	7(1.3)	6(1.1)	1(0.2)	7(0.9)	0(0.0)	7(0.6)				
군대	10(1.8)	10(1.8)	10(0.9)	10(1.9)	14(1.7)	6(2.2)	20(1.7)				
인육	20(4)	10(2)	1(0.2)	2(0.4)	2(0.2)	1(0.4)	3(0.3)				
아산가족	10(1.8)	2(0.4)	9(1.6)	4(0.8)	5(0.5)	8(2.9)	13(1.1)				
육수수족	4(0.7)	2(0.4)	4(0.7)	2(0.4)	4(0.5)	2(0.7)	6(0.5)				
평양생면	10(2)	0(0.0)	1(0.2)	0(0.0)	0(0.0)	1(0.4)	1(0.1)				
자이바면	1(0.2)	1(0.2)	0(0.0)	2(0.4)	2(0.2)	0(0.0)	2(0.2)				
휴전선	2(0.4)	0(0.0)	1(0.2)	1(0.2)	2(0.2)	0(0.0)	3(0.3)				
기타	19(3.4)	16(2.9)	13(2.3)	22(4.1)	33(4.0)	20(7)	53(4.4)				
소계 빈도(%)	557(100)	549(100)	571(100)	533(100)	823(100)	276(100)	1114(100)				
합계 빈도(%)	1106(100)		1104(100)		1099(100)						

p<.01, *p<.001

< 표 6 > 북한소식에 대한 느낌

9.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 북한소식을 접하면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구분	학년		χ^2 (df)	성별		χ^2 (df)	거주지역		χ^2 (df)	전체 빈도(%)
	중학교 빈도(%)	고등학교 빈도(%)		남 빈도(%)	여 빈도(%)		대도시 빈도(%)	중소도시 빈도(%)		
우리와 별 다를게 없다고 느낀다	72(12.2)	48(8.1)	10.84** (2)	68(11.3)	53(9.2)	1.97 (2)	83(9.4)	38(13.0)	11.09 (6)	122(10.2)
생경한 느낌이 든다	324(54.7)	375(63.6)		345(57.2)	349(60.6)		510(57.8)	183(62.5)		703(58.8)
어렵다 할 느낌이 있다	196(33.1)	167(28.3)		190(31.5)	174(30.2)		289(32.8)	72(24.6)		366(30.6)
소계 빈도(%)	592(100)	590(100)	1182(100)	603(100)	576(100)	1179(100)	882(100)	293(100)	1175(100)	1191(100)
합계 빈도(%)	1182(100)									

**p<.01

< 표 7 > 남북한 청소년의 사고방식 차이

4. 북한 청소년들과 남한 청소년들의 사고방식은?

구분	학년		χ^2 (df)	성별		χ^2 (df)	거주지역		χ^2 (df)	전체 빈도(%)
	중학교 빈도(%)	고등학교 빈도(%)		남 빈도(%)	여 빈도(%)		대도시 빈도(%)	중소도시 빈도(%)		
똑 같은 것이다	8(1.3)	9(1.5)	26.07*** (3)	13(2.1)	4(0.7)	5.64 (3)	15(1.7)	2(0.7)	17.15* (9)	18(1.5)
약간 다를 것이다	147(24.8)	80(13.5)		111(18.3)	114(19.8)		152(17.2)	73(24.9)		228(19.1)
상당히 다를 것이다	262(44.2)	372(54.4)		292(48.3)	293(50.8)		438(49.5)	142(48.5)		590(49.4)
전혀 다를 것이다	176(29.7)	181(30.6)		189(31.2)	166(28.8)		280(31.6)	75(25.6)		358(30.0)
소계 빈도(%)	593(100)	592(100)	1185(100)	605(100)	577(100)	1182(100)	885(100)	293(100)	1178(100)	1194(100)
합계 빈도(%)										

*p<.05, ***p<.001

< 표 8 > 북한의 전쟁도발에 대한 불안감

39.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까봐 불안하다

구 분	학 년		χ^2 (df)	성 별		χ^2 (df)	거주지역		χ^2 (df)	전체 빈도(%)
	중학교 빈도(%)	고등학교 빈도(%)		남 빈도(%)	여 빈도(%)		대도시 빈도(%)	중소도시 빈도(%)		
불안하다	348(59.4)	312(53.2)	4.25* (1)	303(50.8)	354(61.9)	14.26*** (1)	486(55.7)	167(57.2)	0.52 (3)	662(55.4)
불안하지 않다	238(40.6)	274(46.8)		294(49.2)	218(38.1)		387(44.3)	125(42.8)		518(43.3)
소계 빈도(%)	586(100)	586(100)		597(100)	572(100)		873(100)	292(100)		1180(100)
합계 빈도(%)	1172(100)			1169(100)			1165(100)			

*p<.05, ***p<.001

< 표 9 >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

21.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학 년		χ^2 (df)	성 별		χ^2 (df)	거주지역		χ^2 (df)	전체 빈도(%)
	중학교 빈도(%)	고등학교 빈도(%)		남 빈도(%)	여 빈도(%)		대도시 빈도(%)	중소도시 빈도(%)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전쟁이 발생	348(58.9)	331(56.1)	25.94*** (3)	353(58.6)	324(56.3)	8.51* (3)	501(56.8)	171(62.7)	9.54 (9)	682(57.1)
국제정세에 따라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전쟁이 발생	104(17.6)	160(27.1)		116(19.3)	146(25.3)		209(23.7)	54(18.5)		265(22.2)
남한이 북한을 도와주면 전쟁을 억제 가능	63(10.7)	28(4.7)		55(9.1)	36(6.3)		61(6.9)	30(10.3)		93(7.8)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76(12.9)	71(12.0)		78(13.0)	70(12.2)		111(12.6)	37(12.7)		149(12.5)
소계 빈도(%)	591(100)	590(100)		602(100)	576(100)		882(100)	292(100)		1189(100)
합계 빈도(%)	1181(100)			1178(100)			1174(100)			

*p<.05, ***p<.001

< 표 10 > 한국군의 군비증감정책에 대한 태도

22. 앞으로의 군비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학 년		χ^2 (df)	성 별		χ^2 (df)	거주지역		χ^2 (df)	전 체 빈도(%)
	중학교 빈도(%)	고등학교 빈도(%)		남 빈도(%)	여 빈도(%)		대도시 빈도(%)	중소도시 빈도(%)		
증강되어야 한다	189(32.0)	150(25.5)	12.65** (3)	181(30.1)	156(27.1)	9.72* (3)	264(30.0)	73(24.9)	24.42** (9)	340(28.5)
현상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125(21.2)	107(18.2)		110(18.3)	120(20.9)		154(17.5)	78(26.6)		234(19.6)
북한의 인화에 따라 증감되어야 한다	229(38.7)	260(44.1)		235(39.0)	253(44.0)		372(42.3)	110(37.5)		492(41.2)
감축되어야 한다	48(8.1)	72(12.2)		76(12.6)	46(8.0)		90(10.2)	32(10.9)		122(10.2)
소계 빈도(%)	591(100)	589(100)	1180(100)	602(100)	575(100)	1177(100)	880(100)	293(100)	1173(100)	1188(100)
합계 빈도(%)										

*p<.05, **p<.01

< 표 11 > 북한에 대한 관심

34. 나는 북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구 분	학 년		χ^2 (df)	성 별		χ^2 (df)	거주지역		χ^2 (df)	전 체 빈도(%)
	중학교 빈도(%)	고등학교 빈도(%)		남 빈도(%)	여 빈도(%)		대 도시 빈도(%)	중소도시 빈도(%)		
관심이 있다	347(59.0)	305(52.2)	5.20* (1)	358(60.0)	291(50.9)	9.41** (1)	494(56.5)	153(52.6)	4.33 (1)	656(54.9)
관심이 없다	241(41.0)	279(47.8)		293(40.0)	281(49.1)		381(43.5)	138(47.4)		524(43.8)
소계 빈도(%)	588(100)	584(100)		597(100)	572(100)		875(100)	291(100)		1180(100)
합계 빈도(%)	1172(100)		1169(100)		1166(100)					

* p<.05, **p<.01

< 표 12 > 북한 주민과 북한 청소년에 대한 친근감

3. 당신은 북한 주민이나 청소년들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집니까?

구 분	학 년		χ^2 (df)	성 별		χ^2 (df)	거주지역		χ^2 (df)	전체 빈도(%)
	중학교 빈도(%)	고등학교 빈도(%)		남 빈도(%)	여 빈도(%)		대도시 빈도(%)	중소도시 빈도(%)		
매우 친근하게 느껴짐	22(3.7)	21(3.5)	13.47** (4)	24(4.0)	19(3.3)	2.85 (4)	29(3.3)	13(4.4)	19.89 (12)	44(3.7)
약간 친근하게 느껴짐	107(18.0)	84(14.2)		102(16.9)	88(15.3)		150(16.9)	40(13.7)		192(16.1)
보통이다	224(37.1)	182(30.7)		214(35.4)	190(32.9)		284(32.1)	115(39.3)		407(34.1)
전혀 친근하지 않음	183(30.9)	235(39.7)		203(33.6)	212(36.7)		317(35.8)	100(34.1)		420(35.1)
별로 친근하지 않음	61(10.3)	70(11.8)		62(10.2)	68(11.8)		105(11.9)	25(8.5)		131(11.0)
소계 빈도(%)	593(100)	592(100)	1182(100)	605(100)	577(100)		885(100)	293(100)	1178(100)	1194(100)
합계 빈도(%)	1185(100)									

**p<.01

< 표 13 >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

6. 당신은 북한 주민이나 청소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학 년		χ^2 (df)	성 별		χ^2 (df)	거주지역		χ^2 (df)	전체 빈도(%)
	중학교 빈도(%)	고등학교 빈도(%)		남 빈도(%)	여 빈도(%)		대도시 빈도(%)	중소도시 빈도(%)		
같은 민족	312(54.5)	320(54.3)	2.46 (3)	347(57.4)	282(49.0)	9.50* (3)	468(52.9)	159(54.5)	12.49 (9)	637(53.3)
아방인	70(11.8)	66(11.2)		58(9.6)	78(13.6)		109(12.3)	27(9.3)		137(11.5)
북서은 사람들	60(10.1)	45(7.6)		50(8.3)	56(9.7)		81(9.2)	24(8.2)		107(9.0)
발생가 없다	152(25.6)	158(26.8)		150(24.8)	139(27.7)		226(25.6)	82(28.1)		311(26.0)
소계 빈도(%)	594(100)	589(100)		605(100)	575(100)		884(100)	292(100)		1192(100)
합계 빈도(%)	1183(100)		1180(100)	1180(100)			1176(100)			1192(100)

*p<.05

< 표 14 > 최근 북한 귀순자들에 대한 감정

7. 최근 귀순자들에 대한 당신의 감정은?

구분	학 년		χ^2 (df)	성 별		χ^2 (df)	거주지역		χ^2 (df)	전체 빈도(%)
	중학교 빈도(%)	고등학교 빈도(%)		남 빈도(%)	여 빈도(%)		대도시 빈도(%)	중소도시 빈도(%)		
동포애가 느껴진다	231(39.0)	205(34.7)	4.64 (3)	230(38.0)	206(35.8)	6.48 (3)	320(36.2)	114(38.9)	12.69 (3)	440(36.8)
이방인같이 느껴진다	99(16.7)	116(19.6)		113(18.6)	102(17.7)		157(17.8)	57(19.5)		216(18.1)
별 감정이 없다	187(31.5)	178(30.1)		193(31.8)	171(29.7)		280(31.7)	83(28.3)		367(30.7)
적대감이 느껴진다	76(12.8)	92(15.6)		70(11.6)	96(16.7)		127(14.4)	39(13.3)		169(14.1)
소계 빈도(%)	593(100)	591(100)	1184(100)	606(100)	575(100)	884(100)	216(100)	1192(100)		
합계 빈도(%)	1184(100)			1184(100)		1177(100)				

< 표 15 > 귀순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우에 대한 태도

15. 귀순자들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학 년		χ^2 (df)	성 별		χ^2 (df)	거주지역		χ^2 (df)	전 체 빈도(%)
	중학교 빈도(%)	고등학교 빈도(%)		남 빈도(%)	여 빈도(%)		대도시 빈도(%)	중소도시 빈도(%)		
당분간 이리온 말이 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의 어려움을 해주어야 한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마련해 주면 된다 아무런 경제적으력 도움을 줄 필요가 없다	123(20.9)	81(13.8)	12.63** (2)	111(18.5)	91(15.9)	2.99 (2)	144(16.4)	56(19.1)	11.98 (2)	207(17.3)
	429(72.8)	478(81.3)		452(75.3)	456(79.4)		682(77.7)	223(76.1)		913(76.4)
	37(6.3)	29(4.9)		37(6.2)	27(4.7)		52(5.9)	14(4.8)		66(5.5)
소계 빈도(%)	589(100)	588(100)		600(100)	574(100)		878(100)	293(100)		1186(100)
합계 빈도(%)	1177(100)			1174(100)			1171(100)			

**p<.01

< 표 16 > 현재 복합의 어려움에 대한 남한의 대처방안

13. 현재 복합주민의 어려움에 대해서 남한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학 년		χ^2 (df)	성 별		χ^2 (df)	거주지역			χ^2 (df)	전체 빈도(%)
	중학교 빈도(%)	고등학교 빈도(%)		남 빈도(%)	여 빈도(%)		대도시 빈도(%)	중소도시 빈도(%)			
정부 및 민간 모두 역량원조	155(26.1)	138(23.4)	11.34* (5)	148(24.4)	144(25.1)	10.19 (5)	205(23.2)	84(28.8)	15.38 (15)	297(24.9)	
민간차원에서만 역량원조	36(6.1)	55(9.3)		53(8.7)	37(6.4)		66(7.5)	25(8.6)		91(7.6)	
정부차원에서만 역량원조	31(5.2)	40(6.8)		27(4.5)	44(7.7)		47(5.3)	23(7.9)		71(5.9)	
국립비 전용의 우리 때문에 원조하지 말아야 함	214(36.1)	206(34.9)		227(37.5)	193(33.6)		323(36.5)	96(32.9)		421(35.2)	
무조건 도와주지 말아야 함	106(17.9)	119(20.2)		115(19.0)	110(19.2)		178(20.1)	46(15.8)		227(19.0)	
생각해보지 않음	51(9.6)	32(5.4)	606(100)	36(5.9)	46(8.0)	1180(100)	65(7.4)	18(6.2)	1176(100)	84(7.0)	
소계 빈도(%)	593(100)	590(100)		606(100)	574(100)		884(100)	292(100)		1191(100)	
합계 빈도(%)	1183(100)		1180(100)		1176(100)		1176(100)				

*p<.05

< 표 17 > 현재 복합의 식량난에 대한 남한의 고등분담운동에 대한 태도

14. 현재 복합의 식량 어려움에 대한 고등분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옥수수' 먹기, 반찬 줄이기' 등의 운동에 대한 당신의 감정은?

구 분	학 년		χ^2 (df)	성 별		χ^2 (df)	거주지역		χ^2 (df)	전체 빈도(%)
	중학교 빈도(%)	고등학교 빈도(%)		남 빈도(%)	여 빈도(%)		대도시 빈도(%)	중소도시 빈도(%)		
적극적으로 동참	29(4.9)	24(4.1)	9.69* (3)	27(4.5)	26(4.5)	1.37 (3)	34(3.8)	19(6.5)	14.82 (9)	54(4.5)
완성이다	198(33.3)	164(27.7)		187(30.9)	171(29.6)		258(29.2)	98(33.5)		365(30.5)
아무 소용없는 일	257(43.3)	309(52.3)		281(46.4)	286(49.6)		427(48.2)	138(47.1)		571(47.8)
반대한다	110(18.5)	94(15.9)		110(18.2)	94(16.3)		166(18.8)	38(13.0)		204(17.1)
소계 빈도(%)	594(100)	591(100)	1182(100)	605(100)	577(100)	1178(100)	885(100)	293(100)	1194(100)	
합계 빈도(%)	1185(100)									

*p<.05

< 표 18 > 금년 방영된 북한관련 TV프로그램의 시청여부

8. 금년에 들어서 북한관련 TV 프로그램(남북의 창, 통일전망대, 통일의 길 등)을 본 적이 있습니까?

구 분	학 년		χ^2 (df)	성 별		χ^2 (df)	거주지역		χ^2 (df)	전 체 빈도(%)
	중학교 빈도(%)	고등학교 빈도(%)		남 빈도(%)	여 빈도(%)		대도시 빈도(%)	중소도시 빈도(%)		
없다	121(20.4)	139(23.5)		132(21.8)	126(21.8)		200(22.6)	60(20.5)		262(21.9)
한두번 본적이 있다	295(49.7)	281(47.5)		290(47.9)	285(49.4)		423(47.8)	150(51.2)		578(48.4)
가끔 본다	127(21.4)	135(22.8)	5.98	132(21.8)	131(22.7)	4.44	200(22.6)	59(20.1)	11.61	267(22.3)
자주 본다	47(7.9)	30(5.1)	(4)	43(7.1)	33(5.7)	(4)	54(6.1)	22(7.5)	(12)	77(6.4)
정기적으로 본다	4(0.7)	6(1.0)		8(1.3)	2(0.3)		8(0.9)	2(0.7)		10(0.8)
소계 빈도(%)	594(100)	591(100)		605(100)	577(100)		885(100)	293(100)		1194(100)
합계 빈도(%)	1185(100)			1182(100)			1178(100)			

< 표 19 > 금년 주요일간지에 발표된 북한관련 기사를 읽었는지 여부

38. 금년들어 주요 일간지에 실린 북한관련 신문내용을 주의깊게 읽은 적이 있다.

구 분	학 년		χ^2 (df)	성 별		χ^2 (df)	거주지역		χ^2 (df)	전 체 빈도(%)
	중학교 빈도(%)	고등학교 빈도(%)		남 빈도(%)	여 빈도(%)		대도시 빈도(%)	중소도시 빈도(%)		
그렇다	213(36.2)	237(40.4)		229(38.3)	220(38.4)		349(39.9)	101(34.6)		454(38.0)
아니다	375(63.8)	349(59.6)	2.04	369(61.7)	353(61.6)	0.00	526(60.1)	191(65.4)	4.24	729(61.0)
소계 빈도(%)	588(100)	586(100)	(1)	598(100)	573(100)	(1)	875(100)	292(100)	(3)	1183(100)
합계 빈도(%)	1174(100)			1171(100)			1167(100)			

< 표 20 > 북한관련 지식의 신뢰도

10. 당신은 자신이 접하고 있는 북한관련 정보나 자료가 실제의 북한과 어느 정도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학 년		χ^2 (df)	성 별		χ^2 (df)	거주지역		χ^2 (df)	전 체 빈도(%)
	중학교 빈도(%)	고등학교 빈도(%)		남 빈도(%)	여 빈도(%)		대도시 빈도(%)	중소도시 빈도(%)		
실제의 북한과 같다	139(23.4)	120(20.4)	30.70*** (3)	119(19.7)	138(24.0)	7.95* (3)	182(20.6)	78(26.6)	13.57 (9)	260(21.8)
대소 실상과 다르다	219(36.9)	303(51.4)		261(43.1)	261(45.4)		400(45.3)	119(40.6)		526(44.0)
전혀 실상과 다르다	46(7.7)	46(7.8)		57(9.4)	36(6.3)		68(7.7)	24(8.2)		93(7.8)
잘 모르겠다	190(32.0)	120(20.4)		168(27.8)	140(24.3)		233(26.4)	72(24.6)		313(26.2)
소계 빈도(%)	594(100)	589(100)		605(100)	575(100)		883(100)	293(100)		1192(100)
합계 빈도(%)	1183(100)			1180(100)			1176(100)			

*p<.05, ***p<.001

< 표 21 > 언론의 북한보도 자세

11. 언론의 북한 보도자세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학 년		χ^2 (df)	성 별		χ^2 (df)	거주지역		χ^2 (df)	전 체 빈도(%)
	중학교 빈도(%)	고등학교 빈도(%)		남 빈도(%)	여 빈도(%)		대도시 빈도(%)	중소도시 빈도(%)		
매우 긍정적인 것 같다	20(3.4)	9(1.5)	12.60** (3)	17(2.8)	12(2.1)	1.23 (3)	20(2.3)	9(3.1)	15.16 (9)	29(2.4)
긍정적인 편인 것 같다	184(31.3)	162(27.6)		170(28.1)	173(30.4)		253(29.0)	90(30.9)		349(29.2)
일부 예극 보도하는 것 같다	264(44.9)	318(54.1)		304(50.3)	278(48.9)		440(50.1)	136(46.7)		585(49.0)
편파보도를 하는 것 같다	120(20.4)	99(16.8)		113(18.7)	106(18.6)		163(18.6)	56(19.3)		221(18.5)
소계 빈도(%)	588(100)	588(100)		604(100)	569(100)		878(100)	291(100)		1184(100)
합계 빈도(%)	1176(100)			1173(100)			1169(100)			

**p<.01

< 표 22 > 대만의 핵폐기를 북한 반입에 대한 태도

29. 대만의 핵폐기를 북한 반입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학년		χ^2 (df)	성별		χ^2 (df)	거주지역		χ^2 (df)	전체 빈도(%)
	중학교 빈도(%)	고등학교 빈도(%)		남 빈도(%)	여 빈도(%)		대도시 빈도(%)	중소도시 빈도(%)		
실력행사를 통해서라도 막아야 함	267(45.2)	263(44.8)		299(49.7)	228(39.8)		408(46.5)	116(39.6)		531(44.4)
국민교두가 반대운동을 하여야 함	166(28.1)	208(35.4)		183(30.4)	191(33.3)		275(31.3)	97(31.1)		377(31.5)
북한과 내만이 알아서 할 일임	52(8.8)	41(7.0)	11.34*	54(9.0)	40(7.0)	23.92***	63(7.2)	31(10.6)	9.80	94(7.9)
생각해 본일이 없음	106(17.9)	75(12.8)	(3)	66(11.0)	114(19.9)	(3)	132(15.0)	49(16.7)	(9)	184(15.4)
소계 빈도(%)	591(100)	587(100)		602(100)	573(100)		878(100)	293(100)		1186(100)
합계 빈도(%)	11785(100)			1175(100)			1171(100)			

*p<.05, ***p<.001

< 표 23 > 청소년의 교류활동 참여의사

19. 당신은 앞으로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이 전개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분	학년		χ^2 (df)	성별		χ^2 (df)	거주지역		χ^2 (df)	전체 빈도(%)
	중학교 빈도(%)	고등학교 빈도(%)		남 빈도(%)	여 빈도(%)		대도시 빈도(%)	중소도시 빈도(%)		
반드시 참가하겠다	69(11.6)	48(8.1)		50(8.3)	67(11.6)		86(9.7)	30(10.2)		117(9.8)
가능한 참가하겠다	274(46.1)	237(40.2)		252(41.7)	256(44.4)		364(41.2)	144(49.2)		515(43.1)
참가하지 않겠다	66(11.1)	64(10.8)	13.83**	82(13.6)	49(8.5)	10.79*	105(11.9)	25(8.5)	12.83	131(11.0)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185(31.1)	241(40.8)	(3)	221(36.5)	204(35.4)	(3)	329(37.2)	94(32.1)	(9)	430(36.0)
소계 빈도(%)	594(100)	590(100)		605(100)	576(100)		884(100)	293(100)		1193(100)
합계 빈도(%)	1184(100)			1181(100)			1177(100)			

*p<.05, **p<.01

< 표 24 > 가장 참여하고 싶은 교류활동

20. 당신이 만약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에 참여한다면 가장 참가하고 싶은 활동은 어느 것입니까?

구분	학년		χ^2 (df)	성별		χ^2 (df)	거주지역		χ^2 (df)	전체 빈도(%)
	중학교 빈도(%)	고등학교 빈도(%)		남 빈도(%)	여 빈도(%)		대도시 빈도(%)	중소도시 빈도(%)		
유적지 및 명승지 탐사	130(22.3)	128(22.1)	15.05* (5)	139(23.3)	119(21.1)	98.93*** (5)	195(22.5)	63(21.7)	29.38* (15)	261(21.8)
체육활동	81(13.9)	65(11.2)		126(21.1)	19(3.4)		109(12.6)	37(12.7)		147(12.3)
음악·미술 등 예능활동	52(8.9)	52(9.0)		40(6.7)	64(11.3)		75(8.7)	30(10.3)		105(8.8)
각토순례대행진	60(10.3)	103(17.8)		86(14.4)	78(13.8)		134(15.5)	27(9.3)		165(13.8)
문예활동	10(1.7)	7(1.2)		8(1.3)	9(1.6)		12(1.4)	5(1.7)		17(1.4)
수하여행 및 단체여행	251(43.0)	225(38.8)	1161(100)	197(33.1)	276(48.8)	1161(100)	341(39.4)	130(44.7)	1157(100)	478(40.0)
소계 빈도(%)	584(100)	580(100)		596(100)	565(100)		866(100)	291(100)		1173(100)
합계 빈도(%)	1164(100)			1161(100)			1161(100)			1157(100)

*p<.05, ***p<.001

< 표 25 > 북한 방문 희망처

18. 당신이 북한을 방문하게 될 경우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하나만 적어주세요

구분	하인		Z ² (df)	성별		Z ² (df)	거주지역		Z ² (df)	전체 빈도(%)
	총빈도 빈도(%)	교육하교 빈도(%)		남 빈도(%)	여 빈도(%)		평도시 빈도(%)	종소도시 빈도(%)		
영민마을	376(7)	376(7)	23.10 (22)	26(4.5)	49(9.2)	59.42** (22)	53(6.4)	207(3)	97.61** (66)	75(6.3)
제안	51(9.2)	56(10.1)		64(10.5)	47(8.1)		79(9.6)	27(9.9)		107(9.0)
백두산-금강산	356(61.4)	317(62.4)		328(66.0)	318(60.9)		538(61.4)	189(69.2)		707(59.2)
신원자-검재원 전	41(7.4)	37(6.7)		19(3.3)	58(11.1)		63(7.6)	14(5.1)		78(6.5)
석교산길	14(2.5)	11(2.1)		11(1.9)	14(2.6)		18(2.2)	7(2.6)		25(2.1)
표암산	9(0.0)	1(0.2)		1(0.2)	0(0.0)		14(1.1)	0(0.0)		1(0.1)
아오지 탄광	8(1.4)	15(2.7)		19(3.3)	5(1.9)		6(0.7)	4(0.0)		10(0.8)
계삼	30(5)	5(0.9)		4(0.7)	4(0.8)		21(2.5)	9(7.8)		30(2.5)
진원성표지	9(1.6)	17(3.1)		15(2.6)	11(2.1)		6(0.7)	2(0.7)		8(0.7)
석실령광소	10(2)	2(0.4)		3(0.5)	0(0.0)		3(0.4)	4(0.0)		7(0.6)
김원성 대학	0(0.0)	4(0.7)		4(0.7)	0(0.0)		4(0.5)	0(0.0)		4(0.3)
개미고관	1(0.2)	2(0.4)		3(0.5)	0(0.0)		2(0.2)	1(0.4)		3(0.3)
임록강두민강	10(2)	5(0.9)		3(0.5)	3(0.6)		5(0.6)	1(0.4)		6(0.5)
북한계 동촌	1(0.2)	0(0.0)		0(0.0)	1(0.2)		0(0.0)	1(0.4)		1(0.1)
여이탈 들어동산	28(4)	14(2)		11(2)	2(0.4)		16(1)	2(0.7)		3(0.3)
합동	3(0.5)	0(0.0)		2(0.3)	1(0.2)		2(0.2)	1(0.4)		3(0.3)
신곡리	1(0.2)	0(0.0)		0(0.0)	1(0.2)		0(0.0)	1(0.4)		1(0.1)
위양 재하원	5(0.9)	0(0.0)		2(0.3)	3(0.6)		5(0.6)	4(0.0)		9(0.8)
장부기탄	58(9)	0(0.0)		3(0.5)	2(0.4)		4(0.5)	1(0.4)		5(0.4)
금사기지	4(0.7)	3(0.5)		4(0.7)	3(0.6)		7(0.8)	0(0.0)		7(0.6)
삼안강 동상	2(0.4)	1(0.2)		2(0.3)	1(0.2)		2(0.2)	1(0.4)		3(0.3)
서양배급광소	14(2)	8(1.0)		1(0.2)	0(0.0)		1(0.1)	0(0.0)		1(0.1)
기타	7(1.3)	11(2.0)		12(2.1)	6(1.1)		18(2.2)	0(0.0)		18(1.5)
소계 빈도(%)	553(100)	553(100)		523(100)	530(100)		827(100)	272(100)		1155(100)
합계 빈도(%)	1108(100)		1108(100)		1108(100)		1108(100)		1193(100)	

** p<.01, *** p<.001

< 표 26 > 북한영화 관람의사

17. 당신은 북한영화가 상영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분	교급		χ^2 (df)	성별		χ^2 (df)	거주지역		χ^2 (df)	전체 빈도(%)
	중학교 빈도(%)	고등학교 빈도(%)		남 빈도(%)	여 빈도(%)		대도시 빈도(%)	중소도시 빈도(%)		
반드시 보겠다	87(14.7)	54(9.2)		72(12.6)	68(11.8)		108(12.2)	32(11.0)		14(11.8)
가능할 보겠다	268(45.3)	235(39.9)		247(41.1)	255(44.3)		363(41.2)	137(47.1)		507(42.4)
보지 않겠다	108(18.3)	126(21.4)	18.28***	124(20.6)	108(18.8)		190(21.5)	43(14.8)	14.36	235(19.7)
잘 모르겠다	128(21.7)	174(29.5)	(3)	158(26.3)	145(25.2)	(3)	221(25.1)	79(6.5)	(9)	306(25.6)
소계 빈도(%)	591(100)	589(100)		601(100)	576(100)		882(100)	291(100)		1189(100)
합계 빈도(%)	1180(100)			1177(100)			1173(100)			

***p<.001

< 표 27 > 북한주민에 대한 대면태도

5. 지금 당장 외국에서 북한 주민이나 청소년을 만났다면 당신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구분	학년		χ^2 (df)	성별		χ^2 (df)	거주지역		χ^2 (df)	전체 빈도(%)
	중학교 빈도(%)	고등학교 빈도(%)		남 빈도(%)	여 빈도(%)		대도시 빈도(%)	중소도시 빈도(%)		
동포로서 적극 환대	92(15.5)	93(15.7)		101(16.7)	85(14.7)		139(15.7)	47(16.1)		188(15.7)
답답히 대하겠다	129(21.8)	137(23.2)		135(22.3)	132(22.9)		210(23.7)	57(19.5)		268(22.4)
위협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만 만나서 대화	121(20.4)	98(16.6)		109(18.0)	107(18.5)		157(17.7)	61(20.9)		219(18.3)
대화를 피하겠다	28(4.7)	26(4.4)	7.32	30(5.0)	24(4.2)	10.65	42(4.7)	12(4.1)	20.40	55(4.6)
무조건 피하겠다	25(4.2)	14(2.4)	(5)	28(4.6)	10(1.7)	(5)	29(3.3)	10(3.4)	(15)	39(3.3)
만나와야 한다	198(33.4)	223(37.7)		202(33.4)	219(38.0)		308(34.8)	105(36.0)		424(35.5)
소계 빈도(%)	593(100)	591(100)		605(100)	577(100)		885(100)	292(100)		1193(100)
합계 빈도(%)	1184(100)			1182(100)			1177(100)			

< 표 28 > 북한 청소년과 이야기를 나누다면

2. 당신이 북한의 청소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면?

구분	학년		χ^2 (df)	성별		χ^2 (df)	거주지역		χ^2 (df)	전체 빈도(%)
	중학교 빈도(%)	고등학교 빈도(%)		남 빈도(%)	여 빈도(%)		대도시 빈도(%)	중소도시 빈도(%)		
친근감을 느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33(5.6)	38(6.4)	2.21 (3)	38(6.3)	34(5.9)	13.59** (3)	50(5.6)	21(7.2)	15.08 (9)	73(6.1)
약간 이색하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320(54.0)	310(52.4)		297(49.1)	333(57.7)		475(53.6)	151(51.7)		632(52.9)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이색을 짓는다	155(26.1)	171(28.9)		192(31.7)	130(22.5)		247(27.9)	69(23.6)		331(27.7)
거부감을 느껴 이야기를 나눌 수 없을 것 같다	85(14.3)	73(12.3)	886(100)	78(12.9)	80(13.9)	1178(100)	114(12.9)	42(14.4)	158(13.2)	158(13.2)
소계 빈도(%)	593(100)	592(100)		605(100)	577(100)		886(100)	292(100)		
합계 빈도(%)	1185(100)		1182(100)		1178(100)		1178(100)		1194(100)	

**p<.01

< 표 29 > 대학생들의 정부 무허가 방북에 대한 평가

42. 대학생이 정부의 허가없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쁘다

구분	학년		χ^2 (df)	성별		χ^2 (df)	거주지역		χ^2 (df)	전체 빈도(%)
	중학교 빈도(%)	고등학교 빈도(%)		남 빈도(%)	여 빈도(%)		대도시 빈도(%)	중소도시 빈도(%)		
그렇다	452(76.9)	436(74.4)	0.84 (1)	464(77.5)	421(73.6)	2.16(1)	691(79.0)	192(65.6)	24.64*** (3)	896(75.0)
아니다	136(23.1)	150(25.6)		135(22.5)	151(26.4)		184(21.0)	100(34.4)		267(24.0)
소계 빈도(%)	588(100)	586(100)		599(100)	572(100)		875(100)	292(100)		1183(100)
합계 빈도(%)	1174(100)		1171(100)		1167(100)		1167(100)			

***p<.001

< 표 30 > 남북한 교류에 대한 우리의 태도

16. 앞으로 남북한 교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학 년		χ^2 (df)	성 별		χ^2 (df)	거주지역			χ^2 (df)	전체 빈도(%)
	중학교 빈도(%)	고등학교 빈도(%)		남 빈도(%)	여 빈도(%)		대도시 빈도(%)	중소도시 빈도(%)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모두 활발하게 추진	326(55.2)	340(57.8)	10.64* (4)	344(57.2)	321(55.8)	3.88 (4)	500(56.6)	160(55.0)	31.50** (12)	671(56.2)	
민간차원에서만 추진	31(5.2)	31(5.3)		37(6.2)	25(4.3)		36(4.1)	26(8.9)		62(5.2)	
정부차원에서만 추진	45(7.6)	38(6.5)		37(6.2)	46(8.0)		59(6.7)	24(8.3)		84(7.0)	
북한이 적극적으로만 추진	152(25.7)	164(27.9)		159(26.5)	155(27.0)		245(27.7)	72(24.7)		318(26.6)	
교류는 바람직하지 않음	37(6.3)	15(2.6)		24(4.0)	28(4.9)		43(4.9)	9(3.1)		52(4.4)	
소계 빈도(%)	591(100)	588(100)	601(100)		575(100)	883(100)		291(100)	1187(100)		
합계 빈도(%)	1179(100)				1176(100)		1174(100)				

* $p < .05$, ** $p < .01$

< 표 31 > 통일문제에 대한 대화 여부

40. 통일에 대해서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는 적이 있다

구 분	학 년		χ^2 (df)	성 별		χ^2 (df)	거주지역		χ^2 (df)	전체 빈도(%)
	중학교 빈도(%)	고등학교 빈도(%)		남 빈도(%)	여 빈도(%)		대도시 빈도(%)	중소도시 빈도(%)		
그렇다 아니다	267(45.4)	282(48.0)	0.72 (1)	243(40.6)	303(52.9)	17.35*** (1)	435(49.7)	110(37.7)	13.94** (3)	552(46.2)
	321(54.6)	305(52.0)		356(59.4)	270(47.1)		441(50.3)	182(62.3)		632(52.9)
소계 빈도(%)	588(100)	587(100)		599(100)	573(100)		876(100)	292(100)		1184(100)
합계 빈도(%)	1175(100)			1172(100)			1168(100)			

** $p < .01$, *** $p < .001$

< 표 32 > 통일시기에 대한 견해

25. 당신은 통일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학 년		χ^2 (df)	성 별		χ^2 (df)	거주지역		χ^2 (df)	전체 빈도(%)
	중학교 빈도(%)	고등학교 빈도(%)		남 빈도(%)	여 빈도(%)		대도시 빈도(%)	중소도시 빈도(%)		
3년 이내	64(10.9)	47(8.0)	13.37* (5)	62(10.3)	48(8.4)	17.07** (5)	77(8.8)	34(11.6)	16.80 (15)	112(9.4)
5년 이내	92(15.6)	83(14.1)		108(17.9)	66(11.5)		129(14.7)	44(15.1)		176(14.7)
10년 이내	186(31.6)	184(31.2)		195(32.3)	175(30.5)		284(32.3)	84(28.7)		372(31.1)
20년 이내	71(12.1)	63(10.7)		65(10.8)	68(11.9)		107(12.2)	27(9.3)		134(11.2)
20년 이후	45(7.6)	80(13.6)		56(9.3)	70(12.2)		98(11.1)	26(8.9)		129(10.8)
가동상이 없다	131(22.2)	133(22.5)	1179(100)	117(9.4)	146(25.5)	1176(100)	185(21.0)	77(26.4)	1172(100)	264(22.1)
소계 빈도(%)	589(100)	590(100)		603(100)	573(100)		880(100)	292(100)		1187(100)
합계 빈도(%)	1179(100)		1176(100)		1177(100)		1172(100)		1187(100)	

*p<.05, **p<.01

< 표 33 > 통일 문제에 대한 생각

28. 당신은 우리나라 통일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학 년		χ^2 (df)	성 별		χ^2 (df)	거주지역		χ^2 (df)	전 체 빈도(%)
	중학교 빈도(%)	고등학교 빈도(%)		남 빈도(%)	여 빈도(%)		대도시 빈도(%)	중소도시 빈도(%)		
될 수 있는 한 빨리 통일되어야 한다	159(26.9)	90(15.3)	23.72*** (2)	157(26.0)	90(15.7)	24.06*** (2)	172(19.5)	76(25.9)	8.70 (6)	250(20.9)
시간여유를 갖고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350(59.1)	406(69.0)		375(62.2)	379(66.0)		568(64.5)	182(62.1)		763(63.6)
현 상태에서 평화공존하는 것이 좋다	83(14.0)	92(15.6)		71(11.8)	105(18.3)		140(15.9)	35(12.0)		176(14.7)
소계 빈도(%)	592(100)	588(100)	1180(100)	603(100)	574(100)	1177(100)	880(100)	293(100)	1173(100)	1189(100)
합계 빈도(%)	1180(100)									

***p<.001

< 표 34 > 통일방법1

27. 당신은 우리나라 통일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학년		χ^2 (df)	성별		χ^2 (df)	거주지역		χ^2 (df)	전체 빈도(%)
	중학교 빈도(%)	고등학교 빈도(%)		남 빈도(%)	여 빈도(%)		대도시 빈도(%)	중소도시 빈도(%)		
이따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야 한다	98(16.6)	51(8.7)	27.80*** (2)	82(13.6)	66(11.5)	19.40*** (2)	103(11.7)	46(15.8)	4.85 (6)	149(12.5)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289(48.9)	368(62.7)		365(60.6)	291(50.8)		490(55.7)	161(55.3)		665(55.6)
희생이 있다면 꼭 통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4(34.5)	168(28.6)		155(25.7)	216(37.7)		287(32.6)	84(28.9)		373(31.2)
소계 빈도(%)	591(100)	587(100)		602(100)	573(100)		880(100)	291(100)		1187(100)
합계 빈도(%)	1178(100)			1175(100)			1171(100)			

***p<.001

< 표 35 > 통일방법2

26. 통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학년		χ^2 (df)	성별		χ^2 (df)	거주지역		χ^2 (df)	전체 빈도(%)
	중학교 빈도(%)	고등학교 빈도(%)		남 빈도(%)	여 빈도(%)		대도시 빈도(%)	중소도시 빈도(%)		
남북한이 힘을 합쳐 평화체제로 통일	437(74.1)	411(70.1)	14.74*** (2)	411(68.5)	435(75.9)	8.18* (2)	611(69.7)	230(78.5)	28.13*** (6)	854(71.5)
국제적인 힘을 사용하여 평화체제로 통일	84(14.2)	62(10.6)		82(13.7)	63(11.0)		103(11.8)	42(14.3)		147(12.3)
남한의 국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흡수통일	69(11.7)	113(19.3)		107(17.8)	75(13.1)		162(18.5)	21(7.2)		194(15.4)
소계 빈도(%)	590(100)	586(100)		600(100)	573(100)		876(100)	293(100)		1185(100)
합계 빈도(%)	1176(100)			1173(100)			1169(100)			

*p<.05, ***p<.001

< 표 36 > 통일과업에의 참여의사

30. 통일이러는 과업에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분은?

구 분	학 년		χ^2 (df)	성 별		χ^2 (df)	거주지역		χ^2 (df)	전체 빈도(%)
	중학교 빈도(%)	고등학교 빈도(%)		남 빈도(%)	여 빈도(%)		대도시 빈도(%)	중소도시 빈도(%)		
적극 참여하겠다	105(17.8)	106(18.0)		118(19.6)	92(16.0)		163(18.5)	47(16.0)		212(17.7)
참여하려고 노력하겠다	308(52.1)	308(52.3)		310(51.5)	305(53.0)		445(50.6)	165(56.3)		621(52.0)
사키는네로 하겠다	74(12.5)	76(12.9)	0.15	85(14.1)	64(11.1)	8.68*	116(13.2)	35(12.0)	5.77	151(12.6)
관심없다	104(17.6)	99(16.8)	(3)	89(14.8)	114(19.8)	(3)	156(17.7)	46(15.7)	(9)	204(17.1)
소계 빈도(%)	591(100)	589(100)		602(100)	575(100)		880(100)	293(100)		1188(100)
합계 빈도(%)		1180(100)			1177(100)			1173(100)		

*p<0.05

< 표 37 > 통일을 위한 자신의 시간과 노력 투자 여부

41. 통일을 위한 일이라면 나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할것이다

구 분	학 년		χ^2 (df)	성 별		χ^2 (df)	거주지역		χ^2 (df)	전체 빈도(%)
	중학교 빈도(%)	고등학교 빈도(%)		남 빈도(%)	여 빈도(%)		대도시 빈도(%)	중소도시 빈도(%)		
그렇다	219(37.5)	169(29.0)		233(39.1)	150(26.4)		285(32.8)	97(33.5)		391(32.7)
아니다	365(62.5)	414(71.0)	9.15**	363(60.9)	418(73.6)	20.63***	585(67.2)	193(66.5)	4.75	784(65.6)
소계 빈도(%)	584(100)	583(100)	(1)	596(100)	568(100)	(1)	874(100)	290(100)	(3)	1175(100)
합계 빈도(%)	1167(100)			1164(100)			1160(100)			

p<0.01, *p<0.001

< 표 38 > 국민의사의 통일정책 반영정도

23. 정부의 통일정책은 국민의 여론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까?

구 분	학 년		χ^2 (df)	성 별		χ^2 (df)	거주지역		χ^2 (df)	전체 빈도(%)
	중학교 빈도(%)	고등학교 빈도(%)		남 빈도(%)	여 빈도(%)		대도시 빈도(%)	중소도시 빈도(%)		
국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56(9.6)	22(3.7)	51.78*** (3)	54(9.0)	25(4.4)	10.65* (3)	52(5.9)	27(9.3)	31.87*** (9)	79(6.6)
국민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	245(41.8)	168(28.6)		199(33.2)	207(36.3)		283(32.3)	125(43.1)		414(34.6)
특정집단의 의견만을 수렴	191(32.6)	235(40.0)		212(15.4)	216(37.8)		326(37.2)	98(33.8)		430(36.0)
정부주도의 일	94(16.0)	162(27.6)		134(22.4)	123(21.5)		216(24.6)	40(13.8)		258(21.6)
소계 빈도(%)	586(100)	587(100)	1173(100)		1170(100)	1167(100)		1167(100)	1181(100)	
합계 빈도(%)										

*p<.05, ***p<.001

< 표 39 > 통일후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공동체 형성 여부

31. 통일후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구 분	학 년		χ^2 (df)	성 별		χ^2 (df)	거주지역		χ^2 (df)	전체 빈도(%)
	중학교 빈도(%)	고등학교 빈도(%)		남 빈도(%)	여 빈도(%)		대도시 빈도(%)	중소도시 빈도(%)		
확실히 그럴 것임	70(11.9)	67(11.4)	4.97 (3)	85(14.2)	52(9.0)	28.19*** (3)	100(11.4)	36(12.3)	9.59 (9)	136(11.5)
아마 그럴 것임	300(50.8)	278(47.4)		309(51.7)	267(46.4)		434(49.5)	139(47.6)		584(48.9)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임	168(28.5)	200(34.1)		148(24.7)	219(38.1)		273(31.1)	94(32.2)		369(30.9)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임	52(8.8)	41(7.0)		54(9.4)	37(6.4)		70(8.0)	23(7.9)		93(7.8)
소계 빈도(%)	590(100)	586(100)	1176(100)		1173(100)	1169(100)		1169(100)	1184(100)	
합계 빈도(%)										

***p<.001

< 표 40 > 통일교육 실시 시기 및 방법

33. 통일교육은 언제부터 어느 정도의 내용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학년		χ^2 (df)	성별		χ^2 (df)	거주지역		χ^2 (df)	전체 빈도(%)
	중학교 빈도(%)	고등학교 빈도(%)		남 빈도(%)	여 빈도(%)		대도시 빈도(%)	중소도시 빈도(%)		
지금부터 모든 분야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실시	232(39.7)	286(48.9)		275(46.1)	243(42.6)		404(46.3)	107(36.9)		520(43.5)
지금부터 특정분야만의 제한된 교육이 필요	107(18.3)	84(14.4)		106(17.8)	81(14.2)		134(15.4)	57(19.7)		191(16.0)
통일에 즈음하여 필요할 내용의 교육 실시	137(23.5)	134(22.9)	12.29** (3)	132(22.1)	141(24.7)	7.33 (3)	204(23.4)	68(23.5)	16.10 (9)	276(23.1)
따로 교육할 필요가 없다	108(18.5)	81(13.8)		84(14.1)	105(18.4)		130(14.9)	58(20.0)		189(15.8)
소계 빈도(%)	584(100)	585(100)		597(100)	570(100)		872(100)	290(100)		1176(100)
합계 빈도(%)	1169(100)			1167(100)			1162(100)			

**p<.01

< 표 41 > 북한에 관한 자신의 지식 평가

12. 당신은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학년		χ^2 (df)	성별		χ^2 (df)	거주지역		χ^2 (df)	전체 빈도(%)
	중학교 빈도(%)	고등학교 빈도(%)		남 빈도(%)	여 빈도(%)		대도시 빈도(%)	중소도시 빈도(%)		
매우 많이 알고 있다	8(1.3)	9(1.5)		14(2.3)	3(0.5)		11(1.2)	5(1.7)		17(1.4)
많이 알고 있다	23(3.9)	22(3.7)		31(5.1)	13(2.3)		34(3.8)	11(5.1)		45(3.8)
보통이다	291(49.1)	205(34.7)		252(41.7)	243(42.2)		361(10.8)	130(44.5)		500(41.8)
조금 알고 있다	171(28.8)	213(36.0)	29.28*** (5)	189(31.2)	193(33.5)	14.64* (5)	284(32.1)	99(33.9)	34.49** (15)	388(32.5)
매우 적게 알고 있다	86(14.5)	131(22.2)		105(17.4)	113(19.6)		177(20.0)	40(13.7)		218(18.2)
전혀 모른다	14(2.4)	11(1.9)		14(2.3)	11(1.9)		18(2.0)	7(0.6)		25(2.1)
소계 빈도(%)	593(100)	591(100)		605(100)	576(100)		885(100)	292(100)		1193(100)
합계 빈도(%)	1184(100)			1181(100)			1177(100)			

*p<.05, **p<.01, ***p<.001

< 표 42 > 학교에서 교육하는 북한관련 내용에 대한 만족도

32.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북한에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학년		χ^2 (df)	성별		χ^2 (df)	거주지역		χ^2 (df)	전체 빈도(%)
	중학교 빈도(%)	고등학교 빈도(%)		남 빈도(%)	여 빈도(%)		대도시 빈도(%)	중소도시 빈도(%)		
매우 만족한다	16(2.7)	8(1.4)	48.70*** (4)	15(2.5)	9(1.6)	15.37** (4)	18(2.1)	6(2.1)	40.24*** (12)	24(2.0)
만족한다	102(17.3)	32(5.5)		62(10.3)	70(12.2)		79(9.0)	55(18.8)		135(11.3)
그서 그렇지	264(44.7)	287(49.0)		262(43.7)	290(50.5)		400(45.6)	149(51.0)		554(46.4)
만족하지 않는다	133(22.5)	185(31.6)		166(27.7)	152(26.5)		259(29.5)	56(19.2)		321(26.9)
매우 불만족하다	76(12.9)	74(12.6)	1177(100)	95(15.8)	53(9.2)	1174(100)	122(13.9)	26(8.9)	1170(100)	152(12.7)
소계 빈도(%)	591(100)	586(100)		600(100)	574(100)		878(100)	292(100)		1186(100)
합계 빈도(%)	1177(100)		1174(100)		1170(100)		1186(100)		1186(100)	

p<.01, *p<.001

부록 2. 설문지

북한에 관한 청소년 의식조사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우리 청소년들이 북한에 관해 느끼고 있는 바를 알아보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대답은 옳고 그름이 없으며 또 그것이 누구의 응답인지도 일체 밝혀지지 않습니다.

모든 물음에 솔직하고 빠짐없이 응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997. 5.

한국청소년개발원

(137-130)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60번지

연구진: 정 회 옥(02-578-7926)

전 경 숙(02-578-7926)

권 오 실(02-578-7926)

5. 당신은 북한주민이나 청소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같은 민족 ② 이방인 ③ 무서운 사람들 ④ 별 생각 없다

6. 지금 당장 외국에서 북한 주민이나 청소년을 만난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 ① 동포로서 적극 환대하겠다
 ② 담담히 대하겠다
 ③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만 만나서 대화하겠다
 ④ 대화를 피하겠다
 ⑤ 무조건 피하겠다
 ⑥ 만나봐야 안다

7. 최근 귀순자들에 대한 당신의 감정은?

- ① 왠지 같은 동포로서의 동포애가 느껴진다
 ② 왠지 이방인같이 느껴진다
 ③ 왠지 적대감이 느껴진다
 ④ 별 감정이 없다

8. 금년에 들어서 북한관련 TV프로그램(남북의 창, 통일전망대, 통일의 길 등)을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한두번 본적이 있다
 ③ 가끔 본다 ④ 자주 본다 ⑤ 정기적으로 본다

9.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 북한소식을 접하면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 ① 우리와 별 다르게 없다고 생각한다
 ② 생경한 느낌이 든다
 ③ 이렇다 할 느낌이 없다.

10. 당신은 자신이 접하고 있는 북한 관련 정보나 자료가 실제의 북한과 어느 정도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실제의 북한과 같다 ② 다소 실상과 다르다
 ③ 전혀 실상과 다르다 ④ 잘 모르겠다

11. 언론의 북한 보도자세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긍정적인 것 같다 ② 긍정적인 편인 것 같다.
③ 일부 왜곡 보도하는 것 같다 ④ 편파보도를 하는 것 같다.

12. 당신은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많이 알고 있다
- ② 많이 알고 있다
- ③ 보통이다
- ④ 적게 알고 있다
- ⑤ 매우 적게 알고 있다
- ⑥ 전혀 모른다

13. 현재 북한주민의 어려움에 대해서 남한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부 및 민간단체 모두가 적극적으로 식량원조를 하여야 한다.
- ② 민간 차원에서만 식량원조를 하여야 한다.
- ③ 정부 차원에서만 식량원조를 하여야 한다.
- ④ 식량원조를 해주어보았자 군량미로 사용할 것이므로 원조를 하지 말아야 한다.
- ⑤ 무조건 도와주면 안된다.
- ⑥ 생각해보지 않았다.

14. 현재 북한의 식량 어려움에 대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옥수수 죽먹기, 반찬 줄이기' 등의 운동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 ①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② 찬성이다
③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④ 반대한다

15. 귀순자들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평생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 배려를 해 주어야 한다
- ②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살 수 있도록 직장만 마련해 주면 된다
- ③ 아무런 경제적·사회적 도움을 줄 필요가 없다

16. 앞으로의 남북한 교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모두 활발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 ② 민간 차원에서만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③ 정부 차원에서만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④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올 때만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⑤ 남북한이 교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7. 당신은 북한 영화가 상영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반드시 보겠다 ② 가능한 보겠다
- ③ 보지 않겠다 ④ 잘 모르겠다

18. 당신이 북한을 방문하게 될 경우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하나만 적어 주십시오.

(_____)

19. 당신은 앞으로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이 전개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반드시 참가하겠다 ② 가능한 참가하겠다
- ③ 참가하지 않겠다 ④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20. 당신이 만약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에 참여한다면 가장 참여하고 싶은 활동은 어느 것입니까?

- ① 유적지 및 명승지 답사 ② 체육활동
- ③ 음악·미술 등 예능활동 ④ 국토순례대행진
- ⑤ 문예활동 ⑥ 수학여행 및 단체여행

21.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 ② 국제정세에 따라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 ③ 남한이 북한을 도와주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
- ④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22. 앞으로의 군비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증강되어야 한다 ② 현상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 ③ 북한의 변화에 따라 증감되어야 한다 ④ 감축되어야 한다

23. 정부의 통일정책은 국민의 여론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까?

- ① 국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 ② 국민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
- ③ 특정집단의 의견만을 수렴하고 있다.
- ④ 정부주도적이다.

24. 당신은 통일문제에 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 ① 매우 관심이 있다
- ② 약간 관심이 있다
- ③ 별로 관심이 없다
- ④ 전혀 관심이 없다

25. 당신은 통일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3년 이내에
- ② 5년 이내에
- ③ 10년 이내에
- ④ 20년 이내에
- ⑤ 20년 이후에나
- ⑥ 가능성이 적다

26. 통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남북한이 힘을 합쳐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여야 한다.
- ② 국제적인 힘을 활용하여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
- ③ 남한의 국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흡수통일하여야 한다.

27. 당신은 우리나라 통일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 ③ 희생이 있다면 꼭 통일을 해야할 필요가 없다.

28. 당신은 우리나라 통일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될 수 있는 한 빨리 통일되어야 한다.
- ② 시간 여유를 갖고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 ③ 현 상태에서 평화공존하는 것이 좋다.

29. 대만의 핵폐기물 북한 반입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실행행사를 통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 ② 우리 국민 모두가 반대 운동을 하여야 한다
- ③ 북한과 대만이 알아서 할 일이다
- ④ 생각해 본 일이 없다

30. 통일이라는 과업에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면 여러분은?

- ① 적극 참여하겠다 ② 참여하려고 노력하겠다
③ 시키는대로 하겠다 ④ 관심없다

31. 통일후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 ① 확실히 그럴 것이다 ② 아마 그럴 것이다
③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④ 그렇지 않을 것이다

32.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북한에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만족하지 않는다 ⑤ 매우 불만스럽다

33. 통일교육은 언제부터 어느 정도의 내용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금부터 모든 분야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② 지금부터 특정분야만의 제한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③ 통일에 즈음하여 필요한 내용의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④ 따로 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그렇다	아니다
34. 나는 북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	-----
35. 부모님 중에 고향이 이북인 분이 한분이라도 있다	-----	-----
36. 조부모님(외조부모 포함)중에 고향이 이북인 분이 한분이라도 있다.	-----	-----
37. 그 밖의 친척중에 북한에 살거나 고향이 북한인 분이 한분이라도 있다	-----	-----
38. 금년들어 주요 일간지에 실린 북한관련 신문내용을 주의깊게 읽은 적이 없다	-----	-----
39.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까봐 불안하다	-----	-----
40. 통일에 대해서 누군가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	-----
41. 통일을 위한 일이라면 나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할 것이다	-----	-----
42. 대학생이 정부의 허가없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쁘다	-----	-----

북한에 대한 지식을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43. 조선소년단이란?

- ① 우리의 보이스카웃같은 서클 활동 ② 당성이 좋은 학생들이 선발된 단체
③ 모든 소년, 소녀가 참여하는 정치조직 ④ 남학생들의 군사조직

44. 북한의 인민학교(국민학교)과정은?

- ① 3년 ② 4년 ③ 5년 ④ 6년

45. 꼬마계획이란?

- ①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계획 ② 어린이들의 좋은 일하기 운동
③ 산아제한 계획 ④ 단기 계획

46. 북한의 표준어는 무어라 부르나?

- ① 문화어 ② 혁명어 ③ 인민어 ④ 표준어

47. 북한의 용어와 그 뜻이 잘못 이어진 것은?

- ① 곡밥: 도시락 ② 무오다: 무섭다
③ 남새: 채소 ④ 수격수격: 말없이 일하는 모습

48. 북한에 지하철이 있는 지역은?

- ① 평양 ② 평양, 개성 ③ 평양, 개성, 원산 ④ 없다

49. 북한에서는 쌀과 옷을 구입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 ①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② 배급표만 있으면 된다
③ 돈만 있으면 된다 ④ 배급표와 돈이 있어야 한다

50. 북한 공휴일이 아닌 것은?

- ① 김일성 부자 생일 ② 북한 정권 수립일
③ 3·1절 ④ 노동당 창건일

부록 3. “해광이의 일기”

북한 탈출한 두가족 8명 중

김영진씨 아들

14세 해광군의 탈북기록

「우리가족 로정의 일기」

1. The first step in the process of creating a new product is to identify a market need. This involves conducting market research to determine what consumers want and need. Once a need is identified, the next step is to develop a concept for a product that meets that need.

2. The second step is to develop a business plan. This involves determining the costs of production, the pricing strategy, and the marketing plan. The business plan also includes a financial forecast and a break-even analysis. Once the business plan is complete, the next step is to secure financing for the project.

해광이가 일기를 쓴 기간은 북한을 탈출하기 위해 평남 문덕에서 외가가 있는 무산으로 간 1996년 3월 18일부터 중국에서 생활하던 4월 17일까지이다. 해광군은 당시 고등중학교 2학년(우리의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다음은 일기를 가능한 한 원문 그대로 요약한 것이다 (1997년 1월 31일 목요일 조선일보 기사 인용).

◇1997년 1월 22일(수)

나는 애어린(나이 어린) 14살 아이지만은 살길을 찾아 떠나가는 호정(여정)을 기록해 어느 때에 이 사실이 세상에 공개되어 북조선 나의 동무들이 이 글을 볼 수 있을까하고 손꼽아 기다리며 한자 두자 일기를 적고자한다.

고향과 정다운 동무들을 버리고 나는 왜서(무슨 까닭으로) 떠나야 했는지. 그것은 배고픔에 못 이겨서인지... 아니면 북조선의 무상교육 무상배려가 특려서인지...

사실 무상교육 무상배려는 아주 우월하다. 그런데 내가 1년에 공부하는 시간은 도대체 몇 일 몇 시간 되었던가?

북조선에서는 한창 배움 시기에 공부를 배우는 시간보다 농촌지원, 그 무슨 생활총화, 파철, 파유리, 파고무, 세멘트 등등 모으기가 그칠새 없었다.

사실 매일과 같이 이런 것을 모으라니 어디에 계속 있을 수 있겠는가? 할 수 없이 나의 동무들은 선생님의 강요에 못 이겨 농장 공장 아니면 주면호의 것을 훔치지 안티면(않으면) 안티었다. 결국 이것은 도리어 나라의 좋은 일 한다는 것이 학생들에게 도적질을 배워 주는 것라 다름이 없다.

우리 학급 학생은 모두 42명이다. 거기서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은 하루에 절반밖에 오지 못한다. 절반 숫자의 동무들은 왜서 학교에 오지 못했는지? 그것은 참기 어려운 배고픔 때문이다. 나는 정말로 배우고 싶은 심정이다.

어디로 가야 배움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

◇3월 18일 월요일(맑음)

정든 고향, 정다운 동무들과 이별하고 기차를 타고 함경북도 무산군으로 향하였다. 기차에 오른 사람들은 댜서 이다지도 많은지? 이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집을 떠나 다니는지?

◇3월 20일 수요일

이날은 기차 안에서 보대기(부대끼)였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사람들이 서로 뽀비면서 자기 보따리를 찾는 사람, 아이들이 배고파 우는 소리, 여자들의 신경질적 아우성 소리에 기차안은 그야말로 난장판 수 나장이었다. 더욱이 내가 목격한 것은 굴주굴에 시달려 숨을 방금 지을 듯한 한 청년이 기차 한복판에 누워 있었다. 그 사람을 동정려 위안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끝내 그 사람은 굴주굴에 못 이겨 숨을 거두고 말았다.

처음으로 어린 나이에 내 눈으로 직접 사람이 죽는 것을 보았다. 착공에서 공산주의 도덕교양, 웃사람을 존경하고 아랫 사람을 사랑하며 곤란한 사람을 도탄주어야 한다는 교양을 받은 나로서 아직도 그 참상은 나의 눈앞에 생생하다. 어째서 이 비참한 한 인간의 운명을 보고도 못본체하게 되었는가?

◇3월 21일 목요일(약간 흐림)

지루함을 느끼면서 타고 온 기차는 어느덧 무산역에 도착하였다. 외할머니네 집에 들어서니 할머니는 없었고 누나가 우리를 맞이하였다.

◇3월 22일 금요일(맑은 날씨)

아침 새벽에 잠정에 외할머니와 어머니간의 말썽이 오가는 것을 들으니 먹을 것이 없어 푹뽀리로 끼니를 때우고 겨우 장사를 하여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말. 이런 바쁜 시기에 너희들까지 왔으니 반가운 대신 근심 걱정하는 외할머니. 나의 어린 마음에도 또다시 실망으로 된 마음 속 충격을 받았다.

◇3월 23일 토요일(맑은 날씨)

아침에 깨어나 보니 할머니는 장사를 나가고 없었다. 아버지만 어머니는 한숨을 쉬면서 토론을 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들의 살길을 찾는 식정에서 모대기고 있다(문을 이리저리 뒤튼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묻고 싶은 십정이지만 어른들의 일에 참내(참견)하고 싶지 않았다..

두말강 기슭을 따라 얼마쯤 내려가니 유달리 휘황한 집이 두말강 건너에 있었다. 알고 보니 그 집은 남조선 사람들이 와서 지은 집이라고 하였다. 나는 멀어지지 않았다. 남조선 사람들이 자기 나라도 아닌 중국 땅에 와서 훌륭한 집을 지을 수 있는가고 생각하였다.

이때 아버지께서 하는 말씀이 이제는 더는 북조선에서 살길이 막막하여 살수 없으니 너희들이 보다시피 할머니의 집도 생활이 구차하여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가는 형편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고 묻는 것이다. 이때 나는 아버지에게 정확한 대답을 못지 못하였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살길은 다말 남조선에 가야만이 너희들의 공부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마음놓고 배불리 먹을 수도 있고 희망의 날개를 펼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이때 나는 아버지가 나라를 배반하고 친애하는 지도자 품을 떠나고 자 여기에 데리고 왔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이때 나는 나의 아버지이지만은 나쁜 사람이 아닌가고 생각되어 내 생각대로 적대로 친애하는 지도자 선생님 품을 떠나서는 살수 없다고 아버지께 말씀 올렸다. 우리 행동(행동)을 보신 아버지께서는 남쪽하늘만 쳐다보며 땅이 꺼지도록 한숨만 쉬었다.

침묵을 지키며 서로 얼굴만 쳐다보던 중 어머니께서는 그러면 너희들은 어디로 갔으면 좋겠는가? 우리는 집도 없고 재산도 다 팔아 다시 집에도 가지 못한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 형님은 우리를 데리고 한쪽에 가서 너희 생각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고 묻는 것이었다. 나는 적대로 지도자 품을 떠날 수 없다고 말하였다. 형제 사이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이때 아버지께서 하는 말씀이 너희들은 친애하는 지도자 품이 좋다고 하지만은 우리 온 집안 식구는 거처하여 살며 먹을 것이 없어 더는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아버지는 고향으로 갈래야 갈 수 없는 몸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왜서인가 물으니 몇 년전부터 남조선 방송을

등으면서 남조선은 자유 세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었다.

형님은 잘 태도 나의 아버지, 못태도 나의 아버지인데 아버지 뜻은 따르자고 말하였다. 나는 이때 생각이 많았다. 하나는 나의 아버지이고 또 하나는 나의 조국의 품이다. 길건길에서 나의 심정은 아버지와 이별하고 싶지도 않고 친애하는 지도자 선생님의 품도 떠나고 싶지 않았으나 그러나 현실은 하나의 길만 선택해야했다.

아버지께서는 명경하시다시피 무조건 남조선으로 가야만이 삶의 길이라는 것을 결심하면서 너희들은 꼭 부모들의 의향대로 움직이라고 강박 하시는 것이었다. 아버지께서 결심하신 그날 저녁 밤 10시부터 중국도강 준비를 서둘렀다....중략....

◇3월 24일 일요일(맑은 날씨)

새벽 4시에 중국 〇〇〇에 도착하여 산을 오르기 시작하였다. 집집마다 아침식사 준비에 굴뚝에서 연기가 뭉게뭉게 하늘로 오르고 있었다. 어머니께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산에 좀더 들어가 불을 피우고, 아침식사를 하자고 해 우리는 밭길을 돌렸다.

한 시간쯤 눈길을 걸어 나무가 우거진 깊은 산에 불을 피우고 적은 몫을 말리며 식사를 끝낸 후 피곤에 물리어 끝나라고 갔다. 끝속에서 나의 동무들이 나를 보고 나라를 배신하는 병전자(배반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 나는 아무말도 하지 못하였다. (굴어죽지 않기 위해서 북한을 탈출하면서도 이제까지 밝은 사상교육 때문에 나라를 배신하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때 어머니께서 나를 깨우는 바람에 깨어보니 끝이었다. 이때 산에 나무하려는 조선족 중국 부부가 올라오고 있었다.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이 「북조선에서 온 사람이 아닌가」 물어볼 때 우리 가족은 어쩔 줄 몰라 몹시 당황하였다. 그러나 그 조선족은 자기 집으로 내려가자고 하였다. 집에 들어서니 한눈에 안겨오는 것이 행동기 텔레비 재봉기 등 일제히 갖추어져 있었다. 주인은 웃으며 중국은 개방 이후 발전되어 집집마다 상향형편이 모두 이 정도는 된다고 하면서 우리 집은 보통 생활이라고 말하였다.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조선족이 인정이 살아있다는 것과 남한에 비해서 경제가 형편없는 조선족의 가정의 모습이 북한 청소년

의 눈에는 아주 화려한 것으로 비추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 사회의 폐쇄성을 느끼게 한다. 즉 외부의 사정을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에 사는 조선족 부부가 나에게 준 첫인상은 정말로 내가 상상은 하지 못한 인상이었으며 중국과 조선을 대비해보지 않으면 알릴 정도였다. (북조선의 1990년도 위대한 수령님의 신년사에는 인민이 고래등같은 기차집에 고기국과 입뺑을 먹을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3월 25일 월요일(맑은날씨)

○○시에 들어서니 북조선에서 볼 수 없는 사람마다 웃음이 가득한 거지, 생기발랄하고 한희가 넘치는 얼굴들, 그 모든 이모저모 모습 등 감탄 아니할 수 없다. (북한이 상대적으로 우물하고 무거운 분위기는 것을 보여준다). 없는 것 없이 차려놓은 시장의 과일류 복장류 탄자류 등 그야말로 영화의 한 장면을 펼쳐놓은 듯 하였다.

◇3월 30일 토요일(맑은날씨)

이날도 한국사람을 찾지 못하고 날이 저물어 잠자리만 거쳐갈 길이 없어서 기차역전에서 하룻밤 쪽잠으로 밤을 지내었다.

◇4월 2일 화요일(날씨 흐림)

하루 밤 폭 자고 난 우리 일행은 또다시 기약 없는 길을 걷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때 우리 가족은 근심 어린 심정으로 있으니 식당주인이 우리 심정을 알고 절대로 시름 놓고 앞으로 살아갈 방도를 찾아 보자고 하였다.

◇4월 3일 수요일(약간 흐림)

우리 가족은 이틀동안 북조선에서 맛보지 못한 음식들을 먹어보면서 다시금 다정한 고향의 동무들이 눈앞에 선히 떠올랐다.

◇4월 4일 수요일(약간 흐림)

아침밥을 푸짐히 먹고 보니 또 북한생각 뿐이다. 우리가 떠나볼 때 옆에 살던 이모네 집에서는 요즘 어떻게 하루하루 살고 있는지. 너무 먹을 것이 없어 4명의 식구가 살아가자니 고통스러워 죽약 먹고 죽겠다고 하는 것을 겨우 알정시켜 놓았던 ○○이, 어떻게 되었는지 걱정된다.

◇4월 7일 일요일(맑음)

주인님은 오늘은 일요일인데 시내 구경을 가자고 하였다. 연길시 백화상점 시장거리, 모든 것이 다 많다. 전기용 가마, 행동기, 세탁기, 선풍기 등 많고 많은 음식품 등이 진열한 것을 볼 때, 북조선에서는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살 수 없는데, 더욱이 쌀 1kg에는 140원, 한 노동자가 두 달 일하여야 쌀 2kg밖에 사지 못한다.

◇4월 15일 월요일(맑음)

내가 이국땅 중국에 왔지만 북조선 생각이 간절하다. 이날은 아버지 수경님께서 탄생하신 날이라 북조선 어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다. (이 문장에서 김일성에 대한 숭배사상을 뚜렷하게 볼 수 있다.) 어인들이 소망이 풀리듯, 왜냐하면 1년동안 먹어보지 못한 사탕, 라자를 먹어보기 때문이다. 나의 동무들에게도 차려지겠지.

동무들아 오늘은 너희들도 기쁘겠구나. 너희들은 지금 사탕 라자를 먹으며 좋아하는 것이 눈에 삼삼하다.

◇4월 17일 월요일(개입)

주인집 아저씨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번에 꼭 어떻게 하든지 한국에 가야 한다고 했다. 돈 500원을 동무네 집에서 꾸어주면서 이번에 북경에 가면 뭐도 모르니 찾아가기 힘들다고 하며 자기 아들과 같이 간다고도 하시었다. (조선족 사람의 훈훈한 인정을 느낄 수 있다.) 이날 저녁 아버지 어머니께서 북경으로 떠나시었다.